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8 호 8월 25일

평양 로동 신문사 발행 1955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제8호 (117)

1955년 8월 25일

내용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八·一五 조선 해방 一〇주년 기념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 김 일 성 (三)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조선 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임무 …… 윤 철 호 (二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조선 혁명 …… 박 형 식 (三三)
우리 혁명 수행에서의 로농동맹과 통일 전선 …… 장 위 삼 (四九)
쏘련 인민의 행동의 새로운 강령 …… 리 상 일 (六〇)
평화와 국제적 협조를 위하여 …… 허 봉 삼 (七一)
인민의 복리의 부단한 증진은 인민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 한 천 일 (八二)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 강화를 위하여 …… 오 현 주 (九二)
과학적 공산주의의 필승 불패의 힘 …… 김 동 훈 (一〇六)
미제의 경제 『원조』와 남조선 산업의 파탄 …… 홍 석 종 (一一六)

— 꼰쑬따찌야 —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화 발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 …… 한 영 규 (一三五)
경제 공황의 기본 합법칙성과 특수성 …… 이·뜨라흐쩬베르그 (一四一)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八・一五 조선 해방 一○주년 기념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김 일 성

(총기립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장엄한 창조적 로력 투쟁 속에서 가장 의의 깊은 민족적 명절인 八・一五 해방 一○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바로 一○년 전에 영용한 쏘베트 군대는 우리 조국 강토에서 악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을 구축하고 우리 민족을 근 四○년 간의 고통스러운 식민지 노예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 인민은 진정한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향유하게 되였으며 자기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 설 수 있게 되였습니다。

쏘련 인민들은 비단 우리를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인민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항상 물심 량면의 원조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의의 깊은 민족적 명절인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맞이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우리의 해방자이며 원조자이며 진정한 친우인 위대한 쏘련 인민과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와 쏘련 군대에 최대의 감사와 영예를 드리는 바입니다。(**총기립 오래 계속되는 박수**)

다음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 무장 투쟁에서 조선 인민과 어깨를 같이 하고 장기간에 걸친 공동적인 반일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항미 원조의 기치를 들고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로써 조직한 지원군을 조선 전선에 파견하여 피로써 우리를 원조하여 주었고 전후 복구 건설에서도 막대한 원조를 계속 주고 있는 위대한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와 또 그의 우수한 아들 딸들인 중국 인민 지원군에 최대의 감사와 영예를 드립니다。(**총기립 오래 계속되는 박수**)

오래 동안 일제 통치의 기반으로부터 자기의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八·一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영예로운 력사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국제 반동 세력의 침해로부터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였으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총기립 오래 계속되는 박수**)

一、

친애하는 동지들!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의 조선 인민은 실로 아무러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봉건적、자본주의적 및 식민지적 二중 三중의 압박과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조선의 민족 경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리윤 획득의 원천지로 되였었고 조선 민족의 문화、교육、언어、풍습 등은 여지 없이 유린 당하였으며 일제의 잔인한 경찰 테로에 의하여 수십만의 우리의 애국자들이 학살、투옥되였습니다。

참으로 당시 조선 인민은 민족적 멸망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족적 멸망의 위험에서 쏘련 군대는 우리 민족을 구출하여 내였습니다。민족적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된 조선 인민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민족의 장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할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되였습니다。

해방된 조선 인민 앞에는 패망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와 그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분쇄하고 새로운 인민적 사회 경제 제도를 창설하며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혁명적 과업들이 제기되였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급격히 앙양되고 장성되는 인민 대중의 거대한 혁명적 력량과 적극성은 친일파、민족 반역자、지주 등 반인민적 반동 세력을 제압하면서 전 조선 방방 곡곡에서 인민 정권 기관인 인민 위원회들을 조직하였습니다。

인민 정권에서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로동 계급은 농민들과의 튼튼한 동맹으로써 일체 반제국주의적、반봉건적 광범한 계층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섰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 주둔한 첫날부터 식민지 략탈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인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남조선에 조직된 인민 위원회들을 도처에서 해산하고 식민지 통치 기구를 재생시켰으며 남조선에 괴뢰 정부를 조직하고 그에 친미、친일파、민족 반역자 등 일체 반인민적 반동 세력을 집결하였습니다。

미제 강점자들과 반동 괴뢰들은 남조선에서의 애국적 민주 력량과 일체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총검으로 탄압하며 조선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 국가 건설을 적극 반대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은 인공적으로 량분되기 시작하였으며 조국의 남 북반부에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조건들이 조성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에 조성된 이와 같은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북조선에서 쏘베트 군대가 지어 준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조국 통일의 기초로 되는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며 그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강화할 제 과업들을 규정하고 전체 애국적 력량을 이 과업을 실천하기에 조직 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제기한 이 과업은 우리의 민족적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인민 정권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 각계 각층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습

니다.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북조선에서의 지주 계급을 청산하고 근로 농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기적 숙망이던 토지의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 관계는 근절되였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급속히 향상되고 우리의 농촌 경리는 향상의 일로를 걷게 되였습니다.

인민 정권은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이였던 일체 산업, 은행, 운수 수단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의 골간으로 되는 이 경제 부문들을 전 인민적 소유로 만들므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 관계와 로동에 대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였으며 국가의 주인이 된 로동 계급은 착취자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력하게 되였으며 무제한한 창의 창발력을 발휘하며 증산 경쟁을 전개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 생산 능률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제고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 정권은 인민들의 권리와 각 방면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일련의 중요한 민주주의적 대책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책들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새로운 토대 우에서 강화 발전되게 하였으며 로 농 동맹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로동과 휴식과 배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였고 녀성들의 사회 정치적 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부문에서도 식민지 노예 교육, 문화 제도가 철페되고 민족적 형식에 민주주의적 내용을 가진 인민적 교육 문화 예술이 급속히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 생활과 우리 당의 꾸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 사업의 결과 우리 인민에게는 새로운 선진적 사상 의식과 도덕적 면모가 형성 발전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사상적 단결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애국주의와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헌신성, 로동에 대한 영예감과 창발성, 이 모든 것은 과거 一〇년간 우리 인민의 정치적 의식과 도덕적 면모에서 발생한 변화의 중요한 특징들인 것입니다.

一九四八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나라 력사상의 가장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인민 공화국이 창건됨과 관련하여 공화국 북반부로부터 쏘베트 군대가 철거하였고 우리 공화국은 쏘련을 비롯한 일

련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 되였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 개시될 때까지 해방 후 五년 간에 걸친 새 생활 건설의 각 방면에서는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一九四九년 말에 이르러 공화국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들은 그 생산량에 있어서 해방전 一九四四년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였으며 특히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은 수배로 확장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도 훨씬 향상되였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이와 같은 실정은 남반부 인민들에게 고무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야수적 증오심을 일층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남조선에서의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또한 괴뢰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 항쟁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팟쇼 경찰 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공화국 북반부를 강점하고 전체 우리 인민을 노예화할 목적으로 一九五〇년 六월에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여 오래 전부터 준비하여 오던 무력 침범을 감행하였었습니다.

미제 무력 침범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三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 가장 엄중한 시련이였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란 그 무엇인가를 근 四〇년 간이나 직접 체험한 조선 인민은 다시는 그 치욕적인 식민지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일관된 결의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또한 그를 보장하는 인민 민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 사람같이 궐기하였습니다. 이 간고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과 그의 용감한 무장력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전선과 후방에서 미증유의 영웅성과 애국주의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그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감당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제를 비롯한 一六개국의 국제 제국주의 련합 세력은 조선 전선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거대한 력사적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전체 우리 인민의 고상한 애국주의와 영웅성에 의하여서와 또한 우리 인민의 무궁한 힘의 원천으로 되여 있는 인민 민주 제도의 생활력과 조선 로동당의 조직적 및 지도적 역할에 의하여 쟁취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전체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진영의 승리인 동시에 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하에 단결

된 인민들의 힘이 그 얼마나 강대하다는 것을 뵈여 주었습니다.

실로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가 쟁취한 승리는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 하에서만 가능하게 되였던 것이였으며 이 국제주의적 원조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던 것입니다.

특히 위대한 중국 인민이 항미 원조 운동을 전개하고 자기의 영용한 인민 지원군을 파견하여 피로써 우리를 도와 줌으로써 우리의 공동의 승리를 보장한 사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조의 새로운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미제 무력 침범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이 세운 불멸의 위훈과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국제주의적 원조는 우리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사에 언제나 빛나는 페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박수)

조선 전쟁의 결과는 제국주의자들이 약소 민족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략탈하던 그 시기는 이미 과거로 돌아 갔다는 것을 뵈여 주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각개 인민이 손에 무기를 잡고 침략자들을 대항하여 끝까지 용감히 싸운다면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단련되였으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그들의 신망은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의 사상 정치적 단결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정전과 관련하여 우리 인민 앞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안정 향상시킬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업들이 제기되였습니다.

전체 우리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호소에 호응하여 전쟁 시기에서와 같이 앙양된 기세로 전후 인민 경제 三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구 건설 사업에 총궐기하였습니다.

三개년 계획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하게 파괴 령락된 인민 생활을 회복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보장하는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를 전쟁전 수준까지 회복하며 공업에 있어서의 식민지 편파성을 퇴치함으로써 장래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점차 실시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을 조성할 것이 예견되여 있습니다.

인민 경제 복구 건설 三개년 계획의 첫 해인 一九五四년도 계획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력과 애국주의적 헌신성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완수되였으며 또한 三개년 계획의 결정적 해인 금년도 一九五五년 계획도 성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전 후 二년간 우리 인민이 전후 복구 건설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공업 건설을 위한 기본 투자액은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四·七배로 장성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전 후 二년간 기계, 광업, 제철, 건재, 방직 및 기타 부문들에서 신설되였거나 또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복구 확장되여 조업을 개시한 대 중 공장, 기업소 수는 약 二백 九○개소에 달합니다.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二·五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 一九五五년 상반년의 전력 생산은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三·四배로, 석탄은 六배로 장성하였으며 기계 공업에 있어서는 이전에 생산할 수 없었던 금속 절삭 기계, 후렉숀 프레스, 선박용 엔징, 직류 발전기 및 기타 많은 신기계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 있어 실로 획기적인 성과들입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一九五五년 상반년의 면직물 생산이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二배로 증가되였으며 견직물 생산은 四배로, 어획고는 三·三배로 각각 장성되였습니다.

농업 발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 류실되였던 경지 면적을 많이 복구하였으며 관개 시설, 제방, 양수장들을 많이 신설한 결과 몽리 면적이 약 四만 정보 더 증가되였습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 농촌 경리가 한 걸음 더 발전된 또 하나의 현상은 농업 협동 조합들이 광범히 조직된 그것입니다.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 수는 만 여 개소에 달하며 그에 망라된 농호 수는 전체 농가 호수의 약 四四%나 되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쟁 시기에 일부 지방들에서 시험적으로 조직되였던 농업 협동 조합들이 우월성과 유리성을 농민들에게 뵈여 주었고 또한 정전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부족되는 로력 및 축력의 합리적 리용의 필요성이 발생되였기 때문에 집체적으로 로력 조직과 또한 그에 참가할 데 대한 농민들의 욕망이 높아진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경소는 二·六배, 뜨락또르 수는 一·七배로 장성하였으며 우마 임경소가 도처에 광범히 조직되였습니다.

공화국 정부에서 농촌 경리 복구 발전을 위하여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지출한 기본 투자액은 一九五三년 상반

년에 비하여 三·六배로 장성되였습니다.

철도 운수 부문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一九五五년 상반년의 철도 화물 수송량은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八四% 증가되였으며 현재 월 평균 수송 수준은 전쟁전 一九四九년도 월 평균 수송 수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이 급격히 장성됨으로써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 인하는 전후 짧은 기간에 三차에 걸쳐 실시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一九五五년 상반년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물가 수준은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약 五五% 저하되였으며 인민들이 얻은 리익은 一백 一〇억원 이상에 달합니다. 금년 八월 一일부터 실시되는 전후 제四차 물가 인하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三四억원의 혜택을 또 받게 되였습니다.

공화국 로동자, 사무원들을 위한 주택은 一백만 평방메터 이상이나 더 신축되였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도 현저히 장성되였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농민들에게도 거대한 국가적 방조를 주었습니다. 전쟁 기간에 농민들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현물세 미납량, 은행 대부금, 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하여 주었고 그들의 영농을 방조하기 위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과 필요한 종곡 및 식량, 화학 비료들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물세 비률도 일부 감소하는 방향에서 개정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당과 정부의 부단한 배려의 명백한 표현인 것입니다.

전후 기간에 있어 공화국 문화 보건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 가혹하던 그 시기에도 공화국의 교육 체계는 계속 확보되여 각급 학교들이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정전과 관련하여 각급 교육망은 급속히 확대 강화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공화국 내에는 四천 八백 개소 이상의 인민 학교 및 중학교들과 七二개소의 기술 및 각종 전문학교, 一六개소의 대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인민 보건 시설도 적지 않게 복구 확장되였습니다. 정전후 二년 간에 병원 및 진료소 수는 四백 개소 이상으로 되였으며 그에 복무하는 의사 수는 약 四九% 증가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형제적 제 국가들이 자기의 병원 및 의료 일꾼들을 우리 나라에 보내여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의료상 방조를 직접 주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지적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 복구에서도 커다란 사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체 건설자들의 헌신적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의 정무원, 학생, 군무자들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정전후 二년간 우리는 수 많은 주택, 학교, 병원, 청사, 극장, 영화관 및 기타 건물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전후 시기에 우리 인민이 복구 건설 사업에서 달성한 대체적인 성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자만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 경제 복구 건설 三개년 계획을 전적으로 완수 또는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긴장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三개년 계획이 완수된 후에는 우리의 인민 경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명년으로 끝나는 三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될 것을 예견하고 一九五七년부터 실시될 인민 경제 五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다. 五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는 장래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를 완전히 수립하며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적 조건들을 조성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에서의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 예견될 것이며 특히 소비품 생산과 인민 생활 향상에 계속 고려가 돌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민주 기지를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서 미제의 야수적 만행에 의하여 각개 우리 공민의 개체 생활로부터 전 국가적 생활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막대한 손실과 파괴를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을 거의나 전부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후 복구 건설 범위는 방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둘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구 건설 사업은 파괴된 인민 경제 부문들을 옛것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서 그것을 재건하며 이전에 없던 일부 공업 부문들도 새로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후 복구 건설 사업과 함께 우리 나라 중요 경제 부문들 즉 공업과 농업에서는 심각한 본질상 변화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남겨 놓은 낡은 기술이 아니라 새 현대적 기술로 우리 공장、 기업소들이 장비되고 있는 데 대하여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본다 할지라도 대부분 낡고 퇴폐한 것 대신에 현대적 건물들이 건설되여 우리 도시들의 면모를 전연 새롭게 하고 있는 사실들은 이것을 명백히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자재들을 충족하기에 적지 않은 곤난성을 가져 옵니다。

세째、 우리에게는 현대적 기술과 기능을 소유한 민족 기술 간부들이 부족합니다。

일제 시대에는 조선 사람에게 기술을 배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기술 간부가 극히 적었습니다。 해방 후 一〇년간 우리는 적지 않은 민족 기술 간부를 양성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수의 기술 기능자들을 양성하기에는 一〇년이란 기간은 대단히 짧은 기간이였습니다。 더구나 전쟁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기술 기능 간부들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속한 템포로 장성하는 우리의 공업과 농업에 대비하여 볼 때 우리에게는 기술 간부가 많이 부족됩니다。 그러나 이 난관들은 우리 경제의 급진적 장성과 관련된 난관들이며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난관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난관들을 극복 타개하기 위하여 공화국 정부는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에는 또한 결함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대하고도 장기적인 건설 사업에서 산만성과 일부 조급성을 나타내는 현상들도 있으며 세심한 타산력과 계획성과 예견성이 아직 부족하며 사업의 질적 제고에 대한 고려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또한 유휴 자재 및 내부 원천 탐구 동원 리용 사업에서나 경제 및 로력의 절약、 설비의 합리적 리용、 국가 및 사회 재산의 애호 보관 관리 등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결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부강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과 로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이 내포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계속 탐구 개발하여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에 있어 기초로 되는 중공업 발전에 계속 주목을 돌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점차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공업화는 우리 나라 경제 조건에 적합하고 적절한 면들과 또한 형제적 제 국가들과의 유기적으로 맺어진 경제적 련관성을 심중히 참작하여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 생활 필수품을 계속 증가시

킬 것입니다。

우리들은 농업 발전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경제 건설에 있어서 량곡이 가지는 의의는 비상히 크며 량곡이 풍부하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닌은 『량곡은 즉 사회주의』라고 하였습니다。

공화국 일부 지역들에서의 작년도 수해와 랭해로 말미암아 식량 곤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식량의 곤난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공화국 정부는 금년 하반년에만 하더라도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년초 계획보다 一〇여 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관개 수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농업에 보다 더 많은 자금과 로력을 투하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작성될 五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도 방대한 관개 시설 수리 공사와 토지 개간 면적을 확장하도록 하며 농기계 생산 증가 및 기타 일련의 근본적인 대책들이 예견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당 및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여 그의 량적 장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나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며 알곡 수확고를 더욱 제고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우리 나라에 량곡을 더욱 풍부하게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더욱 향상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체 근로자들은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과 자기의 재능을 다 바쳐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며 제품의 질을 개선하며 엄격한 절약 제도를 수립하며 건설과 제품의 원가를 저하시키며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물질적 기초로 되여 있는 국가 및 사회 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며 그를 인민의 원쑤들의 각종 형태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각 분야에 걸쳐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발전과 향상의 일로를 걷게 될 것이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훨씬 향상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기초로 되는 로농 동맹이 일층 강화될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더욱 공고히

될 것입니다.

二、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해방 후 一○년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영예로운 성과들을 총화하는 동시에 미제 강점 하에 있는 현하 남조선 형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 반도는 한날 한시에 일제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성된 국제 정세 하에서 북위 三八도선을 한계로 하는 남조선은 불행히도 미군의 진주 지역으로 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강점을 장구화할 목적으로 남조선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가혹한 략탈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남북 조선의 분렬을 조장하고 조선에 민주주의적 통일 국가 수립을 파탄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우리 동포 형제 자매들은 또 다시 미제의 식민지 예속 하에서와 남조선 괴뢰 정권의 학정 하에서 고통스러운 一○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一○년간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 략탈 정책과 리 승만 괴뢰들의 반인민적 배족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 경제의 식민지 예속성과 편파성은 더욱 심하게 되였으며 민족 공업은 몰락의 일로를 걸어왔고 근로자들은 잔인한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 왔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이 도발한 조선에서의 전쟁은 남조선 경제를 더욱 한심한 상태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조선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 경리는 심대한 파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전 후 二년이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도 남조선에서는 눈에 띄울만한 공장 복구 공사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제품 생산이 정전 당시보다 一九五四년도에 와서는 훨씬 감소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一九五四년도 상반년에 남조선에서의 석탄 채굴량은 一九五三년도 상반년에 비하여 二八% 감소되였으며 고무신 생산은 六八%, 비누 생산은 三七% 감소되였다고 합니다. 서울 신문 보도에 의하면 一九五四년 한해 동안에만 하여도 남조선 방직 공업의 많은 부분이 페업하였다 합니다.

정전 후 미국은 一九五四년도에 二억 딸라의 소위 『원조』를 남조선에 약속하고 그중 六○%를 기본 산업 투자에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실행되지 못하고 그의 극히 소부분에 해당한 물자만이 남조선에 투입되였으나 그 물자의 대부분은 미국의 잉여 소비품들이였습니다.

一九五五년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 적지 않은 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조 년도가 四개월 남은 지난 二월말 현재까지 약속의 겨우 五%에 해당한 잉여 소비품만이 입하되였을 따름입니다.

남조선에 대한 자기의 자본 투자와 잉여 상품 판매에 리해 관계를 가진 미국 독점가들은 남조선 민족 산업 복구에 전혀 흥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리 승만은 정전 후 인민들의 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一九五四년에와·또한 一九五五년에 소위 『부흥 계획』을 세워 보느라고는 하였으나 그 자금의 九○% 이상이 소위 『원조』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흥 계획』은 남조선 출판물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림의 떡』과 같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남조선 농촌은 더욱 처참한 형편에 있습니다.

괴뢰 정부의 기만적 농지 개혁에 의하여 농촌 경리의 령세화와 농촌의 계급 분화는 더욱 심각화되여 가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식량난과 고리대들의 착취와 괴뢰 정부의 가렴 잡세 등으로 극히 곤난합니다.

남조선 공식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의 경작 면적은 농지 개혁 후에 점점 감소되여 一九五三년의 경작 면적은 一九四五년도에 비하여 一五% 이상 감소되였으며 이에 따라 수확고도 역시 감소되였다 합니다. 一九五四—一九五五년도에는 최소 한도 四三○만석 이상의 량곡이 부족된다고 합니다. 一九五五년 四월말 현재 절량 농가 수는 약 四六만호에 달하였으며 一九五四년 一월부터 一一월까지의 남조선 농민들의 부채액은 매호 당 평균 약 九천환에 달하며 그의 총액은 약 二백억환에 달합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농사를 버리고 농촌을 떠나 가는 농민 수는 一九五四년도에만 하여도 실로 수만호에 달합니다.

중 소 상공업자들과 수공업자들도 과중한 세금과 미국 및 일본의 독점 자본가들의 잉여 상품의 범람과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파산을 속출하고 있으며 실업군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의 파탄, 중 소 상공업자 및 수공업자들의 파산은 수 많은 실업자군을 내고 있습니다. 금년 二월 남조선 통신에 의하면 남조선에서의 실업자 수는 약 二백만명에 달하는바 이들은 지금 직업을 얻

기 위하여 거리들을 방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북조선에서는 정전 후 벌써 四차에 걸쳐 물가 인하를 실시하였는데 남조선에서는 물가가 계속 등귀하고 있습니다。 一九五四년 一二월 현재 남조선 소매 물가의 지수는 一九五三년 七월에 비하여 평균 二一一%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남조선의 이와 같은 형편은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 략탈 정책과 리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정책과 광신적인 군비 확장에 근본적으로 기인되는 것입니다。

미제와 그의 남조선 괴뢰들은 정전 협정이 조인된 후 며칠이 안되는 一九五三년 八월에 소위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북진 통일』이란 소동 하에 남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대량의 무기를 남조선에 반입하여 괴뢰군의 무장을 강화하며 남조선 청년들과 학생들을 강제 징병하여 새로운 사단들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족 경제의 부흥이나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류혈적인 동족 상쟁의 내란을 또 다시 도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一九五四년도 남조선 총 예산액의 七二% 이상이 직접적 군사비였습니다。

남조선에서의 경찰 테로의 탄압이 극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식민지 정책과 그의 괴뢰들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항쟁 운동은 점점 높아 가고 있습니다。

남조선 로동자들은 一九五四년 一월부터 동년 九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一백 여건의 파업 투쟁을 단행하였는바 거기에는 부산、군산、마산의 부두 로동자들과 『대한 석탄 공사』 로동자 七천 여명을 포함한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납세 반대 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괴뢰 정부 농림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농민들의 『공출』 반대로 말미암아 一九五四년도 추곡에 대한 공출량이 금년 二월 一六일 현재 계획의 五六% 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一九五四년 남조선 청년들은 괴뢰군의 강제 징집을 반대하여 전체 대상자의 三一%가 기피하였으며 최근 대학 졸업생들은 그의 八〇%가 강제 징병을 반대하여 기피하였습니다。

이것이 즉 오늘 남조선의 진상입니다。 공화국 남반부는 민족 경제의 파탄과 식민지화 및 전쟁 도발의 길을 걸어 왔으며 앞으로 조국의 통일이 조속

히 달성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는 더욱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국토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단일한 우리 나라의 전체적 발전에 참을 수 없는 저해를 주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빈궁에서 신음하게 하며 전체 조선 인민에게 커다란 불행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전체 우리 조선 인민의 최대의 과업으로 되여 있습니다。 현하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이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여야 하겠습니다。

해방 후 一〇년간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모든 성의 있는 노력과 투쟁을 다하여 왔으며 이 투쟁은 어려운 여러 계단으로 진행되여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의 모든 투쟁 력사는 실로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 력사였습니다。

一九四五년 一二월 조선 문제에 대한 모쓰크바 三국 외상 회의의 결정은 당시 국 내외 환경 하에서 조선의 통일과 그의 평화적 장래 발전 조건을 보장하는 정당한 결정이였습니다。 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쏘련 측의 성의 있는 노력과 정당한 제의와 또한 우리 인민들의 진지한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배층들의 반동적 립장과 리승만 역도들의 배족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二차에 걸친 쏘 미 공동 위원회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모쓰크바 三국 외상 회의의 결정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통일 문제를 조선 사람 자체가 회담과 호상 리해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힘과 로력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一九四八년 四월에 남북 조선 각 정당、사회 단체 대표들의 련석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동년 六월에 남북 조선 각 정당、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협의 회의가 소집되였습니다。 이 련석 회의와 협의 회의는 모두 다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조선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달성하려는 첫 실지적 조치였습니다。

四월 련석 회의 후 발표된 남북 조선 제 정당、사회 단체들의 공동 성명에는 당시 조성된 정세 하에서 조선으로부터 쏘 미 량국 군대가 철거하는 것은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과 조선에서의 민주주의적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구체적 방법들이 명시되였습니다。

그 후 一九四九년과 一九五〇년도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결정 등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또한 남북 조선의 전체 우수한 애

국적 력량을 대표하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시종 일관한 투쟁에 대한 명백한 실례들입니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를 사랑하는 남북 조선 전체 애국적 인사들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 조치들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그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쏘련 군대는 북조선으로부터 이미 一九四八년에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과 또한 그의 무력에 의하여서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남조선 괴뢰들은 남조선 인민들과 애국적 인사들의 조국 통일 운동을 총검으로 대항하였으며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써 우리의 평화적 통일 제안에 대답하였습니다。

정전 협정 조항에 의하여 정전후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회의 소집과 또한 제네바 외상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모두 다 미국 지배층과 남조선 당국의 반동적이며 배족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네바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 해결이 실패된 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八차 회의는 남조선 국회、각 정당 및 사회 단체、군대 및 인민에게 호소문을 보내여 조선의 통일 문제를 토의할 것을 또 다시 제의하였으며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각 기관 및 단체들은 최고 인민 회의의 호소를 실천할 목적으로 남조선 해당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을 루차 제의하였습니다。

최고 인민 회의 제八차 회의의 호소는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과 심지어는 남조선 일부 국회 의원들과 괴뢰 군대 내에서까지도 광범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루차에 걸쳐 제출된 정당한 제안들은 남조선 정권 당국에 의하여 거부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 一〇년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시종 일관하게 투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一〇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 있어서도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국토와 민족이 의연히 량분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을 위한 해방 후 一〇년 간의 우리의 어려운 투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지한 투쟁으로써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에게 조국 통일의 전망을 더욱 명백히 하였으며 전체 남북 조선 인민들은 우리의 제안을 지지하였습니다。 비록 미제와 또한 리 승만을 위시한 소수 반동 분자들의 파괴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직 통일 독립은 달성되지 못하였지만 전체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한 우리의 평화적 통일 독립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오래 계속되는 박수)**

우리는 과거 一〇년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위업에 일관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금후에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원칙과 립장은 명백합니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 사람 자체의 의사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들을 철거하고 외국의 간섭이 없이 남북 조선 인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선 문제를 토의하며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통일적 민주주의 중앙 정부를 수립하며 인민이 선거한 대표들로써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이며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정당한 길입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단결과 조국 통일을 원하지 않는 리 승만 도당들과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만이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 대신에 『북진통일』이란 요란스러운 소동을 일으키며 정전 협정을 란포하게 위반하면서 군사 물자의 반입과 군사 접촉선에서의 도발 행동을 감행하며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대한 폭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조선 괴뢰들은 또한 개성、옹진 및 한강 하류 북안 등을 강탈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류혈적 동족 상쟁을 또 다시 도발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회담과 호상 리해의 방법으로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대단히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급속히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는 남이니 북이니 할 것 없이 전체 우리 조선 동포들이 지난 전쟁에서와 같이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이며 또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부모、동생、처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고통을 조속히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히 남반부 인민들의 경제적으로 되는 고통、즉 북반부의 풍족한 전력、금속 공업 제품、철재、강재、동、연 등과 화학 제품、비료、카바이트、소다、쎄멘트、무진장한 석탄、광석 등 광범한 자원들을 남반부 인민들도 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북 조선을 격리시키는 장벽을 조속히 없애고 남북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며 경제 문화적 활동을 자유로이 함으로써 남북 인민들에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고통을 속히

제거하기 위하여서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정전으로써 달성된 제반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이 호상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남북 조선 국회들 간의 협상과 인민들 간의 래왕을 진행하며 경제、문화、과학、예술 등의 교류를 조직함으로써 남북 조선 인민들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호상 리해의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선 인민 자체의 일입니다. 만약 조선 사람들 자체가 이것을 다 원한다면 누가 우리의 이 념원을 가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정전의 공고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의 선결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가진 유관 국가들이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조선에서 전쟁 재발이나 혹은 조선에서의 평화 유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든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데 대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아세아 국가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극동 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 각국 정부에 희망하는 바입니다.

외국 무력이 조선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장애로 되고 있으니만큼 조선에 자기 군대를 파견한 당사국들은 일체 외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거할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조선 정권 당국은 남북 간에 현존한 불신임과 긴장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 행사도 하지 않고 조선 통일에 관한 일체 문제를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의무를 질 데 대하여 조선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 앞에 선포할 것과 남북 조선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생산 로력을 평화 건설에로 돌리기 위하여 남북 조선 군대를 최소 한도로 축소시킬 것을 우리들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남북 조선 간에 호상 접근과 협상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념원을 고려하여 조선 통일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정부의 대표자 회의를 가급적 속한 기일내에 소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우리들에게는 많은 난관과 장애로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지금도 많이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장애가 있어도 전체 조선 인민들의 숙망으로 되고 있는 이 신성하고 위대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반동 세력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물리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전체 우리 인민들은 각계 각층을 망라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가일층 확대 강화할 것이며 우리는 정치적 견해와 신앙의 여하와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진정으로 념원한다면 그들을 기쁘게 포옹할 것이며 그들과 협상할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국가와 인민들 앞에 적지 않은 죄를 범하였던 자라도 만일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환영할 것이며 그와 협상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사업과 행동은 현하 우리 인민의 최대의 과업으로 되여 있는 조선의 통일 독립을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는 목적에 전적으로 복종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의 국제 정세는 우리 인민이 현하 이 최대 과업을 실현함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꾸준한 투쟁과 특히 쏘련의 시종 일관한 평화 애호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와서 국제 정세에는 일정한 개선이 달성되였습니다.

인도지나에서의 정전의 실현과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 반동 회의와 헬싱키 평화 애호 력량 대표자 대세계 회의는 세계 평화와 또한 각이한 제도들 간의 공존을 위하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이였으며 대오 국가 조약 체결、쏘련 유고슬라비야 간의 관계 개선、쏘련—인도 간의 친선 관계 강화 및 기타 사변들은 세계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서 진 일보로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제네바에서 진행된 四렬강 수뇌자 회의는 국제 긴장 상태 완화와 세계 평화 사업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변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함께 이 회의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의 결정들이 실현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평화 사업에 유리하게 발전되는 이러한 국제 정세 하에서 우리는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목적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강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 인민은 해방 후 一〇년간 자기의 로력과 투쟁의 결과를 커다란 만족감으로 총화하면서 앞날의 보다 더 큰 성과와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조선 인민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일층 굳게 단결하여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령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 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우렁찬 박수)

一、우리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인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만세!(좋기립 박수)

二、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만세!(좋기립 박수)

三、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의 불패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만세!(좋기립 박수)

四、사랑하는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영광이 있으라!(만장 좋기립 박수 오래 계속)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조선 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임무

윤 철 호

조선 인민은 오늘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영광스러운 민족적 명절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맞이한다。

자기의 민족적 명절 해방 一〇주년을 맞이하는 조선 인민의 생활은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되여 있으며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굳은 결의로 가득차 있다。이 최대의 민족적 명절에 제하여 조선 인민은 지난 一〇년 간에 자기들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을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위대한 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쏘련 인민과 쏘련 정부와 쏘련 공산당에 전 인민적 감사와 영광을 보낸다。

지나간 一〇년 간은 조선 인민의 력사에서 참으로 그 류례를 볼수 없는 위대한 사변들로 충만되여 있다。이 기간에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지도 하에 위대한 쏘련 및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국가 인민들의 시종 일관한 지지 방조를 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 공고화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三년여에 걸친 무력 침공을 분쇄하고 위대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평화적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이 모든 투쟁을 통하여 조선 인민은 실로 어떠한 힘으로도 타승할 수 없는 강력한 인민으로 장성하였으며 어떠한 곤난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영웅적 인민으로 되였다。

그러나 영광스럽고 기쁨에 찬 해방 一〇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도 남북 조선 인민들은 이 영광과 기쁨을 한 자리에서 나누지 못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테로 략탈 정책에 의하여 위구와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다。이와 같은 사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과

그 주구 리 승만 도당의 매국 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략탈 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는 완전히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있다。 오늘 남반부의 산업은 거의 페쇄되고 로동자들은 혹심한 노예적 로동과 실업에 강박 당하고 있으며 농촌은 황페화되였으며 지주들의 착취는 더욱 혹심하여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등귀하며 인민은 털끝만한 자유도 없이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저해하면서 계속 무모한 전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리 승만 매국 도당은 미제의 사촉하에 또 다시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려고 발광하고 있으며 소위 『북진 통일』을 떠벌리고 있다。

해방 一○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국토의 량단으로 인하여 남북 조선 간에 조성된 상이한 사태는 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단일한 우리 나라의 정상적 발전에 심대한 저해를 주고 있다。

국토의 량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나라의 통일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남반부의 민족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다。 미제가 추구하고 있는 남조선 민족 경제에 대한 파괴 정책은 남조선의 로동자、농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민족 자본가、상인、수공업자들까지도 파산시키고 있다。 국토의 량단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들을 통일적、계획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된 찬란한 우리 나라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선진적 문화의 전면적 보급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남조선의 허다한 문화 시설들은 부패 타락한 색정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민족 허무주의 사상을 고취하며 리 승만 매국 도당의 소위 『북진 통일』의 라팔을 부는 데 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량단은 수만의 조선 사람들의 가정 생활에까지도 커다란 불행을 가져오고 있다。

국토가 량단됨으로 해서 조선 인민이 겪은 또 겪고 있는 손실과 고통은 비할바 없이 크다。 그러므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며 최대의 당면 임무이다。 이 임무를 달성함으로써만 우리는 전국적 규모에서 우리 혁명을 더욱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으며 조국의 부강한 륭성 발전과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이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되여야 하며 복종되여야 한다。

❀ ❀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일관된 주장은 확고 부동하며 명백하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외국의 간섭이 없이 남북 조선 인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담과 호상 리해의 방법으로 조선 문제를 토의하며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통일적、민주주의적 중앙 정부를 수립하자는 데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이 정당한 주장은、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 자체로써 능히 해결될 수 있으며 응당 해결되여야 한다는 전체 조선 인민의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나오며 또 그것은 조선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조선 인민의 이 일치한 념원과 철석같은 주장을 표명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조선 민족은 하나이며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조선 문제는 응당 조선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조선에서 정전이 달성된 후 우리 인민은 일체 력량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경주하면서 조선 문제는 어떠한 외국의 강압과 무력적 간섭이 없이 조선 사람 자체에 의하여 회담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것을 견결히 주장하여 왔다。 이것은 작년 四월에 열렸던 제네바 회의에서 우리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취한 일관된 주장이며 오늘도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확고 부동한 립장이다。

이 립장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八차 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에서 또다시 표명되였는바 그것은 남북 조선 인민 간의 련계와 친선을 강화하며 조선 사람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조선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八차 회의에서 제기한 이 호소는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과 심지어는 남조선 일부 국회 의원들과 괴뢰 군대 내에서까지도 광범한 지지를 받았으며 일본、하와이 등 기타 해외에 있는 수 많은 우리 동포들과 그리고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념원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 찬동을 받았다。

우리 인민은 이 호소문에 제기된 방안들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남북 조선의 접근과 그를 위한 가능한 모든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루차에 걸쳐 제출한 이 정당한 제의도 미제와 그의 사촉 하에 있는 리 승만과 그의 몇몇 추종 분자들의 파괴적인 행동에 의하여 거부당하고 말았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문제를 한사코 반대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며칠이 안되는 一九五三년 八월에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 무기한으로 주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 준

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정전 협정을 란포하게 위반하면서 일련의 도발적 행동——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장 침습、작전 물자의 비법적 반입、군사 력량의 증강、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박해와 그를 해체할 흉책 등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그들은 괴뢰군의 무장을 강화하며 남조선 청년들과 학생들을 강제 징병하여 새로운 사단들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족 경제의 부흥이나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 상쟁의 내란을 또 다시 도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그들은 최고 인민 회의 제八차 회의의 호소문이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 침투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또 그를 지지 찬동하는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위협、공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징벌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을 위시한 소수 반동 분자들의 파괴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끼리 협상과 회담의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제의와 노력이 비록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이것 때문에 남북 조선의 협상의 길이 영원히 폐쇄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조선 사람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조선의 평화적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 가고 있으며 더욱 많은 지지자들을 쟁취하고 있다。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해방 후 一〇년 동안 미제와 리 승만 테로 통치 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여 온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오직 조국의 평화적 통일만이 비참하고 무권리한 상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그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전체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한 남북 조선의 협상의 길은 폐쇄될 수 없는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일관된 정당한 립장、즉 우리가 회담과 호상 리해의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력량이 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는 남이니 북이니 할 것없이 전체 조선 인민이 지난 전쟁에서와 같이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또 다시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이며 또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부모、동생、처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고통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서이다。그것은 특히 남반부 인민들의 경제적으로 되는 고통、즉 북반부의 풍족한 전력、금속 공업 제품、철재、강재、동、연 등과 화학 제품、비료、카바이트、소다、쎄멘트、무진장한 석탄、광석 등 광범한 자원들을 남반부 인민들도 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

리는 남북 조선을 격리시키는 장벽을 조속히 없애고 남북 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며 경제 문화적 활동을 자유로이 함으로써 남북 조선 인민들에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고통을 속히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전으로써 달성된 제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면 어떠한 제의든지 환영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남북 조선 국회들 간의 협상과 인민들 간의 래왕을 진행하며 경제、문화、과학 예술 등의 교류를 조직함으로써 남북 조선 인민들 간의 접근과 련계를 강화하며 호상 리해의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선 사람 자체의 일이며 또 우리 조선 사람들 끼리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외국 침략자들의 내정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력사적 사실이 뵈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의 내정 간섭은 오직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장애로 될 뿐이며 우리 인민에게 계속 고통을 줄 뿐이다。우리들 매개 조선 사람들이 체험한 바와 같이 만일 우리 조국에 대한 세계 반동 세력의 괴수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내정 간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국내 반동 세력을 타도하고 동족 간의 상쟁도 겪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 조국은 이미 통일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계속 남반부에서 매국노 리 승만 도당을 사촉하여 또 다시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려고 음흉한 기도를 하고 있는 미제 침략 군대가 하루 속히 우리 조국 강토에서 물러 갈 것을 견결히 주장한다。미제 침략 군대가 우리 조국 강토에서 철거되는 조건 하에서만 우리 인민는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기 운명에 관한 문제를 자체가 해결할 온갖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제가 아직도 남반부에 남아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그들이 정전 협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조선에서 전쟁이 재발될 위험을 조성하는 남조선에서의 미국에 의한 군비 확장을 정지할 것을 주장하며 또 리 승만 도당과 미제와의 사이에 체결된 침략적인 일체 군사 조약의 폐지를 결정적으로 요구한다。

조선 인민은 비생산적인 군비 지출과 부담을 현저히 축소함으로써 지난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평화적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안심하고 자기의 평화적인 창조적 로동을 계속할 것을 념원한다。이와 같은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一년 기한내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남조선의 군대 수효를 一〇만명까지로 각각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남북의 군대 축소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식의 회담과 접촉도 우리는 절대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남북 조선 간에 호상 접근과 협상을 요

구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념원을 고려하여 조선통일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정부의 대표자 회의를 가급적 속한 기일 내에 소집할 것을 주장한다。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망을 실현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세아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문제를 정당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 국가들이 조선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회의를 가급적 속히 소집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 문제 해결의 정당한 길이며 조선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며 아세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화하는 길이다。 우리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관계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회의 특히 아세아 국가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극동 회의의 소집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대하며 환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언제나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물리치며 그의 사촉 하에 있는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혁명 력량을 집결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 ❄ ❄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선량한 인민들은 조선 정전이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하며 하루 속히 조선의 평화적 통일·독립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성숙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의 목소리는 날과 더불어 우렁차게 울려오고 있다。 최근 수개월 내의 몇가지 실례만 들더라도 지난 四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一四억 인민들을 대표하는 一六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아세아 제국 회의는 그의 결의문에서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조선 정전 협정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면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관계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회의를 시급히 소집할 것과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전체 조선 인민과 남북 량 국회에 호소하였다。

또한 지난 六월 二二일 유·엔 헌장 조인 一〇주년 경축 회의에서의 자기 성명에서 쏘련 외상 브·므·몰로또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전쟁이 종결된지 二년이 된다。 조선 정전은 조선 문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오늘에 와서는 조선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조선의 민족적 통일을 회복시키는 사업에서 남북 조선 인민들에게 방조를 주어야 한다』。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전 세계 인민

들의 목소리는 지난 六월 하순 분란 수도 헬싱키에서 소집되였던 평화 애호 력량 대표자 대세계 회의에서 더욱 힘차게 울려 왔다。

전 지구 상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을 대표하는 六八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동 회의는 그의 권고문에서 조선과 인도지나에서 군사 행동이 종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 정세는 계속 소란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조선 정전 조항들은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조선을 독립국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국제 회의가 최단 시일 내에 소집되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론은 조선 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계 인민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없이는 극동과 전 세계에서 긴장 상태를 더욱 완화시킬 수 없으며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최근 년간에 평화 애호 인민들의 노력과 특히는 평화의 성새인 위대한 쏘련의 이니샤티브에 의하여 국제 긴장 상태는 현저히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와 전쟁을 최대의 수입 항목으로 간주하면서 이미 파산된지 오래인 악명 높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에 결사적으로 매여 달리고 있는 월가 전쟁 상인들에게 심대한 혼란과 불안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성된 평화의 전망을 압살하기 위하여 동서 반구에서 서부 독일 복수주의 군대와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며 침략적 군사 뿔럭을 조작하기 위하여 광분하는 한편 중국의 불가분의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지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공공연히 날뛰고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 남반부에서 미국 침략자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일련의 음모적 활동은 바로 그들이 조선 문제를 자기들의 이러한 침략 정책——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새 전쟁의 불씨를 뿌리려는 전쟁 준비 정책의 주요한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며 극동과 세계에서의 평화의 유지 공고화를 념원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단결된 투쟁의 주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평화적 협상의 리념은 날과 더불어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쏘련의 이니샤티브와 평화 애호 인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달성된 대오 국가 조약의 체결、 쏘련—유고슬라비야 회담과 그의 거대한 성과 그리고 서부 독일과의 외교 및 통상 관계를 수립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각서와 특히는 지난 七월에

제네바에서 전반적 평화의 공고화와 국제적 신임을 두텁게 할 것을 목적으로 소집되였던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 등 일련의 사실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국제적 난문제도 평화적 회담의 방법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세계 여론은 더욱 강력히 조선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 협상과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 못할 리는 없다고 웨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성숙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전 세계의 공정한 여론의 강력한 힘에 더욱 고무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 ❊ ❊

조선 문제는 응당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오직 우리의 투쟁 여하와 단결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의 투쟁 력량이 강화되고 우리의 민주 력량이 튼튼해지는 한에 있어서만, 우리의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이 가일층 긴밀히 단결되는 한에 있어서만 조국의 통일 독립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비롯한 일체 국내 반혁명 력량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켜 그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단결은 힘이다. 우리 전체 조선 인민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산하에 튼튼히 단결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의심할바 없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족 간에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으며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념원하는 남북 조선의 전체 정당, 사회 단체들과 애국적 인사들은 그들의 과거 활동 여하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진정으로 념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포옹할 것이며 그들과 협상할 것이다. 비록 과거에 국가와 인민들 앞에 적지 않은 죄를 범하였던 자라도 만일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환영할 것이며 그와 협상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조국에 조성된 사태의 전진에 비추어 자기들의 투지를 더욱 강화하며 원쑤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여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북반부에 이미 창설 공고화된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력사적 사실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민주 기지의 공고화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완성하는 강력한 담보로 된다. 현 시기에 있어서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제 과업을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한다. 이 과업의 철저한 수행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 축성된 우리의 인민 민주 제도를 가일층 강화하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제와 리 승만 테로 통치 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에게 우리 조국의 광명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줄 것이며 그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투쟁을 가강히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우리의 국가 주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 주권의 강화는 광범한 인민들을 우리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위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파견하는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에 대한 성과적 진압은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역할과 문화 교양자적 역할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모든 령역에 있어서 국가 관리의 성과적 실행과 일체 국가 생활의 민주화를 가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한다.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에 대한 제재의 강화와 인민 대중에 대한 민주의 철저화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급속히 달성하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민 무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 무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국내외의 우리의 원쑤들을 종국적으로 쳐 이길 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의 인민 군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우리들은 인민의 피땀으로 쟁취한 귀중한 성과들과 우리의 민주 기지를 적들의 침해로부터 철옹성같이 보위할 수 있으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민 군대를 강철같은 간부 군대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인민 군대에 대한 전 인민적 원호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손을 맞잡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전쟁 도발의 음모를 폭로, 반대하며 침략 세력의 새 전쟁 준비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는 인민의 조직적인 평화 운동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과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평화를 수호하는 고귀한 사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투쟁의 앞 길에는

적지 않은 난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굳은 결의가 있고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사심없는 거대한 원조가 있으며 자기 존재의 첫날부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선두에서 시종 일관하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당이 서 있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이며 사활적 관심사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온갖 방책과 수단을 다하고 있으며 이 투쟁에 전체 조선 인민을 조직 동원하고 있다。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립각하고 있는 우리 당이 령도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조선 혁명

박 형 식

위대한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근 四〇년에 걸친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그때로부터 一〇년이 지나갔다。

이 一〇년간 조선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와 쏘련、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의 국제주의적 원조 하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나라 북반부에 강력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창설、공고화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三년간에 걸친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위대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오늘 조선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 민주 기지 강화의 기본 고리로 되는 인민 경제 복구 발전、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위업에 총궐기하고 있으며 빛나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우리 인민이 달성한 찬란한 성과들은 그 어느 하나를 막론하고 쏘련의 사심없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제국주의 진영의 약화、쇠퇴와 함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근로자들의 국제적 통일 단결의 위대한 사상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들 속에서 날마다 그 승리를 확대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교양받고 있는 조선 인민은 지나간 一〇년 간의 평화적 건설、조국 해방 전쟁、전후 복구 건설의 제 시기의 체험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튼튼히 립각함으로써만 조국의 무궁한 륭성 발전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지난 시기에 우리 인민이 쟁취한 모든 성과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의 승리이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쏘련 인민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과 그리고 모든 나라 근로

자둔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하에、민주주의、사회주의 진영 제 인민 간의 긴밀한 련계 하에 우리는 오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민주주의、사회주의 진영 제 인민 간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및 호상 협조의 계속 강화는 우리 혁명의 완수、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무궁한 륭성 발전의 기본적 담보의 하나로 된다。

* * *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은 맑스주의의 한부분으로서 발생하였다。『만국의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구호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의 단적인 표현으로 된다。

매개 민족의 로동 계급은 자본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투쟁을 타민족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과 련관없이 수행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의 적이 비단 자국의 부르죠아지 뿐만 아니기 때문이다。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기타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기본적으로 공통한 리해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국내 국외의 부르죠아지를 공동의 원쑤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브·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로동의 리익은 각 민족、각국 근로자들 간의 가장 긴밀한 동맹과 가장 완전한 신임을 요구한다。 지주、자본가、부르죠아지의 지지자들은 자본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로동자들을 약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분렬시키며 민족적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고 있다。 자본은 국제적 힘이다。 그것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의 국제적 동맹、그의 국제적 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족적 적대、민족적 불화、민족적 고립의 반대자이다。 우리는 국제주의자들、인터내쇼날리스트들이다』(전집 제三〇권 二六八폐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한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은 국제적 규모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의 리해에 종속되여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의 기반을 폐절하는 리해에 종속되여야 한다고 맑스—레닌주의는 가르친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의 사상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반동을 반대하는、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의 근본적 무기의 하나로 되여 있다。

한 민족이 타민족을 증오하는 사상인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 내에서의 『통일』과 『계급적 평화』를 설교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착취 계급 간의 계급적 리해의 대립성을 부인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로동자들

을 계급 투쟁으로부터 리탈시키려고 한다。

부르죠아들은 타민족에 대한 불신임과 민족적 반목을 조장하는 방법으로써 각 민족의 로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일방、다른 나라 민족 자본가들과 협력하여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자기의 탐욕적인 계급적 리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민족적 리익을 배반하는 범죄적 행동을 자행한다。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바 브·이·레닌은『부르죠아 민족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이 두 개의 비타협적 적대적 구호는 전 자본주의 세계의 두개의 큰 계급 진영에 해당한 것이며 민족 문제에 있어서 두 개의 정책(또 두개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다』(전집 제二〇권 一〇폐지)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각 민족의 근로자들의 통일의 불가결성을 고수하고 온갖 착취로부터의 해방과 그들 간의 호상 신임을 위한 일치한 투쟁에로 인도하는 반면에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민족적 억압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민족적 불화를 선전하며 근로자들의 력량을 좌절시켜 자본주의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의 체계를 영구히 설정하려고 한다。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끄쓰모뽈리찌즘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 바 그것은 오늘 근로자들의 의식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없애려고 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낡아빠진』 개념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의 세계 제패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끄쓰모뽈리찌즘을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리용한다。

프로레타리아적、사회주의적 정책의 철저한 수행을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 인민들에 있어서의 민족적 특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국제적 및 대내적 정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민족적 특성에 대한 옳바른 리해 및 그런 특성에 적응하는 맑스—레닌주의적 민족 정책의 창조적 적용은 맑스—레닌주의 당들에게 인종적 및 민족적 소속과는 관계없이 인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전 세계에서 공고하고 장구한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모든 나라 근로자들을 통일시킬 수 있게 한다。

프로레타리아트와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혁명적 기치로서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제二인터내쇼날의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로동 계급의 분렬 정책、『조국 옹호』란 제국주의 전쟁 지지의 정책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였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 전쟁을 극력 도울 것을 호소한 사회 배외주의자들은 『조국 옹호』、『계급적 평화』의 구호로써 로동 계급을 매도하고 분렬시키고 와해시키려고 시도하였었다。

레닌은 일견 애국주의적인、위선적인 언사로써 타국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기회주의자들과 사회 배외주의자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였다.

제一차 제국주의 전쟁 당시 기회주의 및 배외주의와의 무자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굳게 고수하였고 제二 인터내쇼날의 전쟁 설교자들을 제국주의의 주구로서 규정한 쏘련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및 실천적 활동의 덕택으로 로씨야 및 독일 기타 로동 계급들은 여전히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에 충실한채로 남아 있었으며 또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의 기치를 높일 수 있었다. 레닌、쓰딸린과 쏘련 공산당의 열렬한 국제주의적 호소는 전호와 철조망을 넘어 전 세계 방방곡곡에로 울려 나갔다. 사회 배외주의를 비렬한 기회주의의 최고 형태로서 폭로하면서 레닌은 철두 철미한 국제주의적 정신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를 무장시키고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통일된 혁명적 투쟁에로 전 세계 근로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레닌적 강령으로써 무장된 국제 로동 운동의 전위대인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는 레닌、쓰딸린이 령도한 쏘련 공산당의 지도 하에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로써 전 세계 로동 계급의 투쟁사에 가장 빛나는 한 페지를 기입하였다.

제 인민의 거대한 감옥인 제국주의의 성벽에 첫돌파구를 뚫어 놓은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또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근로자들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여 놓았다.

쏘베트 국가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면서 자기의 탄생 첫날부터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 인민의 권리에 근거한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쏘련은 시종 일관하게 이 투쟁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견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쏘베트 국가는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인민의 나라인만큼 인민들 간의 화목、민족들 간의 친선과 평등、민족 자결권、식민지 예속국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원조를 위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정책을 시종 일관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쏘베트 국가는 다만 자기 령토 내에 거주하는 인민들의 조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근로자들、피압박、피착취 인민들의 조국으로도 되는 것이다.

쏘베트 국가는 또한 전 세계의 근로자들이 그에게 걸고 있는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았다.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쏘련 근로자들과 다른 나라 근로자들의 형제적 련계를 쏘베트 동맹의 위력의 원천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전 세계 근로자들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

하여 자기 나라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하였으며 그로써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투쟁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이 고귀한 원조를 주었다. 쏘련은 세계 혁명 운동의 강력하고 튼튼한 중심 기지로 되였는바 그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와 예속국 인민들과의 혁명적 통일 전선의 강화 발전을 촉진시켰다. 세계 로동 계급의 혁명적 중심 기지로서의 쏘련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공고화、사회주의적 공업화 및 농업 집단화의 성과적 수행으로써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발전되였다.

쏘련이 발생 발전 륭성하여 온 이 력사적 시기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의 발전과 확대의 시기、종주국 및 식민지 예속국들에서의 국제주의의 앙양의 시기였다.

현대의 력사적 조건은 쏘련을 지지하지 않고 쏘련에 의거하지 않고 그와 함께 그의 지도 하에서 국제 반동의 제반 력량을 반대하여 싸우지 않고서는 자기 조국의 민족적 리해를 옹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맑스주의는 민족적 압박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자기의 수중에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부터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로 이행하여야만 된다고 극력 강조한다.

맑스—레닌주의의 당은 민족 문제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리해의 견지에서와 국제주의의 정신으로써 설정하고 해결한다. 민족 국가 인민들의 평등권을 주장하는 프로레타리아트는 모든 민족의 프로레타리아들의 동맹을 무엇보다 먼저 설정한다. 그것은 민족—식민지 문제가 제국주의의 폐절 및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세계의 수백만 대중을 빈궁、기아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는 제국주의의 시기에 있어서 민족적 억압은 자기들의 독립、인간다운 생활 및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궐기하는 식민지 예속국 피착취 인민들의 반항을 더욱 더 넓은 규모에로 전개시킨다.

식민지 예속국 피압박 인민들 속에서 로동 계급은 자기의 믿음직한 동맹자를 획득한다.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자본주의 제국의 로동 계급과 식민지 예속국의 피압박 인민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통일 전선을 전개한다.

식민지 예속국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야는 그 운동이 국제주의의 원칙 하에서 전개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는 것이며 제국주의 및 봉건 잔재와의 비타협적 투쟁을 성과있고 확신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책은 자본주의 제국의 로동 계급과 식민지 예속국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유일한 혁명적 전선을 창건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작용은 피압박 계급과 인민들 특히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격분을 장성시킨다。 자기 나라 주민들의 다수에 대한 착취、빈궁화의 방법으로、타국 인민들 특히 락후한 나라 인민들에 대한 노예화 및 체계적 략탈의 방법으로、끝으로 전쟁과 국가 경제의 군사화의 방법으로 최고 리윤을 획득하려는 독점 자본의 정책에 대한 피압박 대중들의 반항이 극도로 장성하고 있다。 이 반항은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령도 하에서 더욱 더 조직된 형태를 갖추며 전 인민적인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을 촉진시키는 바 여기에서 령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로동 계급이다。 이러한 반항의 장성은 제국주의 련쇄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그것을 폭파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 조건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상과 정책은 점점 더 광대한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다。

특히 제二차 세계 대전、반팟쇼 해방 전쟁에서의 쏘련 인민의 결정적 역할과 그의 세계사적 승리는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에로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으며 구라파의 운명에 막대한 의의를 가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창건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를 구라파 력사상의 일대 전환점으로 되게 하였다。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한 일제의 격멸、六억만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의 인민 혁명의 승리──력사적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과 사회주의 건설에로의 이행은 동방 제 인민의 자주 독립과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하였다。

우리 조국도 위대한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의 근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력사 발전에 새 기원이 열려졌다。

위대한 一○월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여난 쏘베트 무력은 동서양、그 발길 미치는 곳마다에서 자기의 력사적인 국제주의적 사명을 유감없이 수행하였으며 또 수행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짓밟혀 무권리하던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주권을 틀어 잡게 하였으며 자기 나라의 운명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토지와 공장들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으며 인민 경제와 민족 문화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쏘련과 그리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은 강유력한 사회주의、민주주의 진영을 이루었는 바 이 진영 인민은 호상간의 형제적 신뢰와 존경、친선과 협조의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 하에서 자기 나라

공산당、로동당들의 지도에 의하여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 반면에 미 영 제국주의를 수위로 하는 반민주、제국주의 진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바 제국주의 렬강 호상간의 모순은 날로 더욱 첨예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나라들 내부에서의 『로자 간의 평화』、『동등한 가능성』 등등의 환상은 도처에서 파탄 당하고 있으며 이리하여 제국주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정세는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두 진영 간의 사상적 투쟁의 첨예화를 초래하고 있는바 미제국주의를 선두로 한 국제 반동은 자기의 사상적 무기인 꼬쓰모뽈리찌즘을 고창 설교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반인민적 본성과 침략 계획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세계 공민』、『세계 국가』、『세계 정부』 등의 간판 밑에 지구 상에서의 소위 유일 국가 창설에 대한 망설을 떠버리면서 자기들이 가장 『국제주의적』 립장에 선듯이 위장하고 있다。

이 꼬쓰모뽈리찌즘의 리면에는 바로 미제의 세계 제패의 야망이 숨어 있는 것이며 히틀러식 『신 질서』 수립의 망상이 숨어 있는 것이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꼬쓰모뽈리찌즘은 오늘 이미 세계의 어떤 자유 애호 인민들도 기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 호상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전진 운동의 기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오늘 자본주의적 노예 제도를 분쇄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장엄한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의미하며 대소 제 인민의 독립과 자유와 평등을 전취 고수하며 그들 간의 형제적 협조와 친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해방의 군대인 위대한 쏘베트 동맹의 영웅적 군대는 가혹한 류혈적 전투를 거쳐 지금으로부터 바로 一○년 전 八월 一五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야수적 군대를 조선으로부터 구축하여 조선 인민에게 해방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위대한 레닌은 세계 혁명의 근거지로 된 쏘베트 국가에서 먼저 주권을 장악한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임무를 규정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그리고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구성 부분으로서의 식민지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과의 국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전취한 주권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자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쏘베트 동맹이 담당한 이러한 국제주의적 역할로 인하여 조선 인민은 근 四○년 간에 걸친 일제의 암담한 통치 하에서 벗어나 우리 나라 북반부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였다。

일제에 의하여 억압 착취 당하고 있던 조선 인민은 민족 해방의 길을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그 세력을 국내에 부식하는 지주、예속 자본가、친일파、민족 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두었다。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령도된 항일 무장 유격대는 조선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달성코저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반봉건적 민족 해방 투쟁의 봉화를 높이 올리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력량은 당시에 아직 일제를 능히 타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장성 성숙되지 못하였었다。

착취로부터 해방된 로동자、농민의 군대인 쏘베트 군대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수로서 조선 인민을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국제주의의 사도(使徒) 쏘베트 무력의 력사적 사명은 단순히 침략자들에게 궤멸적 타격을 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방시킨 민족들이 영원히 온갖 착취에서 벗어나 자체의 힘으로 로동 계급을 위시한 근로자들의 리익을 수호할 유력하고 부강한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

강도 일제를 패망시킨 쏘베트 동맹의 무력은 이러한 력사적 사명으로 인하여 종래의 일체 전승 국가 군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국제주의의 기치 하에 행동하는 로동자、농민의 나라 군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진주、일제 팟쇼 군대의 패망과 함께 지주、예속 자본가、민족 반역자들의 지배적 지위도 땅에 떨어졌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세기적 원쑤였으며 우리 혁명의 적인 일제와 그 주구들이 청산될 수 있었다。

쏘베트 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과 해방의 첫날부터 쏘베트 동맹이 준 사심없는 형제적 원조는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 력량을 급격히 장성 강화시켰다。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의 공고한 로 농 동맹의 형성 및 그 주위에의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집결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해서 지도되는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의 덕택이였다。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정치적 무대에의 적극적 진출은 반동 세력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지위에서 밀려나간 반동 세력은 마비되였다。

쏘베트 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 하에서 조성된 이상과 같은 력량 관계는 우리 나라를 인민 민주주의의 길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북반부에서는 혁명에서의 가장 주요한 정권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며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의 요구인 제반 사회—경제적 개혁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였다。

우리 혁명 앞에 전개된 이러한 광활한 전망은 모든 인민들의 권리와 자주성을 존중하며 모든 인민들과의

협조를 위한 쏘련의 평화적 대외 정책의 덕택이였다。 이 정책은 각국 근로자들의 근본적 리해와 희망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쏘련의 대외 정책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해방 시초부터 전체 조선 인민의 열렬한 찬동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남조선에의 침략적 진주는 조선 혁명 앞에 일대 난관을 조성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반부를 자기들의 최고 리윤을 위한 략탈의 대상으로、또 장차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여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군사 전략적 기지로 전변시킬 목적으로 자기 군대를 주둔시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 주둔의 첫날부터 남반부를 식민지화하며 반동 괴수들을 규합하여 중세기적인 테로적 팟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지주、예속 자본가、민족 반역자、친일 친미파들을 자기들의 주위에 집결시켜 애국적 민주 력량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우리력사 발전의 제 요구인 반제、반봉건적 혁명 과업의 수행은 남반부에서 저지 당하게 되였다。

조선 혁명의 도상에 제기된 이러한 난관은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 제 인민 간의 친선을 파괴하며 그 나라들을 야수적으로 략탈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대외 정책의 결과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의식과 자주권을 말살하며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려는 미제의 침략 정책은 그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강력한 반항을 받았다。

국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즉시로 북반부에서 쏘련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여 그를 우리 혁명 수행의 근거지로 전변해야 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인민에게는 혁명적 정권이 필요하였다。 해방과 함께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급속히 조직 정비된 우리 당은 로 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민족 통일 전선에 립각한 혁명적인 정권을 북반부에서 창건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 혁명의 거대한 첫 성과의 하나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적인 인민 정권인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창건이다。 이 정권 창건이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인민 민주 독재의 정권 형태로서 온갖 억압자로부터 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정권 기관이며 또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한 국제적 프로레타리아 혁명 투쟁의 일익을 담당하는 혁명적인 정권이라는 데 있다。 이 정권 기관은 자기의 예봉을 반제、반봉건적 투쟁을 전개하는 데 돌렸다。 이 정권은 혁명적인 로동 계급과 농민에 그 계급적 기초를 두는만큼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멍에를 벗어던지기 위한 투쟁、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의 유력한 무기로 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우리의 혁명적 정권이 수행한

제반 민주 개혁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운동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북반부에서의 제반 민주 개혁의 결과 국제적 반동 력량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완전히 그 지반을 상실하였다。 전 조선을 쏘련과 중국을 침범하기 위한 군사 전략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미제의 야망은 북반부에서의 민주 개혁들의 결과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즉 미제는 장차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정권을 반대하여 진출할 수 있는 그들의 계급적 지반을 북반부에서 상실당한 것이다。

북반부에 있어서 반제、반봉건적 과업들의 성과적 수행은 북반부를 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로부터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로 전변시켰는바 이는 조국 통일 독립 완수의 공고한 물질적 기초로 될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하는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방책이였다。

제반 민주 개혁의 결과 창설된 인민 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성분의 지배적 지위 및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의 로 농 동맹의 공고화에 의거하면서 우리 당은 남반부 인민을 미제와 리 승만 괴뢰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의 민주 기지의 정치、경제、군사적 력량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위한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였다。 우리 당은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거하면서 북반부에서 진행된 혁명을 더 한층 전진시켜야 하며 또한 민주 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서만 민주 기지를 철벽의 요새로 강화할 수 있으며 이것만이 장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준비하는 투쟁에로 우리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위대한 전취인 인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하여 크나큰 긍지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민의 진정한 조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전체 평화 진영을 위하여、전 세계 근로자들의 해방 투쟁을 위하여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건설 사업에 있어서 자기들의 모든 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조선 인민의 이와 같은 애국적 창조적 투쟁은 오직 쏘련의 사심없는 원조에 의하여서만 빛나는 성과를 걷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업에 충실한 쏘련 인민은 해방 후에도 우리들에게 막대한 원조를 주었다。 만일 이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 민주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 경제 개혁들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김 일성 선집』제四권 一九三페지)。

력사적 경험은 우리 나라의 자주성과 독립을 위하여 쏘련의 국제적 원조가 얼마나 귀중하였으며 또한 우리

당의 정책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뚜렷이 뵈여 준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에서의 사태는 북반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로 전개되였다。 우리 혁명의 원쑤들인 지주、예속 자본가、친일 친미파、민족 반역자들의 집단은 미제 침략 세력과 야합하여 소위 발광적인『북벌』준비에 날뛰였다。 미제의 군사적 략탈의 강화와 반동 계급들의 그와 같은 광분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아주 곤난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북반부에서의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투쟁은 암담한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횃불과 희망으로 되여 남반부 인민들을 혁명화하며 나아가서 그들을 공화국 정부 주위에 결속시키며 침략자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구축하고 그 주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추동하였다。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침략자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은 드디여 동족 상쟁의 내란을 야기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제는 국내에서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구로서、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도화선으로서 조선을 리용하기 위하여 리 승만 괴뢰를 사촉하여 북반부 민주 기지에 대한 대규모적인 군사 행동을 도발시키고 직접 이에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북반부에서의 평화적、창조적 건설의 시기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였다。 조선 인민 앞에는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전 민족적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과업은 오직 조선 로동당의 탁월한 조직적 및 령도적 역할 하에서만、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공화국의 지주(支柱)이며 생활적 기초인 로 농 동맹과 전체 인민의 공고한 정치—정신적 통일 단결에 의해서만、인민군 용사들의 영용 무쌍한 애국주의적 헌신성에 의하여서만、쏘련、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 인민들의 고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지지 원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었다。

조선에서의 민족 해방의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가일층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며 제국주의 진영의 쇠퇴 몰락을 촉진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하는 것으로 된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세계 반동 력량의 괴수인 미제의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무력적 침범、제三차 대전 도발의 흉악한 기도에 철추의 타격을 가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민주 진영의 안전에 대한 훌륭한 기여로 되였다。

바로 여기에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웅적 투쟁으로써 조선 인민은 형제적 인민들의 더욱 더 감격적

인 지지 성원과 사랑과 존경을 받은 동시에 또한 그들에게 보답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가장 뚜렷한 표현의 하나는、 중국 인민의 아들 딸들로써 조직된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의 조선 전선 참전이다。 중국 인민 지원군의 참전과 우방 각국의 물심 량면으로 되는 막대한 원조는 국제주의의 기치 하에 통일된 민주 진영 제 인민의 공통한 념원 즉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의 침략 및 새 전쟁 도발의 야망을 저지시키려는 일치한 념원의 표현이다。 민주 진영 제 인민 간의 이 국제주의적 원조의 기초에는 민족적 평등권과 호상 존중、 호상 원조의 고상한 원칙이 놓여 있다。

우리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의 국제적 의의는 또한 그것이 『인민들이 평화와 민주 진영의 원조에 의거하여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한다면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된 인민들을 인제는 예속시킬 수 없다』 (『김 일성 선집』 제四권 二一〇—二一一페지)는 것을 세계에 명백히 뵈여준 데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아직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오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말끝마다 『북진』을 떠버리면서 모험적 불장난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정전은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주었다。 우리 인민 앞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반제、 반봉건적 과업을 완수하여야 할 전 인민적인 긴장된 력사적 과업이 의연히 남아 있다。

우리 혁명의 전도는 복잡하며 간고하며 장기성을 띤 곤난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혁명 완수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위업은 무엇보다도 우선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규정하는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의거하고 있다。 모든 적대적 사회 경제 구성태가 그러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도 또한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체 내부의 제 모순에 의하여 필연코 멸망하며 사회주의에 그 자리를 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의 제국주의적 팟쇼 통치 붕괴와 우리 인민의 승리、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는 필연적이다。

이 위업은 무엇보다도 세계 제국주의 진영의 원흉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민주 진영 제 인민 간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계속 더욱 공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에 있어서 자유 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무기』 (『김 일성 선집』 제四권 一一八九페지)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 완성을 위한 우리 혁명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근로자들의 투쟁의 일부분이며 또한 그 중요한 일익으로 된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의 인민 경제 복구、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오늘 우리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은 우리 인민의 비상한 창조적 로력과 쏘련 인민의 一〇억 루블리의 원조와 중국인민의 八만억원의 원조를 비롯한 형제적 인민들의 막대한 물질적、 기술적 원조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는 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조의 새로운 형태로 된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은 보다 강력한 민주 기지의 물질적 기초의 축성 및 공고화를 위한 대책인바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및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민주 기지의 물질적 기초의 강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전체 인민들의 더욱 공고한 정치—정신적 통일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들을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은 전국적으로 반제、반봉건적 혁명 임무를 완수하기위한 유일하고도 강력한 조치인 것이며 그 성과적 수행만이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민주 기지의 보위를 달성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대한 세기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국제주의적 기치에로의 제 인민의 결속과 통일만이 제국주의의 전쟁 방화자들을 저지시키며 그들의 멸망의 행정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진영의 불가극복적 위력을 공고케 한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제기한 경제 건설의 제 과업 즉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위한 창조적 투쟁은 우리의 민주 기지 강화、통일 독립 촉진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전 세계 형제적 인민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국제주의적 의무의 수행이다。

우리 혁명은 그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의 하나인 쏘련을 위시한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진영으로부터의 거대한 사심없는 국제적 원조에 립각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조선 인민은 오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립장에 튼튼히 립각함으로써만이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력사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제四권 一九二페지)。

조선 로동 계급은 계급으로서의 형성 초기로부터 인민들의 압박자인 일제와 그 주구들、 오늘 날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그들의 온갖 압박과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며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며 남반부 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로부터 해방시

키기 위한 투쟁인만큼 이 투쟁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의 불가분적 부분으로 된다。 세계 근로 인민의 국제적 과업과 민족적 과업 간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하여 이・브・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쏘련 프로레타리아트의 리해 관계 및 의무는 각국에 있어서의 혁명 운동의 리해 관계 및 임무와 교차되고 있으며 불가분하게 련결되고 있으며 또 반대로 각국의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 전선에 있는 쏘련 프로레타리아트의 임무 및 성과와 불가분하게 련결되고 있다」(『이・쓰딸린 저작집』 모쓰크바 조선문판 제九권 三九—四〇폐지)。

八・一五 해방 후 우리 나라에도 애국주의의 새로운 형태 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밀접히 결부된 애국주의가 발생 발전하였다。

그것에는 사회주의에로 전진하는 자기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성과 타국 인민들에 대한 형제적 사랑、자유와 평화를 위한 『돌격대』의 하나로서의 국제주의적 책임감이 결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애국주의는 제국주의 무력 간섭을 반대하여 쏘베트 동맹을 지지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쓰딸린이 교시한바 매개 나라의 로동 계급의 국제적 및 민족적 과업의 통일에 대한 리론에 의하여 기초지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전세계 로동 계급의 국제적 과업은 우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새 전쟁 방화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반대하며 쏘련의 주위에의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하며 쏘련에 대한 전면적 지지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반제국주의 진영을 령도하고 있는 쏘련이 세계 혁명의 중심이며 토대이며 전 세계 평화의 위력있는 성새이기 때문이다。 자기 조국의 민족적 리익을 침해하는 부르죠아지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과업으로 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진실로 민족적이며 진실로 애국주의적인 과업이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국제적 및 민족적 과업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돌격대의 하나로서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의 력량과 성과는 무엇보다도 쏘베트 동맹의 위력과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쏘베트 동맹의 정책을 충실히 지지하는 동시에 제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성새인 쏘베트 동맹을 위혁하는 일체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나라 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동시에 애국주의적 의무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보류 조건없이 동요없이 무조건적으로 쏘련을 수호할 각오를 가진 자는 국제주의자이다。 왜냐 하면 쏘련은 세계 혁명 운동의 기지이며 그리고, 쏘련을 수호하지 않고서는 이 혁명 운동을 수호하며 전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쏘련이 없이 또 쏘련을 반대하여 세계 혁명 운동을 수호할 것을 생각하는 자는 혁명을 반대하여 나아가는 자이며 기필코 혁명의 적의 진영으로 전락되는 자이기 때문이다」(『이・쓰딸린 저작집』 모쓰크바 조선문판 제一〇권 六九—七〇폐지)。

조선 로동당의 지도와 쏘베트 동맹의 원조 하에 우리는 조선 혁명의 강력한 원천지 민주 기지를 창설 공고화하였고 그 위력의 기초로 되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였고 미제를 위시한 야수적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였고 반제、반봉건적인 전 인민적 민주 혁명의 수행을 달성하는 강유력한 요새로 되는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을 북반부에서 전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을 자기들의 진정한 민족적 리익의 기수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 당의 국제주의적 정책을 자기들 자신의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직 쏘베트 동맹의 사심없는 원조의 덕택으로 또한 그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적용한 덕택으로 우리 나라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물질적 기초의 축성을 위한 전 인민적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도 쏘베트 동맹은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쏘베트 군대에 의한 우리 나라 해방 一〇주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 깊고 의의 깊게 맞이한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보다 높은 승리적 실천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적、문화적 복리의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북반부의 민주 기지 강화의 길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촉진시키는 길이다。 이것은 또한 쏘련 인민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들의 정성어린 원조에 대한 보답의 길이며 우리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는 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프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로 교양받음이 없이는 언제든지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투사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매개 인민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더욱 무장할 것을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사상 사업의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였으며 그 힘은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 확고 부동한 물질적 힘으로 되였다。

이 힘은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며 그의 기치 하에 국토를 완정시킬 임무를 가진 전 인민적 민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확고한 담보이다. 이 힘은 민족적 과업 수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적 과업 수행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힘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국제주의적 교양 사업이 차지하는 의의는 거대하다.

우리 혁명 수행에서의 로농 동맹과 통일 전선

장 위 삼

오늘 조선 인민은 거대한 민족적 긍지와 기쁨 속에서 자기의 최대의 민족적 명절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기념한다.

지난 一〇년 동안에 우리 인민은 실로 거대한 창조적 사업을 수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제반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자기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과 민주화를 위한 혁명적 민주 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이 투쟁을 지도함에 있어서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 전선에 기초하여 인민과의 밀접한 련계를 강화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수십년 수백년 동안에도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통일 전선 산하에 굳게 결속된 조선 인민은 비상한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 투쟁을 통하여 평화적 건설 사업을 승리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애국적 헌신성과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우리 조국 북반부에 설정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 자기들이 쟁취한 민주 개혁의 제 성과와 민주 기지를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그러나 해방 一〇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우리 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남조선에 남아 있는 미제 침략 세력과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와 같은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우리 앞에는 미제 침략 세력과 그의 동맹자로 되고 있는 반동적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

족 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 인민을 제국주의적、봉건적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달성하며 우리 조국의 무궁한 륭성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토대를 축성 공고화할 혁명적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이 혁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 전선을 일층 강화하여 남 북반부의 일체 애국적、민주주의적 력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집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전 인민적 혁명 투쟁에로 궐기시키는 한편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공화국 북반부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완성하는 결정적 력량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현 계단에 있어서 로농 동맹과 통일 전선의 가일층의 강화——이것은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완성하며 그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혁명적 민주 기지——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강고한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의 강화는 우리 승리의 담보이다」(김 일성)。

❋ ❋ ❋

로농 동맹에 관한 문제는 사회의 혁명적 개조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와 자본과 봉건을 반대하는 혁명에 있어서의 기본 동력에 관한 문제이며 혁명의 령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전략에 관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력사에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쏘련에서의 경험을 지침으로 삼으면서 로동 계급의 동맹군에 관한 문제를 자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의 강화——이것은 우리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강화하여 미제의 침략 세력과 리 승만 역도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혁명을 더욱 앞으로 전진시켜 전국적인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로동 계급은 자본과 봉건을 반대하는 혁명에 있어서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혁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피압박 대중、모든 근로자층、혁명을 지지할 수 있는 일체 애국적、민주주의적 력량과도 동맹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인민 전선 또는 민족 통일 전선 형태로 실현된다。

통일 전선은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도 로농 동맹보다 더 광범한 동맹 즉 근로 인민 및 그와 합작할 수 있는 애국적、민주주의적 언민의 각계 각층과의 동맹이다。

혁명 수행에서 로농 동맹과 통일 전선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로동 계급이 만약 사회의 광범한 진보적 계층들과의 동맹을 망각한다면 로동 계급은 자기의 동맹자로 될 수 있는 이 세력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혁명 수행에 적지 않은 손실과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정부는 그 활동을 개시한 첫날부터 로동 계급과 농민의 확고한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 실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우리 당의 통일 전선에 대한 정책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통일 전선에 대한 우리 당 활동의 기본 강령을 제시하면서 우리 나라에 강력한 통일 전선이 없이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통일 전선 정책은 로농 동맹의 기초 우에 각당 각파、각계 각층 인민들과의 단결 및 호상 협조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전체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을 강화하는 추동력의 하나로 되였다。 이 통일 단결의 핵심은 로동 계급이다。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기초한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과 통일 전선은 일제 통치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 행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일제 통치 하의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 나라 혁명의 과업은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을 반대하는 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주로 된 계급 또는 세력은 예속 자본가、반동적 지주、친일파、민족 반역자들이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국내 국외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 독립과 생활 처지의 근본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로동 계급과 광범한 농민과의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며 나아가서는 혁명의 원쑤들、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나설 수 있는 일체의 애국적、민주주의적 력량을 동원 집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일제와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조국 광복회 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로농 동맹을 현저히 장성시켰으며 그 주위에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적 력량을 집결시켜 통일 전선의 기초를 이루어 놓았던 것이다。

로농 동맹과 통일 전선은 위대한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된 유리한 환경 속에서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더욱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 발전되였으며 이 동맹과 통일 전선의 강화는 곧 혁명의 과업 수행을 위한

담보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은 八·一五 해방후 급격히 장성하는 혁명 력량을 공고한 로농 동맹에로 향도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일체 혁명 력량을 통일 전선에 집결시키기 위한 투쟁을 자기의 기본 과업의 하나로 삼았으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에 의거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 정권을 수립하는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은 물론 각계 각층 인민들의 지지와 협력에 의거하였다。 이 지지와 협력은 주권 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공동적、통일적 행동에서 표현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 하에 각계 각층 인민들의 대표로써 구성된 인민 정권은 그 자체가 로농 동맹과 통일 전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민 정권의 이와 같은 구성은 그의 정치、경제、문화 등 활동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할 수 있는 담보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인민 정권이 실시한 온갖 대책들은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복종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인민 정권은 토지 개혁과 중요 산업 국유화를 실시함으로써 로농 동맹을 과거의 정치적 동맹으로부터 경제—정치적 동맹으로 전변시켜 공고한 물질적 기초 우에 올려 세웠다。

중요 산업 국유화와 토지 개혁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착취자적 소유 관계를 기본적으로 청산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호상 협조적 련계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었다。

당과 정부는 도시와 농촌에 조성된 새로운 생산 관계들에 기초하여 로농 동맹의 경제적 기초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상품 류통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련계 강화를 위하여 도시로부터 농촌에 대한 기술、문화적 방조를 주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가져왔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정치적 및 정신적 통일을 비상히 강화시켰으며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고 농민들의 애국적 열성과 혁명에 대한 충직성을 고도로 앙양시켰다。 농민들은 도시와 공업을 위하여 더 많은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였다。 이리하여 로농 동맹의 경제적 기초는 더욱 강화되였다。

당과 정부는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중소 기업가、상인들에 대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우리 인민의 기본 대중인 로동자、농민의 리익을 침범하지 않으며 우리 혁명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들의 활동을 일정한 범위 내

에서 허용하였으며 그들의 창발성을 발휘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당과 로농 동맹 주위에 더욱 튼튼히 집결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통일 전선은 강화 발전되였다。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한 통일 전선이 가지는 거대한 생활력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증되였다。 전쟁 시기에 통일 전선은 모든 것을 전쟁 승리에 복종시키는 전체 인민의 철옹성같은 정치—정신적 통일 단결의 위력을 과시하였는바 이것은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의 기본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국 내외의 원쑤들과의 투쟁 속에서 강화 발전된 통일 전선의 거대한 력량은 전전 평화적 건설 시기와 三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위력한 담보로 되고 있다。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한 통일 전선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은 전후 시기에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빛나는 성과들을 쟁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일 전선에 굳게 결속된 우리 인민은 정전 후 불과 二년 동안에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급속히 복구하고 수 많은 공장、제조소들을 복구 신설 확장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결과에 정전후 二년 간에 공업 제품의 생산이 현저히 증가되였으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사무원들의 수는 一七만명이나 증가되였다。 이 행정에서 로동자들의 정치적 의식과 생산적 창발성이 더욱 제고되였으며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이 비상히 제고되고 있다。

농민들의 사상 의식의 제고와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는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는바 그것은 적지 않은 개인 농민들이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농민으로 전화 발전하고 있는 그 사실이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발전 공고화되고 있는 농업 협동 조합과 그에 단합된 농민의 증대는 로동 계급으로부터 농민들에게 주는 생산적 방조와 더불어 로농 동맹 강화의 중요 조건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광범히 조직되고 있는 농업 협동 조합들과 특히 산간 및 해안 지대에 광범히 조직되고 있는 반농 반목축、반농 반어업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들의 발전은 령세 농민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놓고 있는바 그것은 로농 동맹과 통일 전선을 강화함에 있어서、특히 하층 통일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전 평화적 건설 시기와 전쟁 시기、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대한 성과는 우리 당과 정부의 시종 일관한 정책에 의한 로 농 동맹의 계속 공고화, 이 동맹의 기초 우에서의 인민의 각계 각층, 각당 각파의 단결, 전체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의 강화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 * *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당면한 최대의 임무는 전체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완성하는 그것이다.

이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로 농 동맹을 계속 공고화하며 한 가정 속에서 화목하게 평화적으로 자기의 창조적 사업을 수행할 것을 열망하는 남 북반부의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더욱 광범히 집결시키는 통일 전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통일 전선의 기본 핵심으로 되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로 농 동맹을 강화함이 없이 통일 전선을 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통일 전선의 확고성과 결속력은 오직 그의 핵심인 로 농 동맹의 강화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현 계단에 있어서 통일 전선의 기초로 되는 로 농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즉 토지 복구 보호, 관개 시설의 개선 확장, 비료 및 농기계 생산의 확장, 농촌 경리의 협동화, 농기계 임경소, 소비 조합, 농민 은행의 역할의 가일층 제고 등등으로써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보장하여 주며 농민들에 대한 생활 필수품 공급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준수하여 개인적 리익을 사회적 리익에 복종시키면서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이 잘 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농민을 포함한 전체 인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개선 향상될 수 있으며 로 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과 전체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 단결이 가일층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은 로 농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만 로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목적의 공통성에만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로 농 동맹을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우리 당은 전쟁의 곤난한 시기에도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킴으로써 로 농 동맹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며 그 기초 우에서 인민의 각계 각층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였다.

전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은 변동된 정세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통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는바 그것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근로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빈농민들의 생활 처지를 개선 향상시킴으로써 근로 대중의 하층 통일을 강화하는 것을 통일 전선 강화의 중요 문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 가운데는 통일 전선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정책과 변동된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일시적인 깜빠니야 사업으로 간주하고 새 환경에 적응한 실제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도 발로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일군들 속에는 통일 전선에 대한 과소평가와 우당원들에 대한 홀시 등 옳지 못한 태도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바 그들은 우당원 및 무소속 인사들에 대하여 겸손치 못하고 자고 자대하며 그들과 단결 합작할 대신에 그들을 홀시 경원하는 행동들을 가끔 발로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이 사업하는 곳에서는 통일 전선 사업이 당이 내세운 정치적 임무의 수준에 까지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며 통일 전선의 핵심적 력량이다. 우리 당이 통일 전선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들 매개 당원들은 우당원들과 무소속 인사들을 정치적, 문화적으로 옳게 교양을 주며 모든 사업에서 솔선 모범을 뵈임으로써 그들에게 옳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우리 당의 불패의 력량은 오직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이 강력하면 할수록 또 승리하면 할수록 자기의 동맹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더욱 겸손하여야 하며 더 너그럽게 그들을 포섭하며 인내성 있게 그들을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통일 전선내의 각 정당, 사회 단체의 하층 군중은 그 절대 다수가 근로 대중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층과 항상 접근하여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옳은 교양과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같이 끝끝내 손을 잡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들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김일성).

우리는 그들의 정치 의식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양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혁명 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일부 당원들이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통일 전선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를 시급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당에 일정한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며 또 우리 당의 령도를 받으려는 각계 각층 인사들과의 단결과 합작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당원 및 무소속 인사들을 대함에 있어서

더욱 허심하여야 하며 그들을 국가 및 경제 건설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며 모든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과의 합작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에서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조장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정책을 자기의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며 그의 실현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그들의 열성을 발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통일 전선은 조국 통일에로의 지향을 통하여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결속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상 처지와 조건、 견해、 신앙이 다른 각계 각층 인민들이 통일 전선에 망라되는 것 만큼 통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 각층 인민들의 생활상 또는 사업상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을 옳게 결부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사회적、 국가적 활동을 밀접히 련결시킬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통일 전선의 의의를 과소 평가하거나 이 사업을 부차적 사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시급히 퇴치 시정하고 통일 전선에 망라된 인민들의 생활을 깊이 료해하여 그들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실정에 따라 사업상 지도와 방조를 주며 국가적 배려와 혜택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 향상시켜야 한다。

현 시기에 있어서 로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당원들과 무소속 인사들을 포함한 비당원 군중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에 광범히 인입함으로써 그들의 애국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양하도록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오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들의 리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나라의 륭성 발전을 위한 것이며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에서 통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형태의 국영 경제 부문과 협동 경리 부문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인민 경제에 아직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개인 상공업자들까지도 우리의 건설 사업에 인입하며 그들을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이와 같은 옳바른 정책에 의해서만 개인 기업가、 상인들도 우리 나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직접 복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자기의 경제 활동을 국가적、 사회적 리익에 결부시키면서 자기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중소 상공업자들도 통일 전선에 굳게 결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일 전선을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기업가、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기술、 기능、 로력 등을 다종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써 동원、 리용、 인입함으로써 인민 소비품 생산 및 공급 사업에 복무하도록 하며 지방 원료 원천과 자재들을 적극 동원하는 사업에 그들을 광범히 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개인 기업가、 상인 동 공화국 북반부에 아직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도 우리의 건설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통일 전선에 더욱 굳게 결속되게 될 것이며 우리 혁명 수행을 보장할 정치적 력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에서의 계급적 립장을 옳게 인식하고 통일 전선 내에서 그것을 견지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은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자기 주위에 더욱 튼튼히 집결시키는 것인만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며 혁명 발전을 저해하는 일체 부정적 현상들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통일 전선 내에서 우리 당의 지도적、 핵심적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또 그럴 수 있는 일체 경향들을 허용 묵과하지 않는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통일 전선 정책을 견지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속에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철저하게 해설 침투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우리의 일부 일꾼들 가운데는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사업은 다만 우당들과의 관계 문제라고만 인식하고 인민의 각계 각층과의 정치적 동맹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은 도시와 농촌에서 광범한 비당원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을 국가 및 경제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며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혁명의 동맹자들을 당의 주위에 집결시킴으로써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 문제이라는 것을 매개 당원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전선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리익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실현에 있어서 항상 광범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통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옳은 정책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 당의 힘의 원천은 또한 당이 자기의 정책 실현

을 위하여 대중을 조직 동원하고 대중 속에 당의 정책을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이 내세운 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키는 데도 있다. 그러므로 통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사상 사업의 기본은 사회주의에로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 프로레타리아적 계급 의식으로 매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데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혁명의 당면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완성과 그의 위력한 물질적 담보로 되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조건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전선 산하에 망라된 광범한 대중 속에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원쑤에 대한 불붙는 증오,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무한한 우월성,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강력한 력량에 대한 긍지와 자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혁명적 락관주의를 배양하도록 하며 낡은 사상 잔재 및 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히 참가하도록 그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더우기 일부 락후한 주민층들에게 대해서는 참을성있는,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혁명 수행에 인입할 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이 보장됨으로써만 통일 전선은 민족적 량심을 가진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포괄하는 광범한 전 인민적 통일 전선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통일 전선 사업을 자기의 기본 과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로 농 동맹을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의 주도성을 견지하면서 일체 애국적 인사들 속에 당적 영향을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과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 * *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길 우에는 많은 곤난과 장애가 놓여 있다.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더 많은 로력을 하여야 하며 많은 곤난과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一○년 동안에 허다한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은 의롭고 성실한 벗——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우의 및 협조 속에서 사회주의를 향하여 거보를 내 디디고 있다.

그런데 하루 속히 통일된 국토에서 북반부 인민들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창조 할 것을 열망하는 남반부 인민들은 아직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팟쇼 테로 통

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방해하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시도는 의연히 계속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력한 담보의 하나인 통일 전선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목적은 남 북조선 인민의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통일 전선에로 집결시키며 그를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인사들을 통일 전선에 굳게 집결시키는 방향에서 『그들의 과거 활동 여하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손을 잡을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잡아야할 것이다』라고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로 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불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쏘련 인민의 행동의 새로운 강령

리 상 일

금년 七월 四일부터 一二일까지 九일 간에 걸쳐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一、공업의 가일층의 발전、기술적 발전 및 생산 조직의 개선에 관한 과업들에 대하여。

二、춘기 파종 총화、작물 비배、수확 및 一九五五년 농산물 수매 계획 수행의 보장에 대하여。

三、쏘련—유고슬라비야 회담 결과에 대하여。

四、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의 소집에 대하여。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확고한 토대에 립각하여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당한 결정들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력사적 결정들은 거대한 고무적 힘과 커다란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문헌들이다。

금번 진행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 결정들에는 쏘련 공산당의 레닌적 정책 즉 쏘련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를 가일층 륭성 발전시키며 로 농 동맹을 공고화하며 근로자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며 평화와 국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정책이 더욱 뚜렷하게 표시되여 있다。

* * *

브·이·레닌과 그의 위업의 계승자인 이·브·쓰딸린의 유훈을 철저히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쏘련 공산당은 쏘베트 국가의 공업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 발전시킬데 대하여 부단한 배려를 돌려 왔다。 공산당의 령도 밑에 쏘련 인민은 국가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며 또한 근로자들의 복리를 향상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특출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는 공업 발전에 관한 쏘련 공산당 제一九차 대회의 지시들이 전체 쏘련 인민의 고도의 열성에 의하여 완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 완수되고 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공업의 가일층의 발전、기술적 발전 및 생산 조직의 개선에 관한 과업들』에 대한 느·아·불가닌의 보고에 대한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쏘련 공산당 제一九차 대회 이후 경과한 년간에 사회주의적 공업이 현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제五차 五개년 계획은 공업 생산의 총량에 있어서 一九五五년 五월 一일까지 즉 四년 四개월 간에 완수되였다。 이것은 쏘베트 국가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를 공산주의에로 가일층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쏘련 인민이 거둔 커다란 승리로 된다』。

쏘련 공산당은 항상 사회주의의 공업은 인민 경제의 주요한 지도적 부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총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필수 조건으로서 소비재 생산에 비하여 생산 수단 생산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레닌의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레닌에 의하여 작성되였으며 쓰딸린의 령도 밑에 시종 일관하게 생활에 구현된 이 현명한 정책은 더욱 더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바 전체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복리를 부단히 장성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초로 되는 쏘련의 중공업은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생산 수단의 생산은 一九五五년 말에 가서 一九五〇년에 비하여 八四% 이상 장성될 것이며 쏘련의 전체 공업 제품의 七〇%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一九五五년에 三천 三〇〇만톤 이상의 선철과 약 四천 五〇〇만톤의 강철이 생산될 것이며 七천만톤의 석유와 三억 九천만톤 이상의 석탄이 채굴될 것이며 一천 六六〇억 키로왓트시의 전력이 생산될 것이다。

사회주의 공업의 골간인 기계 제작 공업 생산품의 총량은 一九五五년에 一九五〇년에 비하여 二배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一九四〇년에 비하여 四·六배로 증가되고 있다。

쏘련에서의 기계 제작 공업의 생산량의 증가는 가장 중요한 공업 부문들인 석탄 공업、야금 공업、석유 공업、림산 공업들과 그리고 건설、운수、농업에서 로력이 많이 드는 곤난한 작업들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쏘련의 끌호즈들과 쏩호즈들의 전야에서는 一九四〇년에 비하여 二배에 달하는 뜨락또르、곡물 콤바인과 기타 농기계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기술에 기초하여 처녀지 및 황무지 개간과 알곡、공예 작물 및 축산품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는 이렇듯 중공업의 전면적인 발전에 기초하여 쏘련에서 경공업과 식료품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느·아·불가닌의 보고에 의하면 一九五〇년과 대비하여 一九五五년도의 인민 소비품 생산 수준은 五개년 계획에 예견된 六五%의 장성을 넘쳐 七二%의 장성이 예견되고 있다。

쏘련에 있어서 최근 년간의 공업 사업의 총화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쏘련 공산당의 총로선의 정확성을 다시금 확증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 기술적 발전 및 생산 조직의 개선에 관한 과업들』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당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소비재 생산에 비하여 생산 수단 생산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필요성에 관한 위대한 레닌의 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중공업은 앞으로도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들보다 더 빨리 발전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의 가일층의 발전을 규정하는 중공업의 발전 수준이 제고되면 될수록 더욱 더 완전히 우리는 쏘련 인민의 부단히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풍족한 량의 소비품을 생산하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것을 더욱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느·아·불가닌은 자기의 보고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레닌적 로선을 오늘날 강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시기에는 마치 중공업의 보다 급속한 발전이 필요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일부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느·아·불가닌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러한 가련한 리론가들은 주장하기를 이미 고도로 발달한 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중공업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경공업을 위해서도 동일한 발전 속도를 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바로 경공업을 보다 더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맑스—레닌주의와는 전연 인연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반맑스—레닌주의적 견해들은 쏘련 공산당에 의하여 제때에 폭로되였다。

느·아·불가닌은 공업의 성과를 옳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인민 경제 부문들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불쉐위끼적 솔직성을 가지고 적발하고 그를 가장 시급히 청산할 데 대한 대책들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쏘련 공업의 성과는 거대하며 론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은 언제나 달성된 성과에 만족하

지 않는다。 쏘련 공산당의 모든 력사적 경험은 자기 사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결함을 용감히 적발 폭로하는 것이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七월 전원 회의는 불쉐위끼적 솔직성을 가지고 공업 부문과 또 일련의 성 및 지방 당 단체들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들을 적발 폭로하였으며 위임된 사업에 책임감이 없거나 자만 자족하는 등 레닌주의의 정신과는 인연이 먼 일부 일군들을 랭혹히 비판하였다。

공업 부문의 사업을 총화하면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공업의 수준을 새롭고 더욱 높은 단계로 제고할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장차 쏘련 공업이 발전할 중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계속적인 장성은 부단한 기술적 진보의 조건 하에서 높은 기술에 기초하여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맑스—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부단한 기술적 진보를 위한 투쟁——이는 곧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이다。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의 과학 및 기술 발전에 대한 일상적인 배려와 쏘베트 과학자들과 기사들의 노력에 의하여 쏘련에서는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는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원자력으로 작업하는 세계 최초의 발전소가 창설되였다。

공업、 운수、 건설 및 농업의 기술적 완성이 부단히 실시되고 있으며 자동 공학、 원거리 자동 공학、 무전 공학、 전자학의 최신 성과들이 생산에 도입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는 이러한 성과들과 함께 공업 부문들의 기술적 발전 사업에 존재하는 일련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의 보장과 더불어 생산의 기술적 수준을 백방으로 제고하는 것을 공업 부문에서의 당、 쏘베트 및 경제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생산 공정의 전기화、 종합적 기계화 및 자동화와 최신 고성능 공작 기대、 기계 및 장치들의 도입、 생산 공정의 부단한 완성、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등에 기초하여 공업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 완성의 템포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 공업에서의 가일층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과 과업들을 규정하면서 낡은 시설들을 새롭고 성능이 더 높은 시설들로 교체하며 이미 설치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현존 공장들의 기술적 개선 대책들을 강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기업소들을 설계하며 현존 기업소들을 확장함에 있어서는 국내 및 국외의 선진 기업소들에서 달성된 것에 비하여 가장 높은 기술—경제적 지표들을 예견할 것이며 기계와 설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과학

및 기술의 최신 성과들과 선진 경험 및 합리화 제안들을 생산에 급속히 도입할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 생산 능률、 경제성、 실용 가치의 제고 및 기계、 기대、 설비의 중량의 감소 그리고 또한 생산에 있어서의 금속 소비량의 감소에 특별히 류의할 것이며 건설에서 금속을 절약하기 위하여 콩크리트 및 철근 콩크리트의 광범한 도입을 보장할 것이며 과학 연구소、 대학、 설계국 및 공장 연구실들로 하여금 기술적 발전에서 제一차적 의의를 가지는 과업을 해결하는 데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적극화할 것이며 실험소를 확장하며 기업소、 과학 연구 기관、 대학들의 연구소의 기술적 설비들을 현저히 개선할 것이며 발명가 및 합리화 고안자들과의 사업을 개선하며 그들의 제의를 공업에 도입할 데 대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 공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들에서 생산 과정의 자동화 사업을 확장하며 생산 과정의 부분적 자동화로부터 종합적 자동화로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화 기구 및 자재의 생산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기구 제작 공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학 및 기술 보도 조직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면서 전원 회의는 외국 과학 기관들과의 련계와 과학 및 기술 정보 교환을 확장하며 외국 기술 서적을 더 광범히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업、 농업 및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뵈여 주며 선전할 목적으로 과학의 성과와 쏘련 인민 경제에서의 선진 경험에 대한 상설 전람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쏘련 공업에서의 가일층의 기술적 발전의 과업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리용하여 외국의 과학 및 기술 성과들을 릉가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대하여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 제도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요한 것이라는 브·이·레닌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에 제一차적 의의를 부여하여 왔으며 또 부여하고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의 발전에서의 성과들을 규정하며 실질 임금의 장성、 인민의 물질적 복리와 생활의 문화적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규정한다』고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가르치고 있다。

쏘련 공업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은 一九五五년에는 一九四〇년과 대비하여 거의 二배로 제고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업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一九五五년에는 전전 수준에 비하여 九〇% 이상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우선 최신 기계와 기구의 생산에의 도입、 공학과 생산 조직의 완성、 로동자 및 기사—기술 일꾼들의 문화 및 기술 수준의 향상、 사회주의적 경쟁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방해하고 있는 결함들을 지적하고 전원 회의는 공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며 이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로동 조직 및 로력 기준량 설정에 있어서 현존하는 결함들을 퇴치하며 로임을 정비하며 로동자들의 로동 및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의를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느·아·불가닌은 자기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쏘련에서의 공업 발전의 주요 방향을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

첫째로 공업의 기술적 설비를 개선하며 새 기계들의 제작을 촉진시키며 또한 과학과 기술의 현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생산 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의 광범한 실시。

둘째로 공업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현존 기술의 백방으로의 합리적 리용。

세째로 개별적 공업 분야 내부에서나 공업 전반에서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의 광범한 발전。

네째로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과 공업 제품의 원가 저하 및 이에 기초한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의 부단한 장성의 보장。

다섯째로 생산에 대한 지도의 질적 제고、 공업 부문의 지도적 간부들과 전문가들과의 사업 개선、 전체 공업 관리 체계에서의 국가 규률의 강화。

여섯째로 국내 생산력 배치에 존재하는 결함의 제거、 새로운 생산 능력의 적시의 질적 도입。

공업 앞에 제기되고 있는 커다란 과업들은 로동 계급과 기사—기수 인테리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가 가일층 앙양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중들 속에서 진행되는 당 단체들의 정치 사업 및 조직 사업은 항상 경제 건설에서 이룩되는 모든 승리의 토대로 되였으며 현재도 또한 그러하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공업에 대한 당적 지도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원 회의는 경제적 성과들과 이 성과들의 견고성 및 장구성은 전적으로 당 정치 사업 및 당 조직 사업의 성과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당 단체들은 대중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며 공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려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공업에 대한 당적 지도 문제와 관련하여 느·아·불가닌은 『오늘 공업을 지도한다는 것——이것은 우선

기술 분야에서 구습과 침체를 반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새로운 것과 선진적인 모든 것에 광활한 길을 열어 주며 만세식 결정서들을 채택하지 않으며 기업소의 사업을 본질적으로 구명하며 생산의 기술과 경제를 철저히 료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느·아·불가닌은 『참답게 공업을 지도한다는 것——이것은 또한 그 간부들을 잘 알며 그들을 능숙하게 선발하고 옳바로 배치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대중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고 교시하고 있다。

전원 회의의 결정에는 공업 사업에 현존하는 결함들의 상당한 부분은 지도적 당 위원회들이 기술과 생산 공정을 완성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주의를 약화시킨 것으로 설명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업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며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들을 공업에 도입하며 생산 혁신자들과 선진 기업소들의 경험을 광범히 보급시키는 조직 사업이 당 단체들의 주의의 초점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는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기술적 발전 및 생산 조직의 개선에 관한 과업들』에 대한 결정서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 쏘련 인민들이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며 쏘련 공산당의 령도 밑에 전체 근로자들이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에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공산당원들、공청원들、남녀 로동자들、직공장들、기수、기사、과학 일군 및 사무원들에게 사회주의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에 대한 예견된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을 호소하며 우리 조국의 영웅적 로동계급、인테리겐챠 및 전체 근로자들이 공산당의 령도하에 공업의 강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며 그리하여 쏘베트 국가의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위업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로동을 사랑하는 위대한 쏘련 인민의 창조적 재능과 공산주의 건설 위업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 그리고 또한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학설로 무장되였으며 쏘련 인민들을 공산주의에로 확신성 있게 령도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의 세련된 지도는 의심할바 없이 쏘련에서 공업의 새로운 위력한 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중공업의 위력한 발전에 기초하여 쏘련 공산당은 농업을 급격히 발전시키는 과업을 해결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一월 전원 회의(一九五五

년)에서 제시한 과업 즉 곡물 생산을 년 一〇〇억 뿌드 이상으로 증가시키며 주요한 축산품 생산을 二배 또는 二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위력한 기술과 선진 꼴호즈 및 쏩호즈들의 경험은 一월 전원 회의의 과업들이 二——三년 동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뵈여 주고 있다。

금년에 쏘련 농업은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춘기 파종 총화、작물 비배、수확 및 一九五五년 농산물 수매 계획 수행의 보장에 관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 결정서에는 『꼴호즈들과 엠·떼·에쓰 및 쏩호즈들이 금년에 곡물、공예 작물 및 기타 농작물들의 파종을 적절한 영농기에 질적으로 훌륭히 진행하였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

쏘련에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二천 一〇〇만 헥타나 더 많은 땅에 춘파 작물이 파종되였는데 그중 소맥은 一천 一〇〇만 헥타나 더 많은 땅에 파종되였다。

옥수수는 一천 七九〇만 헥터의 땅에 파종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一천 三六〇만 헥터의 증가이다。

처녀지 및 황무지에서의 파종 과제는 현저히 초과 실행되였다。 쏘련의 꼴호즈 및 쏩호즈들에서는 금년에 곡물、공예 작물 및 사료를 증수하며 육류、우유、양모 및 기타 산물을 증산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쏘련 농업은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존하는 커다란 결함들을 퇴치하며 농업 생산의 뒤떨어진 분야들의 발전 템포를 촉진시키도록 온갖 력량과 수단을 더욱 더 동원할 것이 당 단체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남녀 꼴호즈원들과 꼼바인 운전사와 뜨락또르 운전사들、엠·떼·에쓰 및 쏩호즈 로동자와 전문가들、전체 농촌 경리 일군들과 농촌 경리를 위한 주문을 리행하고 있는 공업 기업소 로동자、기사 및 기수들에게 농산물 생산을 증가시키며 농업을 가일층 앙양시킬 데 대하여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성과적 수행을 자체의 헌신적 로력으로 보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산주의 건설 도상에 있는 쏘련에서의 경제 건설의 훌륭한 성과들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적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다。

쏘련은 인민들 간의 평화와 친선과 각국 간의 실무적 협조의 발전을 위하여 시종 일관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각이한 사회-경제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

존의 가능성에 관한 브·이·레닌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쏘련의 대외 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쏘련의 대외 정책은 명백하고 확고 부동하다.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 쏘련 내각 수상 느·아·불가닌이 언명한 바와 같이 쏘련은 이러저러한 국가에 어떠한 내부 제도가 수립되여 있든지간에 즉 그 나라가 군주제 국가, 공화제 국가, 자본주의 국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이건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을 고수하여 왔으며 또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현존 사회 및 경제 제도에 관한 문제가 그 나라 인민들의 내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최근에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대오 국가 조약 체결, 군비 축소, 원자 무기 금지 및 새 전쟁 위협의 제거 문제에 대한 제안, 쏘련과 유고슬라비야 간의 관계의 정상화, 쏘련과 독일 련방 공화국 간에 외교 및 통상 관계를 설정할 데 대한 제의, 쏘—일 회담의 진행, 쏘련과 인도 간의 친선 관계의 강화 등 일련의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였다.

쏘련과 유고슬라비야 간의 관계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조치들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평화 사업을 강화함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전반적 찬동을 받고 있다.

쏘련—유고슬라비야 회담 결과에 대한 느·쓰·흐루쑈브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정부 대표단과 유고슬라비야 련방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간의 회담 결과를 승인한다』.

쏘련과 유고슬라비야 간의 우의적 협조, 전 세계 평화의 리익과 모든 나라 근로자들의 리익 그리고 또한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의 리익에 부합되는 우의적 협조의 강화를 쏘련 인민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 근로자들, 그리고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한결같이 환영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은 인민들 간의 평화와 친선과 각국 간의 실무적 협조의 발전을 위한 자체의 시종 일관하고 굴함 없는 투쟁으로써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전반적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一九五六년 二월 一四일에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정기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정기 대회의 승인된 의정에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쏘련 공산당

중앙 검사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一九五六——一九六〇년 쏘련 인민 경제 발전 제六차 五개년 계획에 대한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의 지시, 당 중앙 기관들의 선거 등이 포함되여 있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정기 대회 소집은 쏘련 공산당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제二〇차 정기 당 대회의 소집에 관한 결정은 쏘련 공산당원들과 전체 쏘련 근로자들의 광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선진 기업소들의 발기에 의하여 쏘련 국내 각지에서는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정기 대회를 경축하는 사회주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정기 대회는 쏘련 공산당 제一九차 대회 이후 시기에 쏘련 공산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더욱 더 강화되였으며 쏘베트 사회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며 쏘련 인민의 모든 승리의 고무자이며 조직자로서의 쏘련 공산당의 역할이 더욱 더 제고되였다는 것을 뵈여 줄 것이다.

또한 제二〇차 정기 당 대회는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과업들을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는 쏘련 인민들의 통일된 정치적, 로력적 성과들을 과시할 것이며 모든 인민들에게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의 더욱 광활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크게 하여 줄 것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의 력사적 결정들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위대한 공산주의의 건설 도상에 있는 쏘련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 찬동을 받고 있으며 쏘련 인민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앙양시키고 있다.

七월 전원 회의 후에 쏘련의 각 도시와 공장, 농촌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중 대회와 회의들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이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들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의 위대한 단결의 확고 부동한 시위로 된다.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되였으며 공산주의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은 쏘련 인민의 사랑 속에 둘려 쌓여 있으며 쏘련 인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령도 밑에 전체 쏘련 인민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더욱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고 씩씩하게 전진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七월 전원 회의의 력사적 결정들은 쏘련 인민의 행동의 새로운 강령으로 되고 있다.

* * *

맑스—엥겔스—레닌—쓰딸린의 백전 백승의 학설에

의거하면서 쏘련 공산당은 대내 대외 정책을 현명하게 지도하고 있다。

대내 대외 정책 분야에서 위대한 쏘련이 달성한 성과들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당의 거대한 지도적 역할、당적 지도 원칙들 및 당 생활의 규범에 관한 레닌의 교시를 확고하고 철두 철미하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의 거대한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범한 로동자、꼴호즈원 및 인테리 대중을 동원하면서、쏘련 공산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당 대렬의 정치적 단련、쏘베트 사람들의 창의 창발력의 백방의 발양、과학 및 기술 성과와 선진 경험의 선전 및 보급 등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쏘련 공산당은 당 규약의 요구들과 당내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공산당원들이 엄격히 준수하며、비판과 자기 비판을 발전시키며、자만성과 안일성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매개 공산당원들이 자기가 맡은바 사업과 쏘련 공산당의 위대한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시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풍부한 력사적 경험과 모든 일상적 활동은 전체 형제적 공산당과 로동당들에게 고무적 모범으로 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세계의 모든 형제적 인민들과 더불어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들을 커다란 만족감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다。

우리들은 쏘련 공산당의 고귀한 경험들과 활동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며 새 생활을 어떻게 건설하며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을 어떻게 실천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며 당 생활의 레닌적 규범과 사회주의적、국제주의적、레닌적 원칙들을 어떻게 준수하여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혁명의 원천지로서의 민주 기지를 가일층 공고화하기 위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조선 인민은 평화의 성새로서의 쏘련에서의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쏘베트 국가의 위력의 강화와 평화 및 국제적 협조의 정신、그리고 쏘련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빛나는 성과들에서 고무적 힘을 받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평화와 국제적 협조를 위하여

허 봉 삽

제二차 세계 대전후의 력사는 과거에 공동의 원쑤인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동맹국들이였던 국가들 간의 관계의 악화로써 특징지어졌다。서방 국가들의 많은 정객들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며 소위『랭전』이 불가피하며『랭전』이 현 시대의『운명』이라고까지 말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기에 국제 정세는 서방 정객들의 이러한 주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는 소위『랭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특히 금년 七월 一八일부터 二三일까지 제네바에서 진행된 쏘、미、영、불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의 긍정적 결과들은 전후 시기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의 시초를 이루어 놓았다。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는 국제 관계에서의 긴장 상태의 일정한 완화가 세계에서 보이게 되였으며 또한 미해결 국제 문제들의 조정을 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였다。

따라서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의 의의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최근 시기에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평화 애호 정책이 거둔 성과들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시기에 전반적 평화를 공고화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쏘련을 비롯한 평화 애호 국가들의 시종 일관한 노력이 미국을 비롯한 일부 자본주의 국가 지배층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 성과들이란 어떠한 것들인가? 一九五三년 七월에 평화 애호 진영 국가들의 이니샤티브에 의하여 조선에서의 정전이 달성되였다。一九五四년 一—二월에는 五년 동안이나 중단되였던 쏘、미、영、불 四렬강 외상들 간의 직접적 접촉이 회복되였다。베를린 四렬강 외상 회의는 여러 관계 국가 대표들도 참가하는 五렬강

제네바 회의 소집을 위한 가능성을 조성하였는바 제네바 회의는 인도지나에서의 전쟁의 불길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조선에서의 정전과 인도지나에서의 군사 행동의 중지는 의심할 바 없이 평화 력량의 거대한 승리였으며 국제적 분쟁 문제들을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세계의 평화 애호 인민들은 이 길을 확고히 따랐으며 국제 긴장 상태 완화에서의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여 왔다。

쏘련의 이니샤티브에 의한 대오 국가 조약의 체결、 쏘련과 유고슬라비야 간의 우의와 협조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 놓은 량국 간의 관계의 정상화、 아세아 및 아프리카 二九개국의 반둥 회의의 성과적 진행、 쏘련과 인도 간의 친선적 관계를 더욱 촉진시킨 인도 수상 쟈와하를랄 네루의 쏘련 방문、 쏘련과 독일 련방 공화국(서부 독일) 간의 외교 통상 및 문화적 관계를 설정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제안、 그리고 군비 축소、 원자 및 수소 무기의 금지와 새 전쟁 위협의 제거 문제들에 관한 금년 五월 一〇일부 쏘련 정부의 제안、 쏘일 회담의 진행 등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크게 촉진시켰으며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의 직접적 접촉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소집된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리라는 기대와 인민들 간의 신뢰를 두터이 하리라는 희망에 충만된 전 세계 인민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는 그 의의로 보아 국제 긴장 상태 완화에로의 도상에서의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며 『랭전』을 종식시키며 인민들 간의 공고하고 항구한 평화의 확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국가들 간의 신뢰를 두터이 하는 도상에서의 중요한 도표로 될 것이다。

쏘련 내각 수상 느·아·불가닌은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 七월 二三일 최종 회의에서 한 자기의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네바 회의는 전 세계 인민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며 「랭전」을 종식시키려는 그들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의연히 긍정적 역할을 놀 것이며 공고하고 항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고귀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실로 전후 一〇년만에 처음으로 소집된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는 국제 관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사건으로써 력사에 기록될 것이다。

＊ ＊ ＊

쏘、미、영、불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은 일련의 중요한 국제적 문제들 즉 구라파의 안전 문제、 독일 문제、

군비 축소 문제、 동방과 서방 간의 접촉을 촉진시키는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들의 해결 방도를 찾으려는 공동적 노력을 표시하였다。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는 국제적 분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네바 회의에서 중요하게 토의된 문제는 구라파 안전 문제였다。

력사의 경험은 구라파에서의 안전 보장이 전 세계의 전반적 평화를 유지 공고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구라파 국가들과 미국이 참가하는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를 창설하는 것이 평화를 공고화하는 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쏘련 정부는 이번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 전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 수립 문제에 대한 자기의 정당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쏘련 정부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라파에서의 집단 안전 체계의 창설이 두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지도록 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쏘련 정부 대표단이 제출한 제안에 의하면 제一기에 있어서 국가들은 현존 조약들과 협정들에 의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의무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나 무력의 사용을 삼가하며 그 국가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문제들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군비 축소 및 원자 무기 금지에 관한 그리고 또한 구라파 제국 령토로부터의 외국 군대 철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조약 참가국들이 종전에 체결한 조약과 협정들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라파의 다른 국가 령토들에 있는 자기 무력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앞으로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데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二기에 있어서 상술한 국가들은 구라파에서의 집단 안전 체계의 창설과 관련된 의무들을 조약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니며 이에 있어서 북대서양 조약、 파리 협정 및 와르샤와 조약들의 효력은 동시에 완전히 없어지며 그 협정들과 조약들에 기초하여 창설된 국가들의 집단은 철폐되며 전반적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에 의하여 교체된다。

쏘련 정부 대표단은 이러한 원칙을 정식화하여 북대서양 조약 및 서구 동맹 참가국들을 일방으로 하고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을 타방으로 하는 량자간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구라파에서의 평화 유지의 리익에 부합되리라는 데 대하여 합의를 볼 것을 제의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쏘련 제안은 구라파 안전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할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쏘련 제안의 실현이 한편으로는 구라파 인민들을 위한 진정한 안전의 조성을 보장하며 또 다른 한편

으로는 현재 일련의 구라파 국가들이 현존하는 조약 및 협정들에 의하여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쏘련이 구라파의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렬강 간에 합의를 보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구라파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토론은 렬강들 간의 립장을 접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영국 수상 이든은 四렬강과 통일된 독일이 참가하는 조약의 체결을 예견한 영국 계획에 언급하면서 조약이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조약 참가국 수를 증가시킬 문제를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느·아·불가닌은 쏘련도 자기의 제안의 완성을 이러 저러한 정도로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제안을 심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성명하였으며 이든의 가치있는 제안을 지적하였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앤드 모닝 포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훌륭한 희망은 독일의 두 부분을 포함하는 전 구라파 정치 공동체와 같은 전 구라파 안전 협정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든과 불가닌이 제기한 안전 보장 계획들 간의 어떠한 조정으로써 그러한 해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라파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은 제네바 회의의 모든 참가자들이 이 중요한 문제의 합의된 결정을 탐구하려고 념원하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은 외상들에게, 주는 자기들의 지시문에서 모든 나라들의 합법적 리익과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유에 대한 그들의 파기할 수 없는 권리를 응당히 고려하면서 구라파의 안전을 초성할 목적 밑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각종 제안들 즉 조약 참가국들이 힘에 의거하지 말며 침략자에 대한 원조를 거부할 의무를 지닐 데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구라파 또는 구라파 일부의 안전 조약、 병력 및 군비에 대한 제한、 관리 및 시찰、 무력 배치가 호상 합의에 따라 실시될 지대를 동방과 서방 사이에 창설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각종 제안들을 심의할 것과 그리고 또한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른 제안들을 심의할 것을 외상들에게 위임하였다。

효과적인 구라파 안전 체계의 창설이、 조성된 정세 하에서 독일 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며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의 독일의 민족적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를 조성할 것은 명백한 것이다。

현재 독일을 통일시키는 길에 놓여 있는 중요한 장애물은 서부 독일을 재군국화하며 그를 서부 렬강의 군사 집단에 인입시키는 그것이다。 이 사실은 독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였다。

그런데 독일 문제에 대하여 서부 렬강이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독일을 통일시킨 후 군사 집단에、 더 정확히 말하면 북대서양 쁠럭에 가담할 권리를 통일된 독일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독일 문제에 관하여 서부 렬강이 제출한 계획의 본질에 관하여 『데일리 텔레그라프 앤드 모닝 포스트』지는 현재 서부 렬강이 독일의 통일을 주장하여 나서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의 조건 하에서는 또 현 지도부 하에서는 독일이 북대서양 동맹의 가입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의 독일의 통일이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리익에、 그리고 또 독일 인민 자신의 리익에 부합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서는 미국 신문 『뉴욕 포스트』지가 아주 적절한 대답을 주고 있다。 동 지는 『그러한 협정에 기초한다면 독일은 적은 위협이 아니라 큰 위협으로 되는 것이다。 미국 비행기는 오늘과 같이 그대로 쏘련 철도 중심 부근에 있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해결이 국제 긴장 상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겠는가는 용이하게 리해할 수 있다…』라고 썼다。 지난 날의 력사의 교훈을 잊지 않았으며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뉴욕 포스트』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평화와 안전의 리익은 통일된 독일이 이전에 독일의 어떤 부분이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 정치적 협정에 의하여 짊어졌던 의무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통일된 독일이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어떠한 군사 동맹이나 련합에도 가담하지 않을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지난 四〇년 동안에 두번이나 독일 군국주의자들의 침공을 받은 구라파 인민들은 자기의 장래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성되고 있는 정세를 무시하고 독일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정세는 파리 협정이 비준되고 서부 독일이 북대서양 군사 쁠럭과 서구 동맹에 가입한 사실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파리 협정을 파기하거나 또는 서부 독일이 군사 집단으로부터 탈퇴하는 문제를 지금 당장 제기하는 것도 비현실적일 것이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사실을 고려하여 와르샤와 조약 기구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각이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독일의 두 부분을 기계적으로 합동시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현재 곧 독일 통일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물론 독일 문제의 해결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련방 공화국의 참가없이는 불가능하

다。 그와 동시에 독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관계국들 측으로부터의 거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독일의 재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이 조성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며 국가들 간의 호상 신뢰를 두터이 하기 위한 방향에서의 관계국들의 공동 사업이 필요하다。

두 시기를 예견하고 있는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 수립에 대한 쏘련 제안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쏘련이 제기한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 창설 계획은 진실로 독일 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구라파 안전의 리익에 부합되는 현실적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성된 정세 하에서 독일 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도로 되는 것은 구라파에 집단 안전 체계를 창설하며 독일의 두 부분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접촉을 공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독일 문제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리익을 침범하며 서방 국가 집단의 리익만을 고려하는 그러한 해결책에 독일 인민들과 또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근로자들이 자체의 온갖 정치적 및 사회적 전취물을 포기하거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북대서양 조약과 서구 동맹에 인입되며 군비 경쟁의 중하를 질머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태를 결코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를 통하여 독일 문제를 독일 인민 자체의 리익과 구라파 안전의 리익에 부합되도록 평화적、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해결하려는 쏘련의 진지한 노력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명백히 실증되였다。

제네바 회의 석상에서 느·아·불가닌은 『쏘련 정부는 독일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구라파 안전의 리익에 부합되게 독일을 통일시키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또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독일의 민족적 통일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는 독일의 량 지대의 호상 리해와 접촉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제적 노력을 쏘련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서는 쏘련과 독일 련방 공화국 (서부 독일) 간의 외교、통상 및 문화 관계를 설정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제안을 들 수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쏘련과의 관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나라들은 호상간의 친선과 협조와 호상 리해를 부단히 촉진시키고 있다。

독일 문제 해결 도상에 가로 놓여 있는 난관들을 꾸준히 극복하면서 한결음 한결음 독일 문제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며 유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은 독일 문제 해결과 독일 재통일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독일 문제 해결과 자유 선거에 의한 독일의 재통일이 독일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구라파 안전의 리익에 부합되게 실현되여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으며 외상들에게 기타 관계측들의 참가 혹은 그들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그들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 측으로부터 참을성있고 꾸준한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

* * *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는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주의가 돌려졌다。

파멸적인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며 원자 및 수소 무기와 기타 대량 살륙 무기들을 금지하며 현대 과학의 훌륭한 성과들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리용할 데 대한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사활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인 것이다。

쏘련은 이미 금년 五월 一〇일부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쏘련 정부 대표단은 제네바 회의에서 四렬강의 립장이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거나 또는 현저히 접근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달성된 합의를 확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우선 국가들 간의 군비 수준의 설정、원자 무기의 금지 및 효과적인 국제적 관리 체계 설정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들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쏘련은 국가들 간의 군비 수준 설정 문제에 대하여 미국、쏘련 및 중국에 대해서는 각각 一백만으로부터 一백 五〇만명까지의 범위로 설정하며 영국과 불란서에 대해서는 각각 六五만명까지로 제정할 데 대한 서부 렬강의 제안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쏘련 정부 대표단이 제네바 회의에서 제출한 군비 축소 및 원자 무기 금지 문제에 대한 결정 초안에는 중국의 병력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참가 하에 심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또한 쏘련 대표단이 제출한 결정 초안에 의하면 나머지 모든 국가들을 위한 병력 수준은 一五만 내지 二〇만명을 넘지 말 것이며 해당한 국제 회의에서 합의를 보아야 한다。

쏘련 정부는 또한 원자 및 수소 무기 금지를 계단별로 실시할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 쏘련 정부 대표단은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완전한 금지에 대한 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회의 참가국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데 관한 엄숙한 의무를 질 데 대하여 합의를 볼 것을 제의하였다。

쏘련은 군비 축소와 원자 무기 금지에 관한 조치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국제적 관리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한 토의 행정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토의함에 있어서 의심할 바 없이 고려될 그리고 필요한 합의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제안들을 제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은 평화와 인류의 복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효과적인 담보를 동반하는 모든 군비 및 병력의 관리 및 축소 체계를 창설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유·엔 군비 축소 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통한 접수될 수 있는 군비 축소 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하는 데 합의를 보았으며 분과 위원회내 자기 대표들에게 정부 수뇌자들이 제네바 회의에서 제기한 의견과 제안들을 참작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또 분과 위원회 다음 회의를 一九五五년 八월 二九일에 뉴욕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은 외상들에게 군비 축소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심을 돌릴 것과 정부 수뇌자들이 제네바 회의에서 제기한 의견과 제안들을 고려에 넣을 것과 그리고 군비 축소 분야에서 가일층 유익한 이니샤티브를 취할 가능성이 四렬강 정부들에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와 같이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의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한 토의는 모든 회의 참가자들이 인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도 합의된 해결을 탐구하려는 것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느·아·뿔가닌은 쏘련 정부가 군비 축소 문제를 앞으로 심의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숙망에 부합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가 온갖 노력을 경주하리라는 것을 성명하였다。

동방과 서방 간의 접촉을 촉진시킬 필요성과 四렬강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발전 강화시킬 데 대하여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이 채택한 결정도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경제、문화、과학、보도 분야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와 교류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현 상태를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랭전』은 이 분야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많은 국가들 간에 전통적인 경제 및 통상 관계가 유린되였으며 과학 및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접촉과 협조를 유지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객관적인 정당한 보도는 사물의 진상을 반영하지 않는 편향적인 보도들의 류포로써 때때로 대치되였다。 이 모든 것은 불가피적으로 국가들 간의 의혹을 일으키며 호상 간의 신뢰의 조성을 저애하면서 국가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계속 주고 있다。

경제 및 문화적 분야에서의 온갖 인공적인 제한을 제거하며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 및 문화적 련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들 간의 친선 관계의 공고화를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복리 향상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 느·아·불가닌은 대표단들의 광범한 교환、공업、농업、통상、과학、문화、예술 활동가들과 대학생 및 체육 대표단들의 호상 방문、공민들의 관광 려행이 국가들 간의 필요한 신뢰의 조성과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특히 느·아·불가닌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는 분야에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각국 간의 련계의 설정과 협조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은 외상들에게 인민들 간의 자유로운 교제와 평화적인 통상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점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들과 관계 국가 및 인민들에게 호상 유리한 자유로운 접촉과 련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전문가들을 통하여 연구할 것을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쏘련、미국、영국 및 불란서 간의 협조를 확대시키기 위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은 제네바에서 의견이 교환된 그리고 지시문에 지적된 문제들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一○월에 다시 제네바에서 회합할 것을 외상들에게 위임하였다。

인민들은 一○월에 소집되는 외상 회의가 미해결 국제 문제들을 조정하는 길을 따라 가일층의 진전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상 회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와 같은 호상 리해와 협조의 정신이 발휘되여야 한다。 이 회의에서는 관계 측의 리익이 모두 고려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긴급한 국제 문제들의 정확한 해결、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및 평화와 안전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 ✻

제네바 四렬강 수뇌자 회의의 긍정적 결과들은 모든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랭전』으로부터 벗어나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협조와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는 이번 제네바 회의에 참가하였던 四렬강 뿐만 아니라 기타 나라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의 시초로 된다。

누구나 다 이번의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가 모든 복잡한 국제 문제들을 즉시에 다 해결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기초를 발견하리라고 기대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공통적인 기초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되였

다。 이번 회의에서 호상 리해를 촉진시키려는 四렬강 정부 수뇌자들의 지향이 확고히 표시된 것은 특징적이다。

특히 쏘련 정부 대표단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원칙에 기초한 자기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견결히 고수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국제적 문제들의 공정한 조정의 길을 제시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안들을 제출함으로써 이번 회의가 긍정적 의의를 갖는 결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귀중한 공헌을 하였다。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는 위대한 쏘련과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이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는 국제적 협조의 리념의 위대한 생활력을 똑똑히 뵈여 주었다。

제네바 회의의 전 행정이 뵈여준 바와 같이 오늘날 어느 나라의 어떠한 정부 지도자도 평화로운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려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되였다。 최근 시기에 쏘련의 시종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국제 긴장 상태 완화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성과와 그리고 이에 고무된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평화 옹호 투쟁의 강력한 장성이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로 하여금 긍정적 의의를 갖는 결과를 달성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였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으로써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제네바 회의의 행정은 서부 렬강 정부 수뇌자들이 자기들이 고집하여온 악명 높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 자기들이 타산하였던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제네바 회의는 『힘의 립장』에 대한 국제적 협조의 리념의 승리의 명백한 증거로 되였다。

조선 인민은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더불어 제네바 회의가 달성한 이러한 결과들에 긍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조선의 민족적 통일과 같은 우리에게 극히 절실한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극동 및 아세아 문제들에 대하여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 응당한 주의가 돌려지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쏘련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극동 및 아세아 문제들을 회의 의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아세아 및 극동 문제들이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 토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세아 및 극동 지역의 긴장 상태의 완화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며 론쟁할 여지없는 중국 인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대만 지역 정세를 조정하며 인도지나에

대한 제네바 협정의 리행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긴급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 이후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극동 지역의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한 아세아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의는 평화 애호 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세계 여론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 주 은래가 七월 三〇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제출한 아세아의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중요한 제안들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주 은래는 아세아 회의 소집에 대한 아세아 여러 나라들의 제의를 지지하였으며 대만 지역에서의 긴장 상태 및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하여 미국과 회담하며 대만의 평화적 해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자들 간의 회담이라는 원칙 하에서 대만의 책임적인 지방 당국자들과도 회담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이 제안과 또한 아세아 및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적대적 군사 쁠럭 대신에 집단적 평화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집단적 평화를 실현할 것을 제의한 주 은래의 제안은 아세아 문제들의 조정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아세아 관계국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아세아 회의가 소집된다면 그리고 이런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에서와 같은 진지성과 협조의 정신을 표시한다면 의심할바 없이 아세아 및 극동의 제 문제의 정당한 해결 방도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 평화의 공고화를 론의하면서 극동과 아세아의 일련의 문제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 문제를 포함한 극동과 아세아의 일련의 문제들은 해당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평화 유지의 리익에 부합되게 반드시 평화적으로 조정되여야 할 것이다。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는 미해결 문제들을 앞으로도 공동으로 심의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인민의 복리의 부단한 증진은 인민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한 천 일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사회 발전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이에 기초한 인민 대중의 복리의 계통적 제고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작용의 필연적 귀결이며 인민의 복리의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는 맑스주의 새 형의 당들의 정확한 령도의 결과이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본질적 제 특징 및 요구는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개선에 의한 전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의 보장』(쓰딸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 문제』)이다.

사회주의의 이 기본 경제 법칙의 본질적 제 특징과 제 요구 가운데는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 기초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새로운 통일 및 생산의 목적의 변화 그리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들이 반영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 관계의 지배 하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불상용적 모순은 가속도적으로 격화되여 생산의 무정부성, 무서운 경제 공황을 초래하며 최신 기술의 생산에의 도입을 저애하며 나아가서는 기존 생산 시설까지도 파괴하면서 대중을 극도의 빈궁으로 몰아 넣으며 결국 사회를 침체와 퇴보에로 이끌어 간다.

적대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생산 방식에 의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의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 대중의 막대한 희생을 대가로 하는 자본주의적 리윤 추구에 복종 된다. 자본가의 생산의 목적은

리윤 추구이며 현대 독점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최대한의 리윤 추구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의 사용 가치의 생산은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적대적 모순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불행은 오직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혁명적 청산에 의해서만,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 의한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교체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류는 자기들이 달성한 모든 과학적 성과들과 최신의 기술을 생산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소수 착취 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전체 사회를 위하여 로동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자기들의 창조적 로력의 열매들을 자기 자신의 복리와 자기 조국의 륭성에 바칠 수 있게 된다.

최신의 기술 및 문화의 일체 성과에 의거한 근로자들의 자기 자신과 사회를 위한 자각적 로동만이 고도의 생산 능률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공고 발전의 결과로서의 생산력의 급진적 장성에 의해서만 자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은 자유롭게 작용한다.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六분의 一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작용의 길을 개척하여 놓았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 건설에로 나아가고 있는 쏘련에서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가장 광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쏘련에서의 一九五四년도 공업 생산고는 一九二九년도에 비하여 一八배로 증대되였으며 금년 五월 一일까지에 제五차 五개년 계획을 공업 생산의 총량에 있어서 四년 四개월 간에 완수한 결과 공업 생산은 一九四〇년도에 비하여 三배 이상 증대되였으며 쏘베트 농업도 비약적으로 장성되였다.

쏘련에서의 공업과 농업 생산의 거대한 장성은 쏘베트 인민들의 복리를 부단히 증진시키고 있는바 쏘련에서는 二차 대전 후 이미 일곱 차례에 걸쳐 국정 소매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一九五四년에 쏘련 인민의 사회—문화적 생활상 봉사에 대한 국가적 지출을 포함하여 로동자, 사무원 및 농민들의 전체 수입은 一九四〇년에 비하여 약 二배로 증대되였다.

각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각각 그의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부문의 장성 발전의 정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바 그의 작용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나라들에서의 인민 경제는 각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비약적 장성을 달성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

적 생활 수준은 급격히 개선 향상되고 있다。

※ ※ ※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우리 조선이 일제 통치 하에서 해방된 후 북반부에서는 쏘베트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과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제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이 승리적으로 수행된 결과 봉건적、식민지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는 청산되고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형성 공고화되였으며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인민 경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특히 산업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은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는바 오늘 우리의 국영 공업은 전체 공업의 九〇%를 차지하며 협동 경제는 七—八%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 경리 부면에 있어서도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있는바 오늘 총농가 호수의 약 四四%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 경제의 광범한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 인민 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완전히 소멸되였으며 생산 과정에서의 인간들 호상간의 관계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원조의 관계로 되여 있다。 이들은 과거와 같이 소수 착취자들의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자기 조국의 륭성 발전과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유롭고 영예로운 로동을 하고 있으며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분배를 받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착취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은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이 보내여 주는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와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높은 생산 능률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생산 능률은 오늘 우리의 생산의 가속도적 발전 템포를 보장함으로써 총생산고를 급속히 증대시키며 인민들의 물질적、문화적 생활 형편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 실질적 담보로 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에 의한 三년 간에 걸친 전쟁에서 전체 인민 경제 부문이 혹심히 파괴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전 후 불과 二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오늘 우리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의 총생산액은 一九五四년도에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七六% 더 장성하였으며 전쟁전 一九四九년 수준에 비하여 三%를 더 릉가하였다。 금년도 상반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一九五四년 상반년에 비하여 七〇%가 더 장성하였으며 금년 상반년 월 평균 생산 수준은 一九四九년 수준을 四三% 릉가하였다。

농촌 경리 부문에 있어서도 전쟁의 피해를 급속히 복구하고 그의 생산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지도 밑에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농경지 복구 사업과 관개 면적을 확장하는 사업이 대규모적으로 실시되였으며 제一계단 공사를 끝마친 평남 안주 관개 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저수지、양수장、수로 제방 등 관개 시설들을 건설함으로써 약 四만 정보의 몽리 면적이 확장 되였다。

금년도 춘파 작물 파종 면적은 一九五四년에 비하여 三천 八백 정보가 더 증가되였으며 알곡 파종 면적은 五천 七백 정보가 더 증가되였다。 이와 동시에 농촌에서의 협동 경리의 급격한 장성과 뜨락또르를 비롯한 선진 농기계의 도입은 호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농업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을 급격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풍요한 수확이 약속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이 공장과 전원에서 달성한 이와 같은 거대한 로력적 성과는 직접 인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로 되였다。

인민 대중의 복리에 대한 배려를 자기 정책의 기본으로、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은 달성한 생산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적、문화적 생활 형편을 부단히 개선 향상시키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 형편의 향상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부단한 배려는 계통적인 인민 소비품의 가격 인하에서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정전 후 짧은 기간에 수차에 걸쳐 인민 소비품의 국정 소매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하였다。 이리하여 금년 상반년에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물가 수준은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약 五五% 낮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인민들이 얻은 리익은 실로 一一〇억원 이상에 달한다。

금번 또 다시 공화국 정부는 내각 결정 제六六호로써 전후 네번째 생활 필수품의 국정 소매 가격 인하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면직물、견직물、내의류와 양말、고무신、포화류、금속 제품 등 인민 생활에 긴요한 필수품들과 각종 출판물、문방구、의약품 등에 이르는 광범한 품종에 걸쳐 최저 一〇%로부터 최고 六〇 여% 까지 국정 소매 가격을 인하하였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또 다시 거대한 리득을 보게 되였다。 물가 인하는 곧 근로 대중들의 실질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다 급격히 제고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인민들의 구매 능력의 장성은 생산의 확대 장성을 자극하며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물가 인하는 인민들의 수요에 대한 지불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의 확대 장성을 촉진시키며 생산의 확대 장성은 인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며 인민 생활을 보다 윤택케 하는 호상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계통적인 물가 인하 정책은 유일하게 옳은 것이다。그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부합되며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촉진하며 근로자들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며 그들의 물질적、문화적 생활 수준의 확고한 제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에 있어서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의 템포를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물론 인민의 생활 필수품 생산의 제고를 위한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의 발전도 그것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의거하는 것만은 사실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중공업의 발전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는 동시에 전쟁에서 고통 받은 우리 인민의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민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생활 필수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인민 소비품 생산의 계통적 확대 장성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시장의 확대와 그와의 련계의 강화、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의 아낌없는 물질적、기술적 원조가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중공업과 그리고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 객관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경공업 생산이 대규모적으로 확장 증가되였는바 一九五四년 상반년에 비하여 면직물은 一九七%、견직물은 四·二배、내의류는 三·九배、법랑 철기는 五·六배 어획고는 三·三배로 각각 그의 생산이 제고되였다。

생산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시키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오늘 국가 경공업 기업소들과 지방 산업 및 협동 조합 기업소들에서는 제품의 질이 계통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고급 직물、법랑 철기、고무 제품、문방구를 비롯한 각종 식료품과 편직 제품에 있어서 수 많은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고 있으며 원가가 부단히 저하되고 있다。

인민 생활 필수품의 량적、질적 장성 및 원가 저하와 함께 상품 류통의 원활화는 인민 생활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점망을 백방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오늘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점망이 정비 확장되였으며 상품 폰드의 확보와 배정 사업이 개선되고 있으며 상업 경영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이 일층 제고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량이 현저히 장성되고 있다。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배려는 다만 저물가 정책에서만 표현되지 않는다。당과 정부는 전후 얼마 안되는 기간에 근로자들에 대한 주

택 보장과 로동 보호 물자 공급 사업의 강화、로동자、사무원들에 대한 가급금 제도의 실시 등 구체적 대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근로자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一九五四년도에만도 로동자、사무원들은 六만 세대가 새로 주택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六만 六천 세대가 새로 주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문화 시설도 급격히 개선 확장되고 있다。

당과 정부는 근로자들과 그의 자제들의 교육 교양에 막대한 배려를 돌리고 있는바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각급 학교 건물들은 급속히 복구 신설되여 현재 공화국 내에는 四、八〇〇개소 이상의 인민 학교 및 중학교들과 七二개의 기술 및 각종 전문 학교와 一六개의 대학이 사업하고 있다。一九五五년 상반년에 인민 학교 학생 수는 一三九만 三천명、초급 및 고급 중학교 학생 수는 三七만 六천명에 달하며 기술 전문 학교와 중등 전문 학교 학생 수는 二만 五천명、대학생 수는 一만 二천 九백명에 달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二五〇개의 초등 및 중등 학교와 二九개의 전문 학교、四개의 대학 건물들이 신설될 것이며 명년도부터는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될 것이다。

一九五四년도에 九一개의 극장 및 영화관들이 신설、복구되였으며 一九五五년 상반년에만도 二、八二三만명의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이 연극 및 영화를 관람하였다。금년도에 一二、一二五개의 좌석을 가진 五二개의 극장、영화관、구락부들이 신설될 것이다。

또한 인민들의 체력 증강을 위한 보건 위생 시설이 복구 확장되고 있다。정전 후 二년 간에 병원 및 진료소 수는 四백개소 이상으로 되였는바 여기서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무상 치료를 받았다。

금년도에는 一、七五八개의 침대를 가진 一〇개의 병원이 신설되는바 이미 금년 상반년에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침대 수는 一三%、치료 기관、의료 일군 수는 六%가 더 증가되였으며 환자들을 위한 약품 공급은 一一%가 더 증가되였다。

一九五四년도에 로동자、사무원들은 九五六、七二五천원의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에 의한 보조금과 년금을 받았으며 금년 상반년 기간에 휴양소 및 정양소에서 휴양、정양받은 로동자、사무원 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二·二배로 증가되였다。

계통적 물가 인하 정책과 인민들의 사회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시책들은 오직 인민 정권이 수립되였고 중요 산업이 국유화되였으며 그를 토대로 하여 실시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옳바른 경제 정책과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부단한 배려가 베풀어

지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인민 대중의 리익의 옹호、 인민의 물질적 복리에 대한 배려로부터 출발하여 수립되고 실현되는 당과 정부의 정확한 정책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본적 발전 법칙의 과학적 표현이며 오직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중요 생산 수단이 인민의 수중에 있으며 나라와 인민을 새 생활 창조의 길로 인도하는 새 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인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지도가 있는 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이 속에서 조선 인민들은 오늘과 래일의 행복과 륭성을 명백히 보고 있다。 당과 정부 정책 실행을 위한 헌신적 투쟁에서 발휘되는 인민 대중의 창조적 력량、 당과 인민의 통일、 국가와 인민의 리해의 일치——이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 설정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무궁 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으로 된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생산의 부단하고 급속한 장성이 이루어지며 장성되는 생산의 증가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의 끊임 없는 시책이 이루어진다。

* * *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사회의 수요의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리윤 획득에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 과정은 자본가들의 치부를 위한 로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의 련속에 지나지 않으며 소비는 그것이 리윤 획득이라는 목적 실현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자본가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소비는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의의를 상실한다。 수요를 가진 인간은 자본가들의 안계에서 사라진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약간의 생산의 장성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로써만、 그들의 희생의 대가로써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어느 정도 생산이 장성한다 할지라도 인민 소득은 이에 상응하여 장성하지 못하며 결국 주기적 공황과 파괴이며 근로 대중의 끝없는 빈궁화와 실업이다。 여기에서는 물가의 계통적 인하가 아니라 부단한 등귀가 있을 따름이다。 특히 현대 독점 자본주의는 최고 리윤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다수 주민에 대한 착취를 극도로 강화하여 그들을 령락시키며 다른 나라 특히 락후한 나라 인민들을 노예화하고 계통적으로 략탈하며 더우기 인민 경제를 군사화하고 전쟁 도발을 기도한다。

미국에서 제二차 대전전 수개년 간의 회계 년도에서 군사비는 전체 예산 지출의 一四%였다면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감행한 三년 간의 직접적、 간접적 군사비는 미국 정부의 전체 지출의 七五% 이상을 차지하였다。

미국에서 一九五三년 八월부터 一九五四년 八월까지의 一년 동안에만도 생산고는 一○% 이상 축소되였으

며 동기간에 실업자는 二배 이상 증가되였다。

오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동적 통치 하에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으며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자본주의적、 식민지적 착취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공화국 남반부에서 생산의 쇠퇴와 인민 생활의 혹심한 빈궁화의 전형적 실례를 찾아 볼 수 있다。 一九五三년의 남조선의 경지 면적은 一九四五년에 비하여 一五% 이상 감소되였으며 정전 당시 남조선 산업 생산은 총체적으로 전쟁 직전인 一九五○년 六월에 비하여 三분의 一로 저하되였다。 一九五四년도 상반년에 남조선에서의 석탄 채굴량은 一九五三년도 상반년에 비하여 二八% 감소되였으며 고무신 생산은 一九五三년 상반기에 비하여 一九五四년 상반기에 六八%、 비누 생산은 三七% 감소되였다。 금년 三월 八일부 『조선 일보』에 의하면 一九五四년 중에 서울 시내에서만 섬유、 화학、 식료품 등 각 부문의 중소 기업소들 三○八개가 페쇄되였으며 작년 중에 남조선에서 생산된 상품 품종은 三○% 감소되였다。 수 많은 공장들의 페쇄、 생산의 축감과 함께 실업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리 승만 괴뢰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현재 남반부의 실업자 수는 약 二백만명에 달하며 작년말 현재 남조선 소매 물가 지수는 一九五三년 七월에 비하여 평균 二一一% 이상으로 높아졌다。 농촌 경리도 여지없이 파탄되고 있는바 『한국 은행』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一九四○년부터 一九四四년까지 五년 간의 년 평균 수확고가 一、九三七만 여석이였다면 八·一五 이후 一九四六년부터 一九五四년까지 九년 간의 년 평균 수확고는 一、三二七만석으로서 종전에 비하여 三○% 이상 감소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농사를 버리고 농촌을 떠나 가는 농민 수는 一九五四년 중에만도 수만 호에 달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를 받으며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인민 경제의 광범한 분야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리 조국 북반부와 미제와 매국적 리 승만 반동 통치 하에 미 독점 자본주의의 최대한의 리윤 추구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이와 같이 판이한 실정은 스스로 두 제도의 우렬을 실증해 주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여실히 뵈여 준다。

* * *

위대한 민족적 명절 八·一五 해방 一○주년을 맞이하는 조선 인민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지나간 一○년 간의 자기들의 장엄한 투쟁으로써 이루어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비약적 장성과 이와 정비례하여 계통적으로 개선 향상된 자기들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에 고무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달성과 그의 현실적 담보로 되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 과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 더

욱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광활한 전망으로써 가득차 있다。

一九五六년에 가서 우리의 공업 총 생산액은 一九四九년 수준의 一·五배, 생산 수단 생산은 一·三배, 인민들의 소비품 생산은 三배로 각각 장성 될 것이며 一九五六년도 곡물 총수확고는 二九〇만톤 이상으로 제고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민들의 복리는 더욱 증진될 것이며 전체 식료품과 공업 상품의 배급제를 철폐할 조건을 조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一九六一년도에 가서 년산 一六〇만톤의 선철, 八五〇—九〇〇만톤의 석탄, 一八五만 킬로왓트의 전력, 四〇만톤 이상의 비료, 一억 五천만 메터의 각종 직물, 三五〇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인민들은 필수품과 식료품을 풍족하게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은 현저하게 향상 윤택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거대한 전망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킬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적 새 형의 당——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가 있으며 그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정치 도덕적 통일이 형성 발전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一〇년 간의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풍부한 자재 원천과 자연 부원이 있다。 우리의 위대한 사업은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의 아낌없는 원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 자신의, 높은 생산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주인다운 헌신적, 창조적 로력에 달려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생산 장성의 필수 조건이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 없이는 높은 생산을 보장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경제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인민의 수요의 충족과 인민 소득의 장성, 인민의 복리의 부단한 증진을 보장할 수 없다。

현대적 기술과 밀접히 련결되고 있는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의 보장, 이것은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화하며 우리 나라가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며 특히 이 전진 운동의 속도를 더욱 높이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물질적 담보로 되는 것이다。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의 조성과 함께 생산품 원가의 부단한 저하는 공업의 내부 축적의 원천이며 상품 가격 인하의 기초이며 인민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계통적으로 제고함에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제품의 규격과 단위 당 원자재 소비 기준의 철저한 준수, 탐오 랑비 현상의 청산, 국가 자금의 사장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생산 기업소 및 상품 류통 기관

들의 체화 현상의 일소, 생산 및 판매 행정에서 나타나는 비생산적 지출과 비경제적 요소들의 철저한 근절은 원가 저하의 기본 요소로 된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와 생산물 원가의 부단한 저하는 오직 근로자들의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들은 더욱 높은 창조적 로력과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의 달성과 무궁한 륭성 발전을 촉진시키며 인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부단한 배려에 성실하게 보답하자。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 강화를 위하여

오 현 주

우리 당은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창조적 학설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 형의 당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정신과 그의 변증법적 방법에 충실한 우리 당은 자기 력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체득한 고귀한 경험들을 일반화하면서 쏘련 공산당을 비롯한 형제적 당들의 투쟁 경험을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우리 나라의 위대한 혁명의 목적과 그의 실천 활동에 부합되는 현명한 로선을 규정하였으며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여 그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정치적 지도자이다.

조선 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우리 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검열되고 정치적으로 각성된 근로자들의 선진 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조직 망라시키면서 조선 인민을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의 기본 임무는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을 물리치고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의 통일 독립을 완성하는 데 있으며 그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당의 기본 임무는 전체 조선 인민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다.

당은 자기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력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체 조선 인민을 이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되였으며 조선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을 승리에로 고무 추동하는 우

리 당의 지도가 없이는 조국의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은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을 자기의 지혜와 영예로 간주하고 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우리 당에 위탁하고 있다.

우리 당은 실로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당의 일체 활동이 조선 인민의 투쟁과 조금도 분리되여 진행되지 않으며 일정한 력사적 환경 속에서의 당 사업 그 자체가 구체적 현실과 실정에 적응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조직 형태와 사업 방법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줄 아는 수완을 자기의 조직적 구조의 확고 부동성과 결합시키고 있다. 당 활동의 구체적 조건이 달라지고 새로운 과업들이 나서게 되는 때면 우리 당은 그에 적응한 조직 형태와 정확한 사업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당 사업은 그 본질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창조적인 것으로서 그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견결히 배격한다. 한번 규정된 형식과 방법을 영원히 고수하면서 어떤 도식화된 사업 방법을 답습하거나 동일한 수법만을 반드시 리용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고정 불변한 당 사업 원칙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당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새로운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들이 제기되면 당 기관들에는 필연적으로 사업 방법을 이에 적응시킬 것이 요구된다. 당 기관들은 자기가 처하여 있는 각이한 환경과 조성된 실정에 따라 여러가지 범위와 방법으로써 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오늘 우리 당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 문화 및 군사적 제 과업은 무겁고도 어려운 것이며 그것은 온갖 애로와 난관들을 극복 타개하여야 할 복잡한 과업들이다.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당 기관들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지도 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며 일체 활동에서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자립적 조직체로 되게 하며 동시에 전투적이며 창조적인 조직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 당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시기에 대처하여 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것을 강조하여 왔으며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는 당 사업을 관료주의화에로 이끌어 가며 관청식 지도 방법을 당 기관들이 지속하려는 그러한 현상들을 시정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우리 당은 강유력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에 립각하여 조직되고 있으며 지도되고 있다。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당의 조직적 구조의 지도 원칙이다。

우리 당의 조직적 원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하급은 상급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전 당은 중앙에 복종하는 원칙 하에서 당 사업을 한가지 목적에로 향도하며 당의 정책과 실제 사업을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하는 유일한 방향에로 통일 집중시킨다。

한편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유일한 중앙으로부터의 지도를 당 기관들의 자립적 및 창조적 활동과 결부시킨다。

지도가 유일한 중앙에서 나오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한다고 해서 당 기관들의 자립적 및 창조적 활동까지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례하면 생산의 장성과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업과 농업에서의 인민 경제 계획 과제들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함에 있어서나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즉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과업들의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 기관들과 당 단체들、지도 일꾼들과 전체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최대한의 자립적 활동과 창조적 적극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정 지시들에는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따름이며 당 기관들의 구체적인 모든 경우에 대응하는 처리 방법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구체적 실정에 알맞도록 행동하여야 할 일반적 원칙 이외에 여러가지 상세한 면들을 밝혀 주는 것은 곤난한 일이다。

그러므로 당 기관들과 그 지도 일꾼들은 이마 알고 있는 사업 방법과 형식들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해당한 조건과 구체적 실정 하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업 방법과 형식들을 탐구 발견하여야 한다。

최근 당과 정부의 중요 결정 지시들에 기초하여 창발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한 당 기관들의 실례들은 허다히 찾아 볼 수 있다。

실례로 한때 자강도 당 위원회는 전쟁 시기에 생산 기업소들의 분산 소개되였던 원자재들을 회수하며 내부 원천들을 극력 동원할 데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였던 결과에 산하 시、군당 위원회들과 초급 당 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에 의하여 막대한 유휴 자재들을 회수하였고 국가에 수억 수천만원의 리득을 주게 한 사실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산업이 집중된 곳의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과 그의 지도 하에 있는 생산 기업소들의 당 단체들에서의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

한 투쟁 행정에서 발현되는 근로 대중들의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의 지지、높은 로동 생산 능률의 대중적 제고를 비롯하여 특히 주목할만한 것으로서는、후층탄을 채탄함에 있어서 큰 전변을 일으킨 학포 탄광 선진 로동자、기술자들의 새로운 발기의 실현、강철、기계 공업 및 건설 부문들에서의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등 수 많은 창의 고안과 생산 혁신자들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새 것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당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올려 세운 당 기관들과 당 단체들의 창조적 사업의 결과이다。

또한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방침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도、시、군당 위원회들의 창조적 역할도 날로 제고되여 가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지도 사업의 중심을 경지 면적을 확장하며 관개 시설을 개수 확장 하며 농산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제고하며 가축의 생산성과 잠견 생산을 제고시키며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 및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 농민들의 영농 사업을 적극 지도 방조하며 국가 농목장들과 농기계 및 우마 임경소들에서의 국가 계획을 초과 완수하도록 당 조직—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요구를 옳게 포착하고 사업한 함북도 당 위원회는 금년도 영농 사업을 정확히 보장하며 작년도에 혹심하게 입었던 랭해를 이겨내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함북도 당 위원회는 작년 七월 도당 열성자 회의에서 진술한 수령의 교시를 실천하며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며 랭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초에 도내 농산 일꾼들의 기술 꼰페렌찌야를 조직하였다。 도당 위원회는 농산 일꾼들의 기술 꼰페렌찌야에서 제기된 과업 실천과 지난 五월 초에 급격하게 저하된 기후 조건에 적응한 농작물 비배 관리 및 모 이앙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내 농산 지도 일꾼들과 농업 기술자 및 열성 농민들의 협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도당 위원회는 사전에 국영 농장 지배인들과 농업 기사、기수들에게 함북도의 자연 풍토와 기후 조건에 적당한 영농 방법을 연구시키고 그를 협의 회의 석상에서 발표케 함으로써 회의 참가자들에게 자기의 경험들을 광범히 토론 교환하도록 하였다。

협의 회의들에서는 랭해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과 제의들이 제기되여 해당한 결의들을 채택하였으며 채택한 결의에 근거하여 도내 각 시、군들에서는 농업 기술 협의회、좌담회、경험 교환회 등을 조직하고 도당 위원회가 조직한 농업 부문 열성자들의 협의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농민들 속에 광범히 침투시켰으며 그의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강구하였다。

함북도내 각 시、군당 위원회들은 자기 지방의 자연 조건들을 타산하여 내한성이 강한 종자를 선택하며 온갖 자연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할 영농 방법들과 선진 영농 기술들을 도입하며 열성 농민들의 경험과 의견들을 참작하여 금년도 춘기 파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시、군당 위원회들에서의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창조적 사업은 여러가지 면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벌써 일부에서는 조기 작물 수확、중경 제초 사업 등을 끝내는 차례로 수리 불안전 답을 수리 안전 답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방 수축 및 관개 수리 공사 등을 계속 진행하며 전쟁 기간에 피해 당한 경작지들을 복구하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조직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의 산모범들이다。 그러나 모든 당 기관들에서 다 이렇게 창조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당 기관들에서는 사업에서 창조적 성격을 무시하고 문제를 천편 일률적으로 해결하며 낡은 사업 방법에 사로 잡혀 새 것을 보지 못하며 선진적인 것의 맹아를 포착하여 그를 조장 발전시킬 대신에 종래의 관례에 의거하여서만 행동하는 그러한 사업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당 기관들은 사무실적、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당 사업을 지속하는한 당 기관들의 사업은 창조적으로 될 수 없으며 당의 정당한 정치적 및 조직적 제 대책은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실천될 수 없다。

당적 지도가 창조적인 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 기관들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 기관들의 활동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새 사회를 건설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 대중들은 우리 당의 영향의 기본 대상들이며 우리 당은 이들에 의거하여 자기의 정치적 및 경제적 강령을 실현한다。 그런 것만큼 당 기관들은 자기의 능숙한 조직—정치 사업으로써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열성을 계발하며 당과 정부 정책 실현에서 대중의 열성을 동원 리용하며 대중의 경험으로써 자기의 경험을 보충하면서 대중 속에서 꾸준히 사업할 의무가 있다。

사실에 있어서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의 유지 강화、대중의 생활에 대한 깊은 지식의 소유、대중의 요구와 의향을 제때에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할 줄 아는 수완은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을 위한 주요 조건이다。

그러면 당 기관들의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 기관들의 일체 창조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집체적 지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 원칙의 준수는 당 정책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킨다。

집체적 경험과 그의 현명성은 지도에서의 일면성과 우연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고 당 정책을 철저히 또 창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당 기관들의 집체적 지도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당 기관들의 책임 일꾼 자신들이 당의 중요 결정 지시들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그의 기본 정신과 구체적 사업 방향을 당 기관 전체 성원들에게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를 자체 실정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실천할 대책을 강구하는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당 기관내 지도 일꾼들 중에는 당의 중요 결정 지시들을 성실하게 연구하지 않으며 그의 실천에 있어서 무책임한 경향들을 적지 않게 발로시키고 있다。 바로 홍원군 당 위원회 지도 일꾼들이 그렇게 사업하였다。 홍원군 당 위원회 지도 일꾼들은 자기 지방의 형편으로 보아 혁명적 경각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제고하여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반간첩 투쟁을 강화할 데 관한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신중히 연구하지 않았으며 군당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한두번 형식적으로 토의한 데 그쳤다。

당 결정에 대한 이와 같은 형식적 태도가 지배하고 있는 당 기관들에서는 당 기관의 창조적 사업은 고사하고 정치적 지도 기관으로서의 당 기관의 역할까지도 심히 약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당 기관들에서는 집체적 지도 원칙에 립각하여 당 결정 지시들을 심오하게 연구 토의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 위원회들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양되도록 노력하며 채택되는 결정들의 정확성과 실천적 내용을 풍부케 하여야 한다。

집체적 지도 방법은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바 그것은 사람들의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는 지도 방법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집체적 지도의 의의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의 주관적、편견적 의도의 지배를 방지하고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집체적 지도 원칙의 위반은 당 기관의 력량을 약화시키며 창조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일부 당 기관들에서는 전원 회의나 상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현상들이 있다。

전원 회의와 상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 해결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 일군들은 자기를 당원 대중의 우에서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사업에서 광범한 당원 대중들의 창의 창발성에 의거하지 않고 당원 대중의 목소리와 그들의 비판적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행정관』처럼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정치 일군으로서의 품성을 상실하고 있다。

황주군 당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최근까지도 당원 대중들 속에서 당 사업을 집체적 지도 원칙에 의하여 진행하려 하지 않고 명령과 지시만으로써 진행하였으며 당 지도 사업에 당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관료주의적인 사업 작풍을 지속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협동 조합 및 국영 농목장들의 사업 강화를 위한 당적 지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몇몇 일군들의 『강조』와 『독촉』으로써 당의 집체적 지도를 대치하였다。

당 기관 지도 일군들은 해당 당 위원회가 커다란 위신을 가지고 있으며 당 기관들의 선두에는 어떠한 개별적 인물이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체적 지도 기관 즉 당 단체들의 당면 과업들을 향도하며 자기 지방의 정치、경제、문화적 제반 문제들을 지도하는 당 위원회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 사업에 대한 집체적 지도는 다만 전원 회의와 상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는 그것만으로써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회의에서 토의될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보장되며 문제 토의에 있어서의 경험이 옳게 종합되며 정확한 실천 대책이 강구되는 데 있다。

그러나 청단군 당 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에서는 회의 준비에 위원들과 책임 일군들은 거의 동원되지 않으며 보고서와 결정서 초안 작성은 수준이 어린 일군들에게만 위임하며 심지어 작성된 보고서와 결정서 초안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회의에 제기하여 일반적이며 중복되는 결정들을 채택하는 현상들이 허다하였으며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역할은 다만 회의를 구성시키는 데 국한시켰다。

일부 당 기관들에서는 전원 회의와 상무 위원회의 진행 행정에서도 적지 않은 결함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당 기관들은 회의 직전에 토론 내용을 미리 규정하여 주고 있는바 당 위원회 내 일부 지도 일군들 중에는 례사로 회의들의 『분위기 조성』 또는 회의 참가자들의 『열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회의에서 개별적 당원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하라고까지 지정하여 주거나 토론 원고까지 써주는 현상들이 있다。

물론 당 기관 책임 일군들은 회의 사전에 당원들과 개별적 담화를 진행하며 회의에서 토의될 문제

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당원들로 하여금 회의에서 토의되는 문제에 대하여 미리 연구할 수 있게 하며 의견들을 정리하고 제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라는 것을 미리 정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직되는 토론들이 형식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흔히 그러한 토론 내용들은 토의 문제와는 적게 관련된 자체 보고 비슷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문제 해결이 창조적으로 되기는 곤난하다。

당 기관 책임 일군들은 이러한 경향들을 퇴치하며 회의에서 위원들과 당원들이 제기하는 건설적 의견과 제의들을 주의 깊게 대하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오유와 결함들을 제때에 제거하고 창조적으로 사업할 자기의 책임을 옳게 수행하여야 한다。

회의에서 당 기관 책임 일군들이 독판을 치면서 당 열성자들의 의견과 비판적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으며 집체적 지도 원칙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고 행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원들의 진실한 발언들까지도 함부로 막아 버리거나 지루한 연설을 늘어 놓으면서 당 사업의 창조적 성격을 마비시킨다。

실례로 은천군 당 위원회 위원장은 군당 상무 위원회에서 문제를 토의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들과 당 열성자들이 제기하는 내용은 『다 안다』는 것으로서 묵살하고 그들의 토론은 『들어볼 것 없다』는 것으로서 억제하였을뿐만 아니라 통례로 상무 위원회의 폐회에 앞서서는 당 단체들의 『제 과업』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장황하게 늘어 놓고 그 결론에 의해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는 엄중한 사실들이 있었다。

이렇게 채택되는 결정들은 다수 경우에 단지 형식을 갖추며 격식을 차리기 위하여 채택되는 것에 불과하다。

당 기관들이 채택하는 결정들은 당 사업의 외형을 장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정당히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다。

당 기관들의 결정서——이는 곧 당과 정부의 정책을 창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지도 문건이다。 그러므로 당 기관들이 자체 실정과 구체적 자료들의 세심한 연구에 기초하여 사업 경험과 집체적 의사에 의거하면서 옳바르게 작성 채택한 결정서는 문제를 신속 정확히 해결하며 제기된 과업을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데 막대한 도움을 준다。

그러나 결정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 결정을 채택한 다음에는 반드시 결정 실행을 위한 조직 사업이 뒤따라야 하며 그 결정이 해당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창조적으로 실천되도

록 구체적인 산 지도와 방조를 병행시켜야 한다。

그런데 결정 집행을 위한 창조적 지도는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이 현지에서 사람들과의 사업을 진행함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의 현지 지도는 선진적인 경험을 파악케 하며 건설적 의견들을 접수케 하며 사람들과의 사업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당 기관들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지도 일꾼들로 하여금 대중 속에 될수록 많이 나가 있게 사업을 조직하며 광범한 당원、비당원 근로자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호흡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 일꾼들이 대중 속에 더 많이 나가 있으면 있을 수록 그들은 보다 민속히 새로운 것을 감촉하여 그것을 평가하며 또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은 일상적으로 대중과의 련계를 가지고 광범한 당 열성자들과 생산 선구자들에게 의거하는 것은 리용되지 않고 있는 예비와 내부 원천들을 발견하여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준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 사무실적 문서식 방법을 극복하고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지도의 높은 실효성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창조적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일부 당 기관들의 사업에는 사무실적、관료주의적 지도 방법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기간 당 기관들에서의 사무실적 문서식 지도 방법의 뚜렷한 표현은 많은 경우에 불필요한 결정들과 지시들을 채택 람발하는 데서 표현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덕군 당 위원회가 수 많은 결정 지시들을 채택하는 데 급급하고 당 사업을 행정화의 길로 이끌어간 것을 비롯하여 송림시 당 위원회같은 데서는 한번의 상무 위원회에서 분별없이 무려 九건의 결정서를 작성 채택하여 하부에 내려먹인 사실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토의하는 시、군당 열성자 회의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시、군당 위원회 지도 일꾼들은 아직도 사업에서 경험주의를 지속하면서 새 것에 민감치 못하고 낡은 사업 방법에 매달려 각종 문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으며 초급 당 단체들과의 련계와 세포(분세포) 위원장들과 당 열성자들에 대한 방조를 매우 불만족하게 주고 있다는 것이 비판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일부 시、군당 위원회의 부장들은 문서 작성에 얽매여서 현지 지도는 거의 하지 않으며 상무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와 결정서 초안의 작성、당 위원회 계획서와 그의 집행을 위한 지시문의 작성、당 상급에 대한 통보 문건 작성 등등에만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부 실정을 연구할 시간조차

거의 가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일부 당 기관들의 간부 선발 배치 사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제를 능숙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 대신에 결정서나 기타 각종 사무 문서를 잘 작성하는 사무 능수들로 조직부 성원들을 구성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결과이다。 이런데서는 창조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일부 당 기관들이 사무실적 사업 방법을 지속하게 되는 데로부터 증산군 당 위원회에서처럼 정권 기관 사업을 로골적으로 대행하여 나서면서 리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을 대상하여 지시문을 란발하거나 문제 해결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고 오늘 시달한 당 결정을 당장 래일 중으로 초급 당 단체들에서 반드시 토의하라고 강요하는 지시문들을 련달아 내보내는 현상들도 때때로 있다

사무실적 사업 방법은 각종의 번잡한 회의들을 소집하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사실 일부 당 기관들에서는 당 사업은 곧 회의를 소집하고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며 당적 지도 사업의 중요 측면은 각종의 회의나 결정서 채택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하여도 성천군 당 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에서는 당 위원회의 계획서에 각종 회의의 소집만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지도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예견도 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시、군당 위원회들에서는 당 사업을 회의 소집에만 국한시키면서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 검열 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 일반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회의는 당 생활과 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문제는 회의에서 토의하지 않고도 직접 지도 사업을 조직 진행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구태여 회의에 제기하고 장황한 결정서들을 채택 시달해야만 사업이 잘되는 것같이 생각하는 거기에 있다。

제기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 처리할 연구도 하지 않고 곧 회의 소집만을 예견하거나 또 당원들을 당 기관 부서에 호출하면서 현지 지도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 방법은 곧 시정되지 않으면 안될 긴급한 문제이다。

당 기관들이 현지 지도를 옳게 하지 않는 다른 표현의 하나는 책임적 직위에 있는 일부 일꾼들이 현지 지도에 잘 동원되지 않으며 비록 그들이 현지에 나간다 하더라도 회의나 깜빠니야 사업 때에만 유람식으로 동원되는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무실적、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은 당 기관들과 그의 지도 일꾼들을 산 생활로부터 유리시키고 있으며 또 그들로 하여금 행정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여 있다。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은 당적 지도를 일반적 지도에만 치우치므로써 구체적 지도를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생활 및 행동과 한 덩어리가 되여 현지 지도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산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하부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여 그들의 생활을 알며 또 지방 실정에 정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은 사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정형을 잘 알아야 하며 구체적인 지방적 자료들을 연구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당 기관 지도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집된 자료들과 당 단체들로부터 접수한 문건들을 체계적으로 검토 연구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은 항상 하급 당 단체에만 체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이 아무리 장기간 지방 당 단체에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지방 당 단체들의 구체적 정형들을 모주리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은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적응한 창조적 사업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당 통보 사업을 개선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 통보 사업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과 정부 정책들의 실천 정형들과 당 내부 사업 정형들을 관찰하며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새 것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면을 조장 발전시키며 부정적인 면을 시급히 시정하는 사업을 방조함으로써 당적 지도의 기동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것은 오직 통보 사업이 옳바로 진행되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당 통보 사업이 일부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결함들로 말미암아 옳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일부 당 기관들이 당 통보 사업의 의의를 옳게 인식하지 않으며 창조적인 지도 사업에 당 통보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 기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당 통보 사업을 불만족하게 조직 진행하고 있는 당 기관들에서는 흔히 나타난 사실들을 극히 피상적으로 료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분석을 줄 대신에 주관적이며 피상적인 분석을 주며 따라서 구체적 실정에 립각하여 사건들에 대한 예리한 정치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들을 빈번히 볼 수 있다.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은 정치 일꾼인 것만큼 주관적인 것으로써 객관적인 것을 무시하여서는 안되며 피상적인 관찰로써 구체적 실정과 사건의 진상을 그릇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그릇된 평가는 그릇된 결론을 자아 내며 그릇된 결론은 그릇된 행동을 동반한다.

당 기관들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세를 살피고 하부 실정을 연구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생활의 이러 저러한 현상들을 종합하며 자료들을 호상 련관 속에서 고찰하여 그의 공통적인 면과 개별적 사실에서 임의의 현상들의 발전 방향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여러가지 현상들과 구체적 사실들의 분석 종합은 당 기관들의 지도 사업에서 극히 필요한 것이다.

당 기관들이 대중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보다 심오하게 인식하며 당적 지도를 창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료와 사건에 대한 지도 일꾼들의 분석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직 주의깊게 자료를 연구 분석할만한 능력이 있어야만 사물의 본질을 알아 낼 수 있으며 다종 다양한 현상들에 고유한 특성을 해명할 수 있으며 같은 형태의 결함들에도 서로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를 제거하는 방도도 역시 각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리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당 기관들 앞에 제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지도 일꾼들의 새 것에 대한 민감성이다.

당은 항상 광활한 미래를 지향하고 힘차게 전진하면서 매개 당원들을 새 것에 대한 민감성으로 교양하고 있다. 새 것에 대한 민감성——이는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의 고귀한 품성이며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을 강화하는 필수 조건이다.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이 달성한 성과에 자만 자족함이 없이 부단히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면서 사업에서 항상 대중의 창발성과 창조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성과를 달성한다면 그것은 창조적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표식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것에 대하여 민감치 못한 지도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내부에 존재하는 창조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의 전진 운동에 저해를 주며 당과 혁명 사업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사실들은 아직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 것에 대하여 민감치 못한 일부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은 자기의 무식과 부족한 경험을 성실한 학습과 대중의 경험으로써 보충하려고 허심하게 노력할 대신에 옳지 못한 편견과 주관적 견해를 고집하며 나아가서는 대중을 괴롭히고 자라나는 일꾼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 사업과 혁명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새 것에 대하여 민감치 못한 일부 당 기관들과 그 지도 일꾼들과 당원들은 현실 생활에 뒤떨어

지며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난관들을 리해하지 못하고 목전의 사소한 사업에만 몰두함으로써 실무주의자로 전락되거나 정치적 활동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만일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이 실천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생활과 구체적 하부 실정과 새로 자라나는 싹들과 정치、경제、문화 건설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들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그를 심오하게 연구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피코 사업에서 경험주의와 사무실적、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당 기관들이 대중 속에서의 일상적인 산 사업과 생활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써 자체와 지도 일꾼들을 무장시키며 사업 체계와 제도와 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며 그를 적극 추진시킨다면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 경험주의、형식주의、관료주의는 시정될 것이며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은 더욱 높은 단계에로 강화 발전될 것이다。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 성과는 초급 당 단체들의 자립적 활동에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시、군당 위원회들의 지도는 응당 구체적인 산 지도로 되여야 하며 동시에 초급 당 단체들의 활동은 그가 처하여 있는 실정에 적합하게 창조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 특히 시、군당 위원회들은 초급 당 단체들의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립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에서는 하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타산함이 없이 초급 당 단체들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최근 어떤 시、군당 위원회들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초급 당 단체들의 회의 날자를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규격화된 사업 방법을 천편 일률적으로 초급 당 단체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시、군당 위원회의 지시를 다소 변경하여 자기 실정에 맞게 집행하였다 하여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하여 추궁 욕설함으로써 초급 당 단체들의 자립성과 창조적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간혹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은 초급 당 단체들의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까지 지정하여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결과에 일부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당 상급에서 토의 안건을 제시하여 줄 것만 기다리고 있으며 세포(분세포) 총회들을 자립적으로 조직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상부에 대한 하부 일꾼들의 무원칙한 의뢰심이 조장되여 자기 사업에 대한 자주성이 없이 상부에 맹종하면서 초급 당 단체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마비시키며 당 사업의 창조적 역할을 압

살하고 만다。

당 기관들과 그 지도 일꾼들은 초급 당 단체들의 자립적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당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 창조성과 구체성은 경제、문화 건설의 긴급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열성을 제고하며 초급 당 단체들의 자립적 활동을 강화한다。

당 기관 지도 일꾼들은 창조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술한 일련의 문제들에 심중한 고려를 돌리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심오하게 학습하며 그 리론을 당적 지도 사업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창조적 연구는 창조적 사업의 기초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그 리론을 풍부히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는 것은 진정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단련하며 창조적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방조하여 준다。

각급 당 기관들과 그 지도 일꾼들은 자체의 정치—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부문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며 실천적 투쟁 과정에서 체득한 고귀한 경험들을 일반화하면서 일상 생활 행정에서 대중으로부터 배우며 그들을 가르치는 기풍을 수립하며 지난 기간의 자기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사업에서 창조적 사업을 계속 강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 기관들의 창조적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당 사업을 개선하는 필수 조건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필승 불패의 힘

—프리드리히 엥겔스 서거 六〇주년에 제하여—

김 동 훈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사색과 심장 속에 필승 불패의 신념을 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서거한 때로부터 六〇년이 지나갔다.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수령 및 스승이였으며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그는, 레닌의 말을 빌어 말한다면 맑스 서거 이후『전 문명 세계에 있어서 현대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저명한 학자였으며 스승이였다』.

맑스와 함께 엥겔스는 인간 사유의 일체 소산을 혁명적 로동 운동의 경험과 실천에 의거하여 비판적으로 개작 섭취하고 자기들의 학설——맑스주의를 창시하였다. 그들이 창시한 이 학설은 철학, 정치 경제학, 사회주의 사상 발전에 있어서 진정한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을 창조함으로써 력사와 정치에 대한 견해에서 그 이전까지 지배적이였던 혼란과 자의를 놀랠만큼 전일하고 정연한 과학적 리론으로써 교체하였으며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천명하여 놓았다.

맑스와 엥겔스의 전 세계사적 공적은 그들이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의 인류 사회의 이행의 불가피성을 론증한 데 있다. 그들은 현대 사회의 가장 선진적 계급이며 자기 주위에 근로자들의 전 력량을 집결시켜 그들을 자본주의의 공격에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의 전 세계사적 역할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으며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만이, 오직 부르죠아지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 프로레타리아 혁명 및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승리만이 인류를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리라는 것을 뵈여 주었다.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그후 레닌과 쓰딸린에 외하

여 가일층 발전 풍부화되였으며 세계 력사 발전 행정에서,자본의 주권을 반대하는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경험과 오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또 우리 나라 혁명 발전 행정에서 그 과학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뵈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맑스와 엥겔스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들의 불멸의 학설은 전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전투적 기치로 되고 있으며 그들의 백전 백승의 사상은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심장 속에 살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다.

六〇년 전에 브·이·레닌은 엥겔스의 서거에 제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맑스와 엥겔스는 그들의 모든 기대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부단한 성장에 걸고 있었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그들의 힘은 커지며 사회주의는 더 가까워지며 더 가능하게 된다. 간단히 말한다면 맑스와 엥겔스의 로동 계급에 대한 공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은 로동 계급에게 자기 인식과 자기 의식을 가르쳤으며 몽상 대신에 과학을 세웠다고 하였다.

여기에 모든 로동자들이 엥겔스의 이름과 생애를 알아야 할 리유가 있으며…우리가 현대 프로레타리아트의 두 사람의 위대한 스승 중의 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생애와 사업에 관한 개관을 서술하여야 할 리유가 있는 것이다』.

* * *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은 一九세기 중엽,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을 전면적으로 일반화하고 그 이전의 인류가 달성한 모든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섭취한 결과로서 또 온갖 관념론적, 부르죠아적 사회 사상들과의 비타협적 투쟁 속에서 발생 발전하였다.

맑스와 함께 엥겔스는 독일 고전 철학 특히 헤겔 철학의 관념론적 외피를 집어내 버리고 오직 그『합리적 알맹이』만을 비판적으로 취하였으며 또 포이에르밧하의 유물론도 포함한 모든 낡은 유물론(더우기 속류 유물론)의 불철저성과 제한성, 일면성을 극복함으로써 철학에 있어서의 진정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변증법적 유물론을 창조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생과 함께 철학의 사회적 역할과 성격은 원칙적으로 변하였는바 이 철학은 종래의 모든 철학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에다 리론적 근거를 주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낡은 사회를 파괴하고 새로운 계급없는 사회를 창조할 계급으로서 력사 무대에 등장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사명은 부르죠아 제도를 청산하며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보다 높은、계급 없는 사회 제도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바로 여기에 운동、변화 발전에 관한、낡은 것에 대한 새 것의 승리에 관한 유물 변증법의 학설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지향과 리익에 일치되는 리유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맑스와 엥겔스는 철학을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리론적 기초、공산주의 건설의 리론적 기초로 전화시킴으로써 철학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맑스와 엥겔스의 철학은 단순히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대중의 학설이며 그들의 위대한 해방 투쟁의 사상적 기초로、행동의 지침으로 되였다。

선행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철학의 류파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하여 말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이 류파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자연과 력사——를 세계 자체가 관념적인 선입견이 없이 그것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대로 리해하려고 결심하였으며 어떤 환상적인 련결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련결에서 파악된 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관념론적 허구를 무자비하게 매장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유물론이란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류파는 다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신중히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하였다는 것、이 세계관은 철저하게 지식의 모든 연구 령역에——적어도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는——관철되였다는 것으로써 특이하다」。

낡은 유물론의 불철저성、불완전성 및 일면성을 인식한 맑스와 엥겔스는 사회 과학을 유물론적 기초 우에서 재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모든 자연 현상의 기초에 물질적 제 원인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인간 사회의 발전도 물질적 생산력에 의하여 조건지어지고 있다는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그들은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제 대상을 생산함에 있어서 인간이 서로 맺는 생산 제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존한다는 것、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력 발전의 일정한 력사적 단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전한다는 것、그리고 그의 발전 자체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인 사적 소유제를 파괴한다는 것을 밝히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력사 발전에 대한 유물론적 리해 즉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천명한 력사적 유물론을 창조하였다。

력사적 유물론의 창조는 그 이전에 존재하던 력사 리론의 주요 결함을 제거하였으며 사회 력사에 대한 전일적이고 정연한 과학적 리론의 수립을 의미한다。 만일 변증법적 유물론이 사회에 대한 인식에 확장되지 않았더라면、만일 그것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전략과 전술에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철저

하고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력사적 유물론의 창조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없이는、그 일반적 인식론적 기초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맑스와 함께 엥겔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사회 생활의 합법칙성의 인식에 확장함으로써 사회 생활에 관한 진정한 객관적 인식과 력사 발전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위한 완전한 가능성을 주었으며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과학을 건립하고 이 법칙을、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데 적용하였다。 그 후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활동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이 철학은 진실로 행동에의 지침으로 되였다。

력사 발전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맑스와 엥겔스는 계급 투쟁에 대한 과학적、혁명적 리론을 전개하였는바 맑스와 엥겔스는「공산당 선언」에서 종래의 모든 기록된 력사는 계급 투쟁의 력사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부르죠아지와 더불어 또한 불가피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를 낳으며 조직한다는 것、그리고 이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이야말로 인류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구출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비타협적 계급 투쟁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리론은 각국 로동 운동의 확고 부동한 토대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항상 계급적 모순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베른슈타인으로부터 현대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부르죠아 기회주의자들은 계급들 간의 적대적 모순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의 압박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를 해방하는 전술을 천명하였으며 사회주의와 로동 운동은 반드시 결합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엥겔스는 자기의 로작『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에서 로동 계급의 정치적 운동은 사회주의 이외에는 나갈 길이 없으며 타방으로 사회주의는 그것이 로동 계급의 정치 투쟁의 목표로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의 력량으로 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와 로동 운동을 결합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맑스、엥겔스의 그 이후의 로작들에서、그리고 후에는 레닌과 쓰딸린의 로작들에서 더 한층 발전되였다。

독일、영국 및 불란서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및 경제적 생활 형편을 주의 깊이 연구한 엥겔스는 맑스와 더불어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의 승리를 리론적으로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의 사업을 위한 적극적 투사로서 몸소 혁명적 그루빠의 활동에 열렬히 참가하여 프로레타리아트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대하여 온갖 방조를 주었다。 그들의 리론적 사업은 로동 계급의 긴급한 파업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었다。

一八四五년부터 一八四七년에 이르는 약 三년 동안에 엥겔스는 부륫셀과 파리의 로동자들 속에서 실천적 활동과 결부시키면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一八四七년에 『정의자 동맹』은 맑스와 엥겔스에게 동맹의 재조직에 참가하며 대회에서 자기 견해를 정식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 동맹의 맹원으로 되였다。 맑스는 부륫셀에 이 동맹의 그루빠를 창설하였으며 엥겔스는 이 동맹의 파리 단체와 련계를 맺었다。 맑스와 엥겔스의 활동은 드디여 성공하였다。 一八四七년 여름에 열린 대회에서 『정의자 동맹』은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개칭되였는바 그는 자기 앞에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기하였다。

『동맹의 목적은 부르죠아지의 전복、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배의 확립、 계급들의 적대 관계를 기초로 한 낡은 부르죠아 사회의 소탕、 그리고 계급이 없고 사유가 없는 새 사회의 창건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一八四七년 一一월과 一二월 초에 열린 『공산주의자 동맹』 제二차 대회에서 동맹의 선언서를 작성할 위임을 받았다。 독일의 부르죠아 혁명을 앞두고 一八四八년 二월에 과학적 사회주의의 완성을 증시하는 『공산당 선언』이 출현하였다。

의심할바 없이 『공산당 선언』은 과학적 공산주의의 첫 강령적 문헌이며 맑스와 엥겔스가 창시한 학설의 위대한 생활력을 증시하여 주었는바 이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 크지 않은 이 소책자는 가장 광범히 전파된 국제주의적 문헌이며 전 세계 수백만 피압박 대중의 일반적인 전투적 강령으로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이 조그만한 책자는 『몇권의 책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문명 세계의 모든 조직되여 투쟁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또 운동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쓰딸린은 『맑스주의의 노래의 노래』라고 불렀다。 실로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는 선언의 힘찬 호소는 부르죠아 제도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기 위한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 놓았다。

구라파 각국을 휩쓴 一八四八년의 혁명 시기에 조국으로 돌아온 맑스와 엥겔스는 프로씨야 라인 지방에서 발행되고 있던 『신 라인 신문』을 지도하였으며 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一八四八——一八四九년의 엄중한 시기의 중요한 사변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적절한 구호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발생적으로 폭발하는 대중의 투쟁을 지도하였다。

반동 세력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신 라인 신문』이 폐간되고 또 폭동 로동자들이 패배한 후 엥겔스는 一八

七○년까지 만췌스터에서 살았으며 그후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一八八三년 맑스가 서거할 때까지 그들의 공동적인 긴장된 사업은 계속되였다。 위대한 두 학자의 공동적인 정신 생활의 열매로서 맑스는 그의 불후의 로작 『자본론』을 저술하였으며 엥겔스는 수다한 대소의 저작 즉 철학、 자연 과학 및 사회 과학의 령역에 속하는 저작들을 내게 되였다。

엥겔스의 불후의 로작들 중 『반듀링론』은 당시 로동 운동에 해독을 주던 듀링을 반대하는 론쟁적 로작인바 여기에서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취급함으로써 혁명적 맑스주의의 깃발을 고수하였다。 즉 엥겔스의 『반듀링론』은 다만 듀링의 반동적 견해에만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一九세기 七○——八○년대의 독일 사회 민주당의 사상적 동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혁명적 투사들의 많은 세대를 위한 귀중한 참고서로 되였다。

엥겔스의 저작적 공헌과 그의 벗 맑스에 대한 동지적 신의、 그리고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 대한 충실성에 있어서 잊어서 안될 것은 그가 맑스 서거 후 맑스가 완성하지 못한 『자본론』 제二권 및 제三권을 완성하여 출판하는 지극히 곤난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맑스의 유업을 계승 완성함으로써 그의 고우에게 위대한 기념비를 세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의 후세들에게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엥겔스는 맑스와의 四○년 간에 걸친 공동 사업 기간에 있어서와 또 그 이전에 있어서 과학적 사회주의 학설을 완성함에 있어서 거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의 공로를 뒤에 돌리고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의 창시는 전적으로 맑스의 공로에 속한다고 하였다。 『맑스의 재세 당시에는——하고 그는 어떤 구우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썼다——나는 제二 바이올린을 탔다』고 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우정 관계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옛날 전설은 우정에 관한 여러가지 감동적인 실례를 이야기하여 준다。 구라파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들의 과학은 학자이며 투사인 두 사람이 창시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인간적 우정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모든 옛날 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그리하여 맑스와 엥겔스의 이 참다운 동지적 우애의 정신은 그 후 수천 수만의 혁명적 투사들의 우애의 모범으로 되여 있다。

맑스와 함께 엥겔스는 과학 연구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다。 一八六四년에 창건된 제一 인터내쇼날은 그의 창립으로부터 전 활동 기간 맑스에 의하여 지도되였으며 엥겔스도 이 협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들

은 인터내쇼날 내의 바꾸닌, 프루동 등과 같은 반맑스주의적 조류들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인터내쇼날의 공고화와 그의 활동을 확대하며 광범한 프로레타리아트를 그의 주위에 집결시키기에 노력하였다.

제一 인터내쇼날은 맑스와 엥겔스의 지도 하에 보불전쟁 시기(一八七〇—一八七一), 즉 파리 로동자들의 대담한 폭동시에 그가 파리 콤뮨을 지지하여 나섰을 때 커다란 시련을 승리적으로 이겨내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지도 하에 제一 인터내쇼날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파리 콤뮨을 주시하였으며 콤뮨 로동자들을 고무하는 격문을 보냈다.

영웅적 파리 콤뮨 시기의 파리 로동자들의 경험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필수적인 구성 부분으로 된 교훈들을 얻어 내였다. 그들이 얻어 낸 력사적 교훈은 다음과 같다: 『로동 계급은 콤뮨으로부터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로동 계급은 그 어떤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진 유토피아를 인민 결의에 의하여 실현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로동 계급은 자기의 해방을 달성하며 현대 사회가 자기 자신의 경제적 발전의 힘에 의하여 사뭇 지향하는 저 높은 생활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투쟁을 즉 환경도, 사람도 전연 변하는 허다한 력사적 과정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과 정권 쟁취 이후의 프로레타리아트 자신의 발전에 관한 이 현명한 예언의 정당성을 무엇보다도 훌륭하게 실증하는 것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의 계급 투쟁 및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이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제一인터내쇼날은 자기의 력사적 역할을 끝마치고 一八七六년에 해산되였는바 그가 논 력사적 역할은 실로 거대하다.

이에 대하여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 一八九〇년 독문판에 대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물론 인터내쇼날 자체는 겨우 九년 밖에는 존속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터내쇼날에 기초한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영원한 동맹은 아직도 살아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하게 되기까지 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훌륭히 증명되고 있다. 왜냐 하면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서구라파와 미국의 프로레타리아트는 하나의 당면 목적을 위하여: 한 군대로, 한 기치 밑에 처음으로 동원된 자체의 전투적 력량을 검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광경은 만국의 프로레타리아들이 이제는 실제로 단결되고 있다는 것을 만국의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뵈여 줄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구라파와 아메리카에서의 혁명적 로동 운동의 발전만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것이 아니라 로씨야에서의 혁명 운동에 대하여서도 크나큰 관심을

가졌으며 로씨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일련의 론문들도 썼다. 一八八二년에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 로문판에 대한 서문에서 『…로씨야는 구라파 혁명 운동의 선봉 부대로 되고 있다』고 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씨야에서의 정치적 혁명이 서구라파 로동 운동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맑스가 서거한 후 엥겔스는 제二 인터내쇼날을 창건 및 지도하였으며 전 구라파 사회주의자들의 공인된 수령 및 지도자로 되였다. 로씨야 혁명가들도, 독일 사회 민주주의자들도, 서반아 및 루마니야의 사회주의자들도 그에게서 지시를 받기를 원하였다.

엥겔스는 一八九五년 八월 五일 런던에서 서거할 때까지 자기의 혁명적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로동 운동내에서 생긴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였다.

* * *

맑스와 엥겔스의 불패의 학설은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새로운 력사적 조건 하에서 맑스주의의 원쑤들과 각양 각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가일층 발전되였으며 풍부화되였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맑스주의이다』 (이•브•쓰딸린)。

레닌과 쓰딸린은 맑스주의 학설의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이 학설의 실천가이며 새 조건 하에서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맑스주의의 보물고에 새로운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 기본 특징들과 발전 법칙들을 천명하였으며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을 론증하였다.

쓰딸린은 이 리론을 인민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 속에서 고수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들을 쏘련에서의 승리적인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확한 전망으로써 무장시켰다. 레닌과 쓰딸린은 새 형의 맑스주의 당에 관한 정연한 학설을 창시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학설을 풍부히 하고 가일층 발전시켰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쓰딸린은 레닌주의의 제 문제를 발전 풍부화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정연한 학설과 과도기에 있어서의 계급 및 계급 투쟁에 관한 학설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에 관한 명제 및 사회주의 사회의 추동력에 관한 명제를 확립하였으며 민족 문제,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 식민지 문제를 전면적으로 연구 발전시켰다. 자기의 마지막 로작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 문제』에서 쓰딸린은 전체 자본주의 체계의 일반적 위기의 새 단계를 심오하게 분석하

였으며 사회주의의 및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들을 천명하면서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 강령을 수립하였다.

쓰딸린은 백년래의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과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주의를 자연 및 사회의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혁명에 관한 과학, 각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과학,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관한 과학으로 규정함으로써 맑스주의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내리였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레닌과 쓰딸린의 지도 하에 쏘련 인민이 달성한 모든 빛나는 성과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불패의 위력과 위대한 창조적 힘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세계에는 맑스—엥겔스—레닌—쓰딸린의 사상의 승리적 전진을 저지할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九억의 인구는 벌써 낡은 자본주의 세계와 영영 관계를 끊고 강력한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에로 단결되였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자본주의의 철쇄에서 해방된 인민들에게 필승 불패의 위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력사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자기의 장래 발전의 길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자본주의 제국의 인민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에서 자기의 해방을 찾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우리 나라에서도 백전 백승의 불패의 위력과 빛나는 창조력을 뵈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전파는 일제하에서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우리 나라 혁명 투사들의 대오를 장성, 결속시키면서 민족 해방 투쟁에 보다 높은 조직성을 부여하였으며 그를 고무하여 주었으며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후에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실천적, 지도적 사상으로서 우리 인민을 행복한 장래에로 인도하였으며 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창건된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성격과 기본 임무를 옳게 규정하고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따르는 당의 로선 및 정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자기 앞에 제기되는 어렵고도 복잡한 수다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와 조국 해방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또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 및 성과들은 과학적, 혁명적 학설인 맑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그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이 리론의 생활적

위력, 그의 변혁적, 창조적 위력을 발양시킨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당이 지나온 기간에 능히 승리를 얻게 된 것은 그가 자기의 전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거한 때문이며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의 물질 생활 발전의 요구를 정당히 반영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능히 전진 운동에 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의 당인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방법론을 우리 조선 현실에 부합되게 실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하에,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조선 인민은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는바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과업 수행과 더불어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습득은 너욱 긴절히 요구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사상, 프로레타리아트적 계급 의식을 적극 배양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우리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하여 창건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정신은 관료주의적, 기계적 방법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이다. 생생한 창조적 사회주의는 가장 광범한 인민 대중의 창조이다』(레닌). 때문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하는 길에서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가일층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사회주의 사상과 계급적 의식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의 자기의 보고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사업 특히 당내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제기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학설과 제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연구하며 당원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 사업을 실지 우리 나라의 생동적인 현실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 현실에 결부하여 연구하며 이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의 매개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 전투적인 과업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 특히 당내 계급적 교양 사업에서 나타난 교조주의, 형식주의, 도식주의적인 일체 부정적 경향을 극복하고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당의 로선 및 정책을 철저히 그리고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제기된 과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한 사람같이 궐기하여야 한다.

오늘 이러한 력사적 시기에 맑스주의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엥겔스 서거 六〇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의 생애와 업적을 더듬어 위대한 스승이 남겨 놓은 과학적, 리론적, 혁명적 교훈을 창조적으로 습득하기에 더욱 많은 정력을 경주하자.

미제의 경제『원조』와 남조선 산업의 파탄

홍 석 종

지금으로부터 一〇년 전에 조선 인민은 영웅적 쏘배트 군대에 의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에서 해방된 조선 인민은 드높은 환희와 투지로서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한 사람같이 나섰다.

그러나 패망한 일제를 대신한 미제의 침략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은 인공적으로 분렬된채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였으며 남반부 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침략적,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암담한 식민지 노예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아세아에 대한 침략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 조선에 커다란 군사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여 온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혹독한 정치, 군사적 예속과 아울러 경제적 략탈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미제는 남반부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에 항거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운동을 억제하며 온갖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들을 탄압 말살하는 한편 조선 민족을 분렬시키며 자기들의 식민지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동 세력——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을 규합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조선의 민족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며 전략 원료들을 략탈하며 남조선을 미국의 잉여 상품의 유리한 판매 시장으로 전락시키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 침략자들의 경제적 예속화 정책은 조선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 강점 및 전쟁 도발 계획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비행장, 군항, 군용 도로들을 공공연히 신설 확장하였으며 남조선의 공업, 농업, 대외 무역, 금융 등 경제의 모든 부문을 자기들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미국의 군수 경제의 수요에 완전히 복종시켰으며 또 시키고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에 있어서도 미제의 경제적 략탈 정책은 소위 락후한 국가에 대한『원조』라는 허울 좋은 장막 뒤에서 감행되고 있다. 이미 그 정체가 백일 하에 폭로된 바와 같이 미국의『원조』는 그것을 받는 나라와 그 나라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을 추호도 고려함이 없이 도리여 그 나라 인민들을 빈궁과 파산에로 몰아 넣으면서 그 나라 경제를 가혹하게 략탈하여 월가 독점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초과 리윤을 보장해 주는 가장 파렴치한 수단이다. 미제가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경제『원조』는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 지배층들의 전반적 침략 계획에서 가장 주되는 경제적 침략 임무를 수행하는 음페된 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지난 一〇년 동안의 남조선 경제 형편에서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식민지 국가에서 노는 파멸적인 역할과 미국 독점체들이 최대 리윤을 짜내는 가장 파렴치한 방법들을 똑똑히 본다.

* * *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 진주하자 즉시 소위 군정 법령 제二호를 발표하여 일제 기관 및 일본인의 소유였던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선포하고 단시일 내에 회사, 조합을 비롯하여 공업, 광업, 상업, 금융업 등 二四개의 기본적 산업 부문을 망라한 남조선 전체 재산의 八五% 이상을 움켜 쥐였다.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완전히 장악한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미국 잉여 상품의 소비지로, 예속된 판매 시장으로 만듦으로써 자국 내에서 격화되고 있는 경제 공황의 무서운 부담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넘겨 씌우기 위하여 남조선 공업을 계통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원료들과 공장 설비들을 략탈하여 가며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을 파괴하며 페쇄시켰다. 남조선 공업의 파괴는 우선 공장들의 급격한 감소에서 뚜렷히 나타났다. 一九四三년에 남조선의 공장 수가 一만 六五개소였다면 一九四九년 여름에는 三천 六백 二三개소로 즉 三六%로 감소되였다. 남아 있는 공장들도 명목상의 숫자에 불과하며 그중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운영된 공장들마저 수입한 반제품의 가공 공장이나 또는 수입한 미국 원면과 생고무로 반제품을 만드는 방직, 화학 공장들 뿐이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의 기계 공업을 무엇보다도 먼저 파괴하였다. 그것은 미제 침략자들이 자기들의 막대한 잉여 상품을 남조선에 팔아 먹기 위한 술책에서부터였다. 一九四五년부터 一九四八년까지에 철도、

체신 및 광업 기자재、자동차 및 그 부속품 등을 미국에서 수입한 것은 三천 二백 여만 딸라에 달하며 이외에도 적지 않은 수량의 일본 기계가 미국 상사들을 통하여 남조선에 수입되였다。 이러한 결과 남조선의 기계 공업은 오직 기계류의 수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채굴 공업에 있어서도 사태는 동일하다。 해방전 남조선의 광산 기업체 수는 六五〇개소이였는 데 一九四七년 말에는 겨우 六六개로 즉 九〇% 이상이 감소되였으며 같은 기간에 광구 수는 四천 五백 八二개소이던 것이 一천 一一九개소로 즉 二二%로 감소되였다。 채굴 공업 생산량도 급속히 저하되였는바 남조선『경제 년감』및『한국 은행 조사 월보』의 자료에 의하면 금은 一九四二년도에 비하여 一九四七년도에는 三·三%로、一九四九년도에는 二·五%로 각각 저하되였다。 은은 一九四二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에는 九·七%로 감소되였다。

이 반면에 중석、흑연 등 미국 군수 공업에 필요한 원료 부분의 생산량은 증가되였다。 그중 중석은 一九四二년에 一、〇一九톤이던 것이 一九五三년에는 七、四四一톤으로 증가되였다。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이 해방후 수다한 광물 재고를 거의 미국으로 실어갔으며 일반 광물 원료 채굴을 의식적으로 파괴하여 공업 발전을 저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수 공업에 필요한 특수 광물에 대한 자기들의 독점을 발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뵈여 준다。

미제 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정책은 남조선의 민족 산업을 질식시킨 다음 남조선을 미국 독점체들을 위하여 유리한 원료 공급지로、잉여 상품 시장으로 만들려는 기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미제의 팽창 정책의 략탈성은 남조선 무역에 대한 독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민족 경제의 파멸과 전반적인 산업 파괴의 기초 우에 원료 자원의 수출과 상품 판매를 위한 독점적인 식민지적 략탈 무역을 설정하여 남조선의 예속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무역에 대한 독점적 관리 체계를 일찍부터 확립한 미제 침략자들은 미국『원조』상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남조선 화폐에 대한 딸라의 략탈적 환산률의 설정 등 온갖 특혜적 조건으로 남조선에 대한 야만적 략탈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남조선 무역의 특징은 수입이 수출보다 엄청나게 많으며 미국 경제에 완전히 의존되여 원료 수출과 미국 상품 수입으로 일관되여 있다는 점이다。 一九四五년부터 一九四九년까지의 수출 총액은 八四억 二천 三七四만 五천원이며 수입 총액은 一백 一二억 三천 五四五만 七천원으로 되였으며 수입 초과액은 二八억 一천 一七一만 二천원으로 되였다。

一九五四년 수입 총액은 七、七八三만 一、二九八딸라

九센트인데 수출 총액은 二、五九一만 一、八九八딸라 八센트이며 특히 一九五五년 一월부터 一九五五년 六월까지의 수입 총액은 三、五二九만 七、〇〇〇딸라 인데 수출 총액은 八八八만 六、〇〇〇딸라에 불과하다。

남조선 경제는 막대한 수입 초과로만 파탄된 것이 아니라 수출입 종류에 의하여서도 그 파탄이 촉진되였다。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강요된 수입 물자의 八〇% 이상은 잡화、소비 자재、화장품 등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는 완제 소비품들이며 수출품의 절대 대부분은 중석、흑연、동、연 등 희귀한 광석류와 미곡 등 산업 부흥과 민족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료품들이다。

산업 생산과 상품 류통의 전면적 파탄은 급격한 통화 팽창、신용 체계의 마비、물가 폭등 등 전 금융 부문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정 예산에 있어서 수입의 원천인 생산이 전면적으로 파탄된 남조선에 있어서 미제는 과도한 지출을 지폐 란발로써 미봉해나가고 있다。 남조선의 통화 발행고는 다음과 같다。

(단위 一〇〇만원)

一九四五년	八월(평균)	六、〇二〇
一九四六년	一二월(〃)	一六、五七四
一九四七년	一二월(〃)	三三、三四三
一九四八년	一二월(〃)	四二、〇八九
一九四九년	一二월(〃)	七一、三八一
一九五〇년	一二월(〃)	一九〇、四四一
一九五一년	一二월(〃)	五四一、九三六
一九五二년	一二월(〃)	九七三、一九五

(단위 一〇〇만환)

一九五三년	一二월(〃)	二二、〇八四
一九五四년	一二월(〃)	三九、五八四
一九五五년	一 월(〃)	四一、五二六

이러한 통화 란발은 상품 가격의 급격한 폭등과 실질 임금의 저하를 초래하여 인민 생활을 파탄시켰으며 신용 체계의 전면적 마비와 계속되는 화폐 구매력의 저하로 생산의 중지와 중 소 상공업의 파산을 촉진시켰다。 통화 팽창과 재정 혼란에서 돈벌이 한 자는 지주、예속 자본가、고급 관리들 특히 미제 침략자들인바 그들은 경제적 혼란을 기화로 대규모적인 투기 활동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남조선의 광범한 주민들은 심각한 빈궁에로 전락되였다。

한편 미제 략탈자들은 남조선에 대하여 소위『원조』와 차관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소위『원조』와 차관은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팽창 정책의 두개 측면에 불과한 것이니 미제 침략자들은 허울 좋은『원조』와 차관을 통하여 남조선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였다。

『원조』의 명목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터없이 비싼 독점 가격인 것은 물론 그 물자의 판매 대금을 사용처분하는 권리는 미 국무성이 장악하고 그들이 추구하

는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였으므로 『원조』 물자의 수입이 남조선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관리하는 지배적 경제력으로 등장될 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의 근본적 토대로 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三년 간의 군정 기간에 남조선 경제의 대부분을 파괴 강탈하고 방대한 수량의 미국 잉여 상품을 수입하여 남조선 경제를 불구화시킨 다음 리 승만 괴뢰 정권을 만들어 식민지적 예속 경제의 영구화를 목적으로 一九四八년에 리 승만 괴뢰 정권과 체결한 『한미 협정』과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이 무엇보다도 잘 증명하여 준다. 이 두 조약은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종주권 설정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제국주의의 본질을 명백히 폭로하였다.

『한미 협정』에는 『재산 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진 한국에 있는 재산 및 첨부물의 취득 소유권을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이전함』이라는 것을 비롯하여 미 군정 기간에 생긴 어떠한 사실이라도 기정 사실로 인정하며 미군 주둔에 필요한 토지, 건물의 무료 사용과 그 유지비, 인건비 등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여 있다.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은 더 한층 로골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폭로한 것인데 그에 의하면 자원의 처리와 생산 및 배급 통제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통화 발행권과 재정 및 신용 통제, 외국 위체 거래, 일체 수출입의 통제, 국내 미곡의 강제 수집과 미국 잡곡의 의무적 배급에 이르기까지 남조선 경제의 모든 부문의 통제 관리권을 워싱톤 정부가 장악하게 되여 있다. 심지어는 남조선에 파견된 미국 상인들의 사무원에 이르기까지 외교 사절의 특전을 부여하게 되여 있으며 남조선에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 고무 정책을 자유로 선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방적인 『협정』인 것이다.

남조선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문자 그대로 송두리채 틀어쥔 미제 침략자들은 더욱 더 많은 리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一九五〇년 六월 二五일 조선에 대한 범죄적인 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는 전쟁으로서 북반부의 풍부한 자원과 나아가서는 아세아 대륙에까지 자기들의 탐욕적인 마수를 뻐치며 무제한한 략탈을 감행하려고 망상하였던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一九五〇년 六월 二五일부터 동년 一〇월까지 불과 四개월 동안에 남조선의 기계 공업 二五%, 화학 공업 一八·五%, 섬유 공업 四二%, 식료품 공업 三一·七%를 폭파, 파괴 또는 소각하였다. 미제는 전쟁 도발 초기에 남조선에서 실로 五〇개의 도시와 一만 二천 四六〇개의 촌락들을 파괴, 소각하는 동시에 서울 지구에서만 七八五개의 공장과 기업소들을 파괴하였으며 인천 지구에서만도 공업 시설

의 九〇%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一九五三년 七월 정전 당시의 남조선 산업 생산은 전쟁 직전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二분의 一로 저하되였다. 정전 후 二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남조선 공장 복구 공사는 눈에 띠우는 것이 없으며 더우기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제품 생산은 정전 당시보다 一九五四년에 와서는 더욱 감소되고 있다. 一九五四년도 상반년에 남조선에서의 석탄 채굴량은 一九五三년도 상반년도에 비하여 二八% 감소되였으며 고무신 생산은 六八%, 비누 생산은 三七% 감소되였다.

일제 통치의 결과로 극심한 식민지적 편파성을 가지고 있던 남조선의 산업은 미제의 파괴로 말미암아 더욱 큰 기형성을 띠게 되였다. 一九四〇년도의 생산액을 보면 금속 및 기계 공업은 남조선 전 생산량의 〇·七%, 화학 공업까지 합하여 二〇%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마저 절멸 상태에 있다. 그리고 금속 공업은 일제 시대에는 각종 제품 약 一三만톤의 년 생산고를 내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겨우 약간의 못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며 기계 공업은 현재 잡다한 전기 기구의 생산에 그치고 있다.

❊ ❊ ❊

정전후 미제 침략자들은 전쟁 기간에 혹심하게 파괴된 남조선의 산업 시설을 『부흥』하며 혼란된 남조선 경제 형편을 『안정』시킨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경제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실들이 확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의 『원조』는 남조선의 민족 산업을 더욱 더 혹심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남조선의 일체 경제 활동을 자기들의 침략 전쟁 재도발을 위하여 복무시킬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제 침략자들은 정전 직후 남조선을 극동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항구적인 침략적 군사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리 승만 역도와 더불어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一九五三년 一二월에는 남조선 경제를 군사적 목적에 완전히 복종시키며 남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을 더욱 로골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체계에 관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는 남조선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원조』 물자의 도입 및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실질적으로 남조선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미제는 딸라와 남조선 화폐의 교환률을 수시로 책정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괴뢰 정부의 재정과 금융을 예속화하며 그의 체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정전 이후 남조선에 대한 자본 투하를 로골적으로 획책하는 길에 들어 섰다. 미제 침

략자들은 리 승만 역도에 지시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 경제 체제』를 수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 독점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의 길을 열게 하였으며 『외국 자본 도입법안』, 『외국인 영업법안』 등을 조작케 하여 미국 자본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남조선 경제의 모든 부문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조선에서 획득한 리윤을 간단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부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한 미제 략탈자들은 리 승만 역도로 하여금 남아 있는 적산을 모주리 불하하도록 명령하였다. 미국 상전의 지시에 의하여 리 승만 역도는 전 일본인 소유였던 공장, 광산, 주택, 은행, 회사 등을 불하하고 있으며 그것도 미제 침략자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여러가지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소위 적산 불하를 서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목적은 비단 남조선 산업의 중심 부문을 월가 독점 자본가들 손에 넘겨 주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산을 분산 파괴함으로써 산업과 나아가서는 농업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저해하는 기본 조건을 만들며 또한 미국 식민지 정책을 지지하는 매국 도당들의 경제적 온상으로 만들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허울 좋은 『원조』는 파괴된 남조선 산업의 복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두 철미 더 많은 략탈과 착취를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례로 남조선에 도입되는 『원조』 물자의 거의 전부가 비싼 밀가루, 취약, 담배, 포장용 철사, 화장품 등 남조선에서도 많이 생산되거나 또는 인민 생활에 긴급히 필요되지 않는 소비품, 사치품들이며 건설용 자재는 극히 적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이를 잘 증명하여 준다. 지난 三월 八일부 『합동 통신』에 의하면 一九五四년 七월부터 一九五五년 二월 말까지의 八개월 동안에 二억 八천 三백만 딸라 중 五%에 불과한 一천 四백 二六만 七천 八백만 딸라의 『원조』물자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도 복구 건설을 위한 기자재는 전혀 포함되여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소비품만인 『원조』 물자도 미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二—三배의 비싼 값으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례로 전체 입하액의 二五%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가격은 국제 시장 시세가 톤 당 一二—一五딸라인데도 불구하고 미제는 남조선에서 三〇—三五딸라로 강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괴뢰 정부『공보실장』 갈 홍기까지도 금년 二월 六일부 자기 성명에서 배당된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 석탄을 사게 되면 一백 四三만톤을 살 수 있는데 미국 석탄을 사기 때문에 七〇만톤 밖에 구입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 침략자들은 딸라와 남조선 화폐의 교환률을 높임으로써 『원조』 물자 가격을 올리려고 흉책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남조선 산업을 파괴 략탈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는 새 전쟁 준비에 복무하고 있다. 미제는 리 승만 괴뢰군을 증강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외에 소위 경제적 『원조』라는 명목으로 들어 오는 미국 잉여 상품의 판매 대금을 리 승만 괴뢰 정부에 넘기여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一九五三년 四월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아이젠하워의 특사 타스카는 『대한 원조의 기본 목적은 한국의 방위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데 있다고 로골적으로 성명하였던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의 략탈 정책의 강화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의 민족 산업은 나날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전쟁 기간에 겨우 살아 남은 중소 공장들마저 생산은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있다. 『서울 신문』에 의하면 一九五四년 一년 동안에 서울 시내에서만 三백 八개의 공장들이 폐쇄되였다. 이와 함께 생산 품종도 감소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미국 상사들과 미국의 추종 국가 상사들은 늘어가고 있으며 그들은 미군의 보위 하에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 금년 四월 二一일부 『조선 일보』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는 一五五개의 외국 상사들이 있는데 그의 대부분은 등록 수속도 하지 않고 있으며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남조선 무역계를 비롯하여 경제 전반을 롱락 조종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자금과 락후한 기술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 민족 자본가들은 미국 상사들과의 경쟁에 견디여 내지 못하고 꼬리를 물고 파산되고 있다. 더우기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역도는 그들에게 원료를 융통하여 주지 않으며 여러가지 제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그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금년 三월에 리 승만 괴뢰 정부 『상공부』에서는 一년 간의 무역 실적이 一만딸라 미만인 상사들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三五〇여개의 조선인 무역 상사들 중에서 최소 一백개 내외의 중소 상사들이 파멸 몰락되였다.

미국 양복감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남조선에서 근소하게 생산하고 있는 모직물도 생산을 축소하게 되였으며 심지어 남조선의 도자기업자들까지도 외국 도자기의 수입 때문에 수공업적 생산마저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의 중소 상공업자들은 리 승만 역도들에게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의 파탄을 구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리 승만 역도들은 이 요구에 수응하지 않고 있다.

산업 생산의 급속한 위축과 파괴 및 미국 『원조』 물자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그리고 망국적인 입초 무역의 강행 등은 남조선 경제를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고 있다. 악성 인플레는 계속 격화되고 물가는 천정 부지로 폭등되고 있다.

서울에서 보도한 『합동 통신』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

의 물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一九四七년	一〇〇
一九五〇년	五三一
一九五一년	二、八二二
一九五二년	六、五七四
一九五三년	八、〇三〇
一九五四년 一〇월	一三、四七二
一九五五년 六월말	一五、一一〇

남조선의 총 『국민 소득』은 一九四七년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五一년에는 이미 四三으로 격감되였다. 더우기 三년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산업 및 농촌 경리의 파괴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국민 소득』은 보잘나위 없이 줄어 들었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심각한 불안과 빈궁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약 二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수 많은 전재민들이 기아에 신음하고 있으며 생활고에 못이겨 범죄자와 자살자가 늘어가고 있다.

* * *

이상과 같은 남조선의 경제 형편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민족 경제를 혹심하게 파괴하였으며 사실상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전변되였다는 것,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 대륙에 대한 침략적 군사 기지로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원조』는 자기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도구로 되여 있다는 것,

남조선의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은 미국 침략 세력의 동맹자로 되고 있으며 근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의 저하와 전대 미문의 공포 테로 통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의 직접적 결과이라는 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강요된 이러한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북반부에서 찬란히 복구 건설되고 있는 인민 경제의 모습을 우러러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조선 인민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광명하고 광활한 길을 찾고 있다. 그들은 조선 인민에게 주는 위대한 쏘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의 사심없는 원조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원조만이 조선 인민의 행복과 리익에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략탈 계획을 더욱 명백히 깨닫고 있으며 자기들의 생활이 미제 침략자들의 통치 하에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미제 침략 군대를 몰아내고 리 승만 역도를 더욱 고립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속히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광범히 참가하고 있다.

끈술따찌야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화 발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

한 영 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화 발전에 관한 리론은 제국주의의 력사적 조건에서 레닌에 의하여 체계화되였다.

레닌은 이 리론을 작성하면서 맑스와 엥겔스의 계속 혁명의 사상에 의거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一八五〇년 『공산주의자 동맹에 보내는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에서 혁명적 민주주의 요구를 렬거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쟁취하라고 호소하면서 계속 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주의적 소부르죠아지는 최선의 경우라야 상기의 요구들을 실현함으로써 되도록 급속히 혁명을 종결시키려고 원하는 반면에,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의 과업은 모든 대소의 유산 계급들이 지배권으로부터 배제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트가 국가 권력을 쟁취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의 련합이 一국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유력한 나라들에서 충분히 발전하여 그 결과 이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들 사이의 호상 경쟁이 없어지게 되고 적어도 결정적인 생산력이 프로레타리아의 손에 집중될 때까지 혁명이 계속적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 (『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제一권 一분책 一七一페지).

그러나 엥겔스가 강조한 바와 같이 당시에 있어서 구라파 대륙의 경제 발전 상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제거할 수 있을만큼 성숙되기에는 아직 멀었던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시기에 있어서의 부르죠아 민주주의

의 혁명의 특성을 해명하면서 그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화 발전에 관한 정연한 리론을 작성하였다。 레닌의 이 리론은 그의 로작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 민주당의 두가지 전술』(一九〇五년)에서 처음으로 천명되였으며 그후 로작들에서 발전되였다。

* * *

레닌은 제국주의 하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혁명 간에 부르죠아지의 지배의 시기가 놓이는 것이 필연적이 아니며 전자의 후자에로의 계속적 이행이 십분 가능하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첫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였던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을 고찰하면서 그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적 이행의 가능성은 로씨야에서의 자유주의 부르죠아지의 반동성、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야의 가능성에 의하여 규정지어진다는 것을 가르쳤다。

一九세기말 二〇세기초 짜리 로씨야에서 성숙된 혁명은 부르죠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혁명의 과업은 짜리 전제 제도의 전복、민주 공화국의 수립、로동자들을 위한 八시간 로동제의 실시、농촌에서 농노제의 모든 잔재의 숙청、지주 토지 소유제의 철폐 등이였다。 이 과업들은 아직 정치에서나 경제에서 직접 자본주의 관계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았던만큼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사회—경제적 내용으로 보아 부르죠아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혁명은 자본주의 상승기에 진행된 부르죠아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혁명의 적인 지주들과 짜리즘의 리해는 로씨야 및 서구라파 제국주의의 리해와 밀접히 엉키여 있었다。 이 사실은 지주들과 짜리즘을 반대하는 투쟁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향해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런 사정은 제국주의 시기에 진행되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 구성을 자본주의의 초기에 진행된 부르죠아 혁명에서의 동력 구성과 달라지게 조건지였다。 자본주의의 초기에 있어서 부르죠아지는 혁명적이였으며 혁명의 철저한 투쟁을 위하여 적극 참가하였다。 당시 로동 계급은 량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정치적 세력으로 형성 못되였다。 그러므로 그 시기의 부르죠아 혁명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지가 지도적 역할을 놀았고 로동 계급은 부르죠아지에게 리용되였다。 로동 계급은 아직 자기의 독자적 요구를 들고 나서지 못하였다。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이 극도로 첨예화되며 로동 계급이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상히 장성된 제국주의의 조건에서 부르죠아지는 봉건 세력보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더 두려워하게 되였다。 부르죠아지는 봉건 관계의 철저한 청산을 요구하지 않

을 뿐더러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 대중의 민주주의적 운동을 반대하여 봉건 세력과의 야합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레닌은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심오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 하에서 부르죠아지는 그 계급적 리해로 말미암아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철저한 승리를 원치 않으며 따라서 그 혁명의 령도자로 될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가르쳤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령도권은 부르죠아지의 수중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으로 이행된다고 론증하였다。

레닌은 로동 계급이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 적극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멘쉐위크들의 기회주의적 견해를 론박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 적극 참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혁명에서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론증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기의 로동 계급의 력량을 평가하면서 로동 계급에게 일반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령도적 역할을 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프로레타리아트가 자신의 처지로보아 가장 선진적이며 유일하게 철저한 혁명적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프로레타리아트가 과학적 혁명 리론으로 무장한 맑스—레닌주의 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당의 지도 하에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지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된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결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혁명에서 령도적 역할을 놀자면 두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그것은 인민 대중에 대한 (주로 농민에 대한) 지도에서 부르죠아지를 제거하며 농민과의 튼튼한 동맹을 형성하는 조건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자면 이 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해결하는 무기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주권의 창건이 요구된다。 레닌은 그러한 주권으로써 로동자、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가 필요하다는 명제를 제기하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독재는 로동 계급의 지도 하에 이 계급들의 동맹과 협력에 기초한 주권이다。 이 주권은 로동자、농민이 『합법적』、『평화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로동자、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는 혁명의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성격으로부터 출발하는 일정한 과업과 직능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이 독재의 과업은 혁명에 의해서 쟁취된 것을 공고히 하며 반혁명 세력의 저항을 억압하며 봉건적 소유를 청산하며 농민에게 토지를 넘겨 주며 제반 민주 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의 독재 하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철저한 해결을 보장한다。이와 동시에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은 자본주의 폐지의 준비를 보장한다。 레닌이 로동자와 농민의 독재를 필요로 한 것은 짜리즘에 대한 혁명의 승리를 완성하고 여기서 혁명을 끝마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한한 혁명적 상태를 더 연장시키며 반혁명적 잔재를 철저히 소탕하며 그리하여 그 동안에 프로레타리아트를 정치적으로 교양시키며 또 강대한 군대로 조직시킴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에의 직접적 이행을 개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레닌은 「농민운동에 대한 사회 민주당의 태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왜냐 하면 우리들의 력량、의식적 조직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이제 곧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단적인 혁명을 주장한다。 우리는 중도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레닌 저작 선집』 제一권 二분책 一九五二년、모쓰크바 조선문판 一八七페지)。

레닌은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림시적、과도적 정권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맹아로 보았다。

레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 철저히 수행된다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이면서 이 전화는 로동 계급의 주위에서의 력량의 재배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에서처럼 전체 농민과 동맹할 수 없으며 농촌 부르죠아지를 포함하는 모든 부르죠아지와의 계급 투쟁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폭력으로써 전제 정치의 반항을 분쇄하며 부르죠아지의 불견실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농민 대중을 자기에게 가담시키면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폭력으로써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격파하며 농민과 소부르죠아지의 불견실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주민 중의 반프로레타리아적 분자들의 대중을 자기에게 가담시키면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수행하려 한다』(『레닌 저작 선집』 제一권 二분책 一九五二년、모쓰크바 조선문판 一二五페지)。

이리하여 레닌은 맑스의 계속 혁명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에서 로동 계급이 근로 농민까지 반대하여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프로레타리아트 근로 대중(그중에는 주로 근로 농민)을 부르죠아지의 영향에서 빼앗아 내여 자기의 동맹자로 만들고 그를 지도하여 나가야 한다는 천재적 리론을 작성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주위에의 력량 배치를 규정함으로써 레닌은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로부터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과학적 개념을 규정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레닌적 개념을 정식화하면서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동맹의 지도적 세력이 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자본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종결적 승리를 위하는、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농민 대중과의 계급적 동맹인 것이다』(『레닌주의의 제 문제』 一九五一년 모쓰크바 조선문판 一六〇페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로의 이행은 계급 투쟁이 없이 수행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력사적 조건에 따라서 각이한 형태로 진행된다。

一九一七년 로씨야 혁명에서의 부르죠아 민주주의 단계로부터의 사회주의 단계로의 이행은 공산당의 지도 하에 一〇월 무장 폭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달성되였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에서 **혁명**적 폭발의 **불가피성**은 일련의 력사적 **조건**에 의해서 야기되였다。

로씨야의 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은 二중 주권의 수립에 이르렀다。 즉 부르죠아—지주적 림시 정부와 사실상 주권을 가진 로동자 및 병사 대표 쏘베트가 형성되였다。그리하여 二월 혁명은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로동자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에 도달하였으나 그의 『순수한』형태에서가 아니라 二중 주권의 존재로서 나타났다。 만일 쏘베트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가지고 그를 지배한 멘쉐위크들과 에쎄르들의 배신 행위 즉 대중을 배반하고 주권을 부르죠아—지주적 림시 정부에 넘겨 주었으며 부르죠아지를 타승할 가능성에 대한 불신의 의식으로써 대중을 중독시킨 배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모든 주권을 쏘베트가 유지하였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쏘베트 내부의 투쟁의 방조로써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로의 이행이 수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레닌은 二월 혁명 후 모든 주권을 다시 쏘베트에로 집중시킬 가능성을 타산하면서 그의 유명한 四월 테제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평화적 발전에 대한 방도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볼쉐위끼 당은 一九一七년 四월부터 七월까지의 기간에 혁명의 평화적 발전에 대한 방도、쏘베트에서 볼쉐위크들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로 넘어 갈 데 대한 방침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멘쉐위크들과 에쎄르들의 부르죠아지와의 타협주의로 말미암아 쏘베트는 모든 주권을 완전히 반혁명적 림시 정부에 넘겨 주었다。 七월 사변을 계기로 하여 二중 주권은 없어지고 반혁명적 부르죠아 독재만이

남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 정부의 폭력적、무장적 폐지가 요구되게 되였다。 볼쉐위크당의 지도 하에 로씨야 로동 계급과 빈농민이 수행한 一九一七년 一〇월 무장 폭동은 이 과업을 수행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였다。

로씨야에서 혁명 발전 행정은 레닌의 계속 혁명에 대한 리론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꼭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였다。 혁명의 행정은 우리의 고찰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처음에는 「전체」 농민과 함께 군주 정체를 반대하며 지주들을 반대하며 중세기적 유물을 반대하는 것이다(그런 것만큼 혁명은 부르죠아적、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빈농민들과 함께、반(半) 프로레타리아트와 함께、모든 착취 받는자들과 함께 농촌 부자들、꿀라크들、투기업자들까지 포함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니 그런 것만큼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되여진다。 이 두가지 혁명 사이에 인위적으로 만리 장성을 싸려 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준비된 정도와 그의 농촌 빈농민들과의 련합 정도、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써 이 두 혁명을 서로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은 맑스주의를 심하게 외곡하는 것이며 그것을 야비화하는 것이며 그것을 자유주의로써 바꾸어 놓는 것이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달성함에 있어서 볼쉐위크 당은 레닌의 계속 혁명의 리론에 엄격히 의거하였다。 이것을 위해서는 뜨로쯔끼의 『영구 혁명』론을 격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뜨로쯔끼는 맑스의 계속 혁명에 대한 사상을 외곡한 제二 국제당 기회주의자들의 립장을 되풀이하면서 로씨야 혁명 진행 과정의 진상을 외곡하면서 당과 로동 계급에게서 혁명에 대한 전망을 말살시키려고 하였다。 뜨로쯔끼는 계속 혁명에 대한 맑스의 사상을 외곡하면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 끝난 다음에는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르죠아지 뿐만 아니라 근로 농민까지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단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제를 반대하는 까닭이라는 것이였다。

뜨로쯔끼는 서구라파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프로레타리아트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억압되고 또 자본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사회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로 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기백만의 반(半) 프로레타리아 층까지도 착취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쏘련 공산당 략사』 —— 一九五一년 모쓰크바 조선문판 一二九페지)。

여기로부터 뜨로쯔끼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기 전에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 끝난 이후에 사회주의 반혁명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수십년의 기간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끄집어 냈다。 그리하여 뜨로쯔끼는 농민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一〇월 혁명 전에는 시기 상조임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떠들었으며 一〇월 혁명 이후에는 승리한 혁명이 유지될 수 없다고 떠들어 댔다。 뜨로쯔끼는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락후한 나라、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 혁명의 방조를 받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고 떠들었다。

뜨로쯔끼의 『영구 혁명』론은 농민의 혁명적 역할을 과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농민을 자기의 뒤에 끌고 나가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과소 평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사상에 대한 불신(不信)의 『리론』이였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초가 프로레타리아트가 지도하는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농민의 동맹이라는 레닌적 명제의 거부였다。

이 『리론』은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 혁명에서 자기를 능히 지지하여 줄 수 있는 빈농 대중과 동맹하며 그를 지도하여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세계 혁명의 도래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였다。 쓰딸린은 이 『리론』의 반혁명성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계획안에 의한다면 우리 혁명에는 다만 한가지 전망만이 있나니 그는 즉 그 자체의 모순 속에서 시들어가며 또는 세계 혁명을 기대하면서 뿌리채로 썩어갈 전망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一九五一년 모쓰크바 조선문판 一六五페지)。 이 『리론』은 또한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한 나라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는 레닌의 과학적 명제에 대한 거부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뜨로쯔끼주의의 격파는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서 볼쉐위크당에 있어서 주요한 과업이였다。

뜨로쯔끼의 『영구 혁명』론의 격파와 레닌의 계속 혁명에 관한 리론의 주위에의 볼쉐위크당의 결속은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와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보장케 하였다。

❀ ❀ ❀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환의 첫 력사적 모범은 볼쉐위크당의 지도 하에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가 뵈여 주었다。

이 위대한 력사적 경험에 의거하면서 국제 공산당

제六차 대회는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기본적、전략적 표어이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 표어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가 나선
모든 나라 공산당들에게 지침으로 되였다。모 택동 동
지는 근 一세기간 부르죠아지 혹은 소부르죠아지의 지
도 하에 중국에서 진행된 반제—반봉건 투쟁들의 참담
한 실패의 교훈들과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의 경험에 기초하여 중국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반제、반
봉건적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는 력사가 이미
판정한 바와 같이 부르죠아지에 의해서는 령도될 수 없
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에 의해서만 완수될 수가 있
다』(『모 택동 선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제一권
(하) 二五二페지)。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중국에서 반제、반봉건 혁
명의 진정한 방도가 나섰고 그의 실천이 보장되였다。

그런데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의 부르죠아 민주주
의 혁명의 사회적 토대와 동력 구성이 짜리 로씨야에
서의 그것보다 광범하다。 식민지—예속국들에서는 로
동 계급과 기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민족 부르죠아
지(중부르죠아지)까지도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의하여 국내 시장에서 구축 당하며 박해를 당한다。그
러므로 이 나라들의 민족 부르죠아지는 외래 제국주의
와 국내의 그 동맹 세력인 지주、예속 자본가들을 반대
하는 혁명에 일정한 시기、일정한 정도로 참가하게 된
다。식민지와 세력 범위의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 렬강
들의 투쟁이 치렬하게 된 제국주의 조건 하에서 락후
한 나라들의 제국주의 렬강에의 예속은 보편적 현상으
로 되였으며 이런 예속된 나라들에서 민족 부르죠아지
(중부르죠아지)는 일정한 정도의 혁명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 부르죠아지가 반제、반봉건 혁명에서 령
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은 전혀 없다。식민지 예속
국 민족 부르죠아지는 제국주의적 압박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연약하며 또 혁명이 부르죠아적 리
해의 범위를 벗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계급적 제한성은
가지고 있다。중국 혁명의 경험에 언급하면서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손 중산의 四〇년 혁명이 실패된 것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소부르죠아
지와 민족 부르죠아지는 어떤 진정한 혁명일지라도 승
리에까지 령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인민 민주주의 독재에 대하여』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二五페지)。

식민지 예속국들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 무
엇보다도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띠였다는 사실과 이 나
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정치적 력량과 기타 근로 대중

속에서의 위신이 민족 부르죠아지의 그것에 비하여 절
대적으로 우세한 사실로 말미암아 식민지 예속국들에
서 혁명의 령도자로 로동 계급이 되여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식민지—예속국들에서 민족 부르죠아지가 혁명의 령
도자로는 못되지만 그가 일정한 시기、일정한 정도로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나라들의 공산당
들의 전략 전술의 작성과 실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
지는 것이다。제二차 대전 후 구라파 일련의 나라들과
아세아에서 중국과 기타 나라들에서 반제、반봉건 혁명
의 행정은 로동 계급이 민족 부르죠아지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애국적 민주 력량을 결속하여 가지고 승리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이 력사적 경험은 현재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이 나
서고 있는 나라들의 공산당들의 전략의 작성에서 중요
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인도 공산당은 당면한 인도
혁명의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민족 부르죠
아지들을 통일적 민족 전선에 결합할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일본 공산당은 제二차 대전 이후 일본이 미 제국
주의의 강점 하에 놓이게 되였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
여 일본에서 당면 혁명의 성격은 기타 예속국들에서의
혁명과 마찬가지로 민족 해방적—민주 혁명이며 이 혁
명에 민족 부르죠아지까지 포함하는 모든 민족적 애국
적 력량을 결속할 과업을 설정하고 있다。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 쏘련이 존재하며 자본주의 전
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조건 하에서 직접 제국주
의를 반대하여 수행되는 식민지—예속국들에서의 민주
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 련결되지 않을 수
없다。그러므로 모 택동 동지는 一九四〇년에 쓴 그의
『신 민주주의』론에서 중국에서의 반제、반봉건 혁명
은 세계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한 부분이라고 하
였다。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
니와 그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은 제二차
대전 후 구라파와 아세아의 수다한 나라들에서 구현되
였다。이 력사적 사변들은 계속 혁명에 대한 레닌의
리론의 정당성을 더 광범한 범위에서 확인하였다。

이 나라들은 해방전 팟쇼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반식민지 혹은 예속국들이였다。외래 제국주의
에 의한 압박과 굴욕、민족적 독립의 상실、국내의 외
래 제국주의의 주구들인 대자본가、지주들의 반역 행위는
이 나라들 내부에서 계급적 모순을 극히 첨예화시켰
다。해방전 이 나라들에서 혁명의 당면 과업은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국내에서 그들의 지주(支柱)인
예속적 대자본가들、지주들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민
주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였다。

이 투쟁의 선두에는 공산당들이 지도하는 로동 계급
이 서 있었다。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농민 및 기타 근

로자들、민족 부르죠아지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층의 반제 통일 전선들이 결성되였는바 이 력량은 외래 제국주의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국내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력량으로도 되였다。

이 나라들에서의 혁명은 그 출발에 있어서 전략적 과업、계급적 내용、동력으로 보아 일반적 민주주의 성격을 띠였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서 혁명이 직접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나섰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일 철저히 수행된다면 일반적 민주주의 혁명의 범위를 훨씬 벗어날 것이 예견되였다。 이것은 이 나라 혁명들이 로씨야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한 국제 정세는 이 나라들에서 혁명의 철저한 수행을 보장하여 주었다。 이 나라들에서 민주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제二 단계、쏘련의 위력의 강화、제국주의의 일체 모순의 첨예화、자본주의 제국에서 로동 운동의 장성、식민지 반식민지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강화의 정세 하에서、즉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가 사회주의 측에 비상히 유리하게 변동된 정세 하에서 수행되였다。

이 나라들에서 외래 제국주의와 국내의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팟쇼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쏘련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고 있었다。 쏘련에 의한 팟쇼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의 격파는 이 나라들에서 반제、반봉건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조건이였다。 팟쇼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가 격파된 결과에 이 나라의 외국 제국주의의 세력은 전복되였으며 국내 반동 세력은 마비되였다。 이 나라들에는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근로 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될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의 길이 열리였다。

그러나 각개 나라의 구체적、력사적 조건에 따라 혁명 발전에서 특성들과 속도의 차이가 있었다。

팟쇼 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된 중앙 및 동남 구라파 나라들에서는 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로동 계급이 농민과 동맹하여 모든 반파시쓰트적 력량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켜 가지고 반동 정권을 청산하고 인민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인민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은 지주와 금융—산업 자본가들의 지배를 페지하며 정권 내에서 부르죠아지의 지도를 페지하였는바 이는 정권 내에서 로동 계급의 지도적 지위의 획득을 의미하였다。 이 인민 정권은、제국주의와 파시쓰트를 반대하며 외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국내의 예속 자본가들과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탄생한 것만큼 자체의내용으로 보아 로동자、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의 성격을 띠였다。 그런데 이 로농 독재는 一九〇五년 레닌이 예견한 바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형태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즉 이

나라들의 혁명의 반제—반팟쇼적 성질 때문에 그 사회적 토대가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경우보다 더 광범했던 것만큼 이 나라들에서 로동자、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는 로 농 독재를 지지하는 사회의 기타 층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였다。

인민 정권들은 팟쇼 잔재를 소탕하며 지주적 토지 소유 제도와 기타 봉건적 잔재의 소탕을 철저히 수행하였다。 각이한 나라들에서 구체적 조건에 따라 속도상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민주주의적 개혁들이 신속히 진행되였다。

이 나라들에 쏘베트 군대가 직접 진주하였던 사실은 이 나라들에서 혁명적 개혁들의 수행을 매우 쉽게 하여 주었다。 쏘베트 군대는 이 나라들의 민주주의 발전을 사심없이 원조하면서 반동 력량의 활동을 억제하여 반동에 의한 공민 전쟁의 도발을 방지하였으며 인민 대중의 력량을 강화하였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부여하였다。 쏘련의 위력과 쏘베트 군대의 직접 진주는 중앙 및 동남 구라파에 대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간섭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 모든 것은 이 나라들에서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보장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의 령도하는 인민 정권이 그 첫 시기에 수행한 제 개혁은 주로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였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이 나라들에서 혁명이 첫 시기부터 직접 반제적 성격을 띠였다는 사실과 정권 내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한다는 사실은 이 나라들에서 반제、반봉건 혁명이 일반적 민주주의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하였다。 인민 정권은 첫 시기에 벌써 팟쇼 독일이 관리하였거나 민족 반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대 중 공업 기업소、운수 은행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형태를 창설하였다。

볼레스라브 베루트는 파란 통일 로동당 제二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혁명적 제반 개혁은 그 사회—정치적 성격의 견지에서 보아 두개의 주요 단계 즉 혁명적 민주주의 개혁의 단계와 사회주의 형태의 개혁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물론 이 구분을 기계적으로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적 개혁의 요소와 사회주의적 개혁의 요소는 인민 정권이 창건되고 활동을 개시한 거의 초기부터 호상 련결되고 결합되였으며 호상간 영향을 미치였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은 혁명의 첫단계부터 벌써 시작되였다。 혁명적 민주 개혁 행정에서 인민 대중 속에서 로동 계급의 위신은 제고되였으며 로농 동맹은 일층 강화되였다。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의 강화에 따라 사회주의적 개혁의 범위는 확대되였다。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은 가렬한 계급 투쟁을 동

반하였다。

자기의 계급적 리해 관계 때문에 근로 대중의 반팟쇼적 기분을 리용하면서 반제、반봉건 투쟁에 일시적으로 참가하였던 부르죠아지는 혁명의 철저한 진행에 따라 점점 자기의 계급적 본성을 나타내여 반동적 책동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민주주의를 미국식 부르죠아 민주주의로 대체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정권 내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파괴하며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쏘련과 리탈시켜 미 영 제국주의 국가들과 접근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인민 정권을 보전하며 인민에게 번영의 길을 열어주며 착취 계급에 대한 최종적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서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지도 하에 일련의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들이 수행되였다。 즉 부르죠아지를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켜 그들을 정치적으로 격파하였으며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기구를 창설하였으며 부르죠아들의 소유였던 공장、제조소、은행、철도의 국유화、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 독점의 실시、 로동 운동 내의 부르죠아 대리인들인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격파되고 로동 운동의 분렬이 종결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새 형의 로동 계급의 유일당이 창건되였다。 중앙 및 인민 민주주의 동남 구라파 나라들에서의 이 행정은 一九四七——一九四八년 시기에 끝났다。 이것은 정치적 령역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수립을 위한 투쟁의 완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적 형태는 쏘베트적 국가 형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정치 생활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당(多黨) 체제이며 따라서 통일 전선체의 존재이다。 불가리야의 『조국 전선』、체코슬로바키야의 『민족 전선』、알바니야의『민주주의 전선』、루마니야의 『인민 민주주의 전선』、 웽그리야의 『인민 전선』、 파란의 『민족 전선』 등은 모두 그 나라들의 공산당、·로동당들 외의 사회—정치 조직들이다。 또 파란에는 통일 로동당 외에 통일 농민당、민주당이 있으며 체코슬로바키야에는 공산당 외에 사회주의당、 인민당 등이 있다。 그러나 공산당、로동당들 외의 정당들과 사회—정치 조직들의 존재는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지도적、 향도적 역할을 방해하지 않는다。 력사적 경험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 형태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능히 수행할 수 있음을 뵈여준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물론 정치적 형태의 거대한 풍부성과 다양성을 뵈여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본질은 이 경우에 있어서도 불가피적으로 단 하나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일 것이다』(전

집 제四판 제二五권 三八五페지)。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은 위력한 사회주의 국가 쏘련의 지지와 반제、반봉건 혁명 행정에서 나타난 이 나라들의 주권 내에서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헤게모니야의 확립에 의하여 보장되였다。

아세아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혁명 과정의 특성은 이 나라들이 이전에 식민지、반식민지였으며 구라파 나라들에 비하여 봉건 잔재가 농후하였으며 따라서 이 나라들에서 일반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과업의 범위가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점이였다。

식민지、반식민지 처지에 있었던 아세아 나라들에서 민족 부르죠아지의 경제적、정치적 미약성과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 대중의 민주주의적 력량의 강대성은 반제、반봉건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필연케 하였다。

중국에서의 혁명은 중국 공산당이 一九二四——二七년 시기에 공산당이 지도하는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반제、반봉건 혁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로선을 내세운 후부터 로동 계급의 령도권과 로 농 동맹이 부단히 확대 강화되였으며 로 농 동맹 주위에 인테리、민족 부르죠아지까지 포함하는 반제 민주 력량의 통일 전선이 형성되였다。 외국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을 반대하는 장구한 투쟁 특히 항일 전쟁을 통하여 공산당이 지도하는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은 절대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로 농 동맹은 매우 견고한 것으로 되였다。

쏘련 군대에 의한 일제의 격파는 중국 혁명의 완수를 매우 쉽게 하였다。 중국 인민은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 제국주의가 비상히 약화되였으며 쏘련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되여 국제 민주 력량이 급속히 장성되여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에 유리하도록 력량 배치가 변경된 조건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하여 나타난 미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의 방조 하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부식하려는 반동적 지주—매판적 국민당 제도를 청산하였다。 중국에서 이 과업은 一九四九년에 완수되였다。 이 결과에 인민 민주주의 독재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였다。 중국에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는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공동 강령에 지적된 바와 같이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에 의하여 령도되는 로동 계급、농민、소부르죠아지、민족 부르죠아지 및 기타의 애국적 민주주의 요소의 인민 민주주의적 통일 전선 국가 정권이다』。

중국에서 인민 정권은 전국적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봉건의 지배를 근절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관료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중국에서 혁명의 반제국주의적 성격과 인민 정권 내

에서 로동 계급의 절대적, 령도적 지위는 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적 변혁들이 단순한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주의적 요인을 포함하게 되였다. 인민 정권 내에서 로동 계급의 절대적, 령도적 역할로 인하여 중국에서 혁명이 점차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되였다. 一九五四년 채택된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서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一九四九년에 중국 공산당 지도 하에 제국주의와 봉건과 관료 자본을 반대하는 것을 지향한 인민 혁명에서 위대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 즉 신민주주의 제도는 평화적 방법으로 착취와 빈궁을 청산하며 륭성하고 행복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을 우리 나라에 보장한다」.

현재 위대한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 * *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의 격파와 쏘련 군대의 우리 나라 북반부에의 진주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을 가능케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우리 나라의 혁명의 과업은 일본 제국주의와 그 세력을 우리 나라에 부식한 예속 자본가들, 지주 계급을 전복하고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적 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었다.

혁명의 동력은 우선 일제와 그 주구들의 압박과 착취를 가장 가혹하게 당하는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이였다. 인테리와 중 소 상공업자들도 일본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 세력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했던 것만큼 이 혁명에 가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 금융, 산업 경제에서 일제 자본의 독점적 지배로 인하여 조선에서 부르죠아지의 력량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부르죠아지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부르죠아지보다도 비할 수 없이 약하였다. 이 반면에 조선의 로동 계급은 조선의 부르죠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였으며 혁명적이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반제, 반봉건 혁명에서 령도 계급으로 될 계급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 계급이였으며 농민은 그의 튼튼한 동맹자로 될 소질을 가지였고 로 농 동맹 주위에 중소 상공업자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을 묶어 세울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면서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와 로 농 동맹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반제, 반봉건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의 확립과 로 농 동맹의 강화를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쏘베트 군대에 의한 일제의 격파와 쏘련 군대의 우리 나라에의 진주는 우리 나라에서 일제 침략 세력을 전복하였으며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을 마비시켰다. 로동 계급을 위수로 하는 근로 대중의 정치적 력량의 급격한 장성이 진행되였다.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전위 당인 조선 로동당 (전신당—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국내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이 급속히 확립되여 갔으며 국내의 반동 력량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우리 나라 남반부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마비 상태에 있던 국내 반동 세력은 미제의 비호 하에 남반부에 의거하여 정치적으로 력량을 집결하여 갔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혁명은 복잡성, 간고성, 장기성을 띠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쏘련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에서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혁명이 먼저 완수되였다. 북반부에서는 인민 정권이 수립되였다. 수립된 인민 정권은 해방 후 국내의 계급적 력량 관계를 반영하였다.

「이 정권은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인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및 소자산 계급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들이 자기 대표를 선출하여 조직한 정권이다.

…인민 정권은 반동적 친일파 및 기타 제국주의의 주구 민족 반역자들과 또한 제국주의의 세력을 부식하려는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에게 한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자체에 한하여서는 민주 제도를 실시한다」(「김 일성 선집」 제四권 五二—五三페지).

이 정권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 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민주주의적 민족 통일 전선의 기초 우에 선 정권이다. 이 정권에서 로동 계급과 조선 로동당이 절대적인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인민 정권 내에서 로동 계급의 강력한 령도적 역할은 반제, 반봉건 혁명의 철저한 수행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가능케 하였다.

인민 정권은 북반부에서 지주적 토지 소유 제도를 철폐한 토지 개혁과 기타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들은 순수한 민주주의적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민족 반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산업, 운수, 은행 등의 국유화는 북반부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부문인 산업 부문의 압도적 부분을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로 전환시켰다. 우리 나라가 해방 전 식민지였으며 산업 부문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사실, 민족 부르죠아지의 력량이 극히 미미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말미암아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사회—경제 개혁만으로써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요인이 지도적 역할을 놀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 결과 북반부의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게 되였으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 경제와 협동 경제 부문들은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소상품 생산 경리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경리에 결정적 영향을 주면서 필연적으로 그를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로의 개조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되였다.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가 강점하고 그 세력을 우리 나라에 부식하는 예속 자본가, 지주, 친미파, 친일파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반제, 반봉건 혁명은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선진적 경험과 그 나라들의 방대한 경제—기술적 원조가 있으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며 로 농 동맹에 기초를 둔 위력한 인민 정권이 있는 조건에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로의 점차적 이행은 십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면한 조국 통일과 남반부에서의 반제, 반봉건 혁명의 급속한 완수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위업이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은 북반부를 조국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결정적 력량으로 화할 것이며 조국이 통일된 후 파괴된 남반부의 경제를 복구 발전함에 있어서 결정적 담보로 될 것이다.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와 그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화 발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우리 혁명 발전의 위력한 지침으로 된다.

경제 공황의 기본 합법칙성과 특수성

이·뜨라흐쩬베르그

어떤 자본주의 나라 경제 상태의 각이한 지표(공업 생산고의 수준, 가격 수준, 실업자 수 및 기타)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도표를 그려 본다면 자본주의 경제의 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싸리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운동의 곡선은 지그자그로 그어지고 있다. 즉 상승선은 빈번히 하강선으로 바꾸어진다. 상승과 하강의 교체는 일정한 순차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련달아 계속되는 경기 순환에 의하여 발전된다. 매개 경기 순환은 개별적 국면들 즉 공황, 불경기, 활기 증진 및 호경기로써 이루어진다.

경기 순환은 대개 동일한 양태로 진행되여 부단히 반복되며 공황은 주기적으로 폭발한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운동의 일정한 합법칙성을 실증하여 주며 동시에 공황의 불가피성을 부인하는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의 허구 날조를 반박하여 준다. 공황의 발생을 우연한 사정 즉 신용—화폐 체계의 불균형성이나 혹은 그 미완성에다 돌리려는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의 시도(신용—화폐 공황론)가 불합리하다는 것도 여지 없이 론증되여 있다.

그러나 경기 순환 운동의 동일성이나 공황 표현의 동일성은 또한 약간의 차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만일 작성된 도표를 면밀히 검토하며 그것을 깊이 연구한다면 경기 순환과 공황에도 특수성이 있는바 그것은 경기 순환이 진행되며 공황이 폭발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제 조건의 총체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맑스—레닌주의적 재생산론과 공황론에 의하여 확증된 일반적 제 합법칙성의 작용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 리론의 기본 명제들을

간단히 서술하는 데로 넘어가자.

자본주의적 재생산과 경제 공황

자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는 부단히 생산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의 이와 같은 갱신이 재생산 과정인 것이다. 생산은 단순 재생산에 있어서는 변함 없는 규모로,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는 증대되는 규모로 갱신된다.

생산의 갱신을 위해서는 생산 수단과 개인 소비 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생산 수단 생산은 생산을 위한 물질적 제 조건을 재생산하며 개인 소비 자료 생산은 로동력을 재생산한다.

재생산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일체 생산이 두개의 부류 즉 I 생산 수단 생산 및 II 소비 자료 생산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념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은 생산과 류통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된 상품은 실현되여야 하며 판매되여야 한다. 생산은 항상 실현 (생산 수단 및 로동력의 구매)으로 시작되여 실현 (생산된 상품의 판매)으로 끝난다.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를 실현 과정에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치는 생산에서 각이한 역할을 노는 세 부분, 즉 불변 자본의 가치, 가변 자본의 가치 및 잉여 가치로 구분된다. 재생산 과정은 사회적 생산물 가치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며 현물 형태의 생산물에 대한 보상도 그 가치 및 가치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다.

그러면 대체 이 보상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총 사회 생산물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추상적 실현론(재생산론)에 의하여 해결되는바 이 실현론의 전개는 자본주의적 재생산 및 공황의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된다.

이 리론은 『자본론』의 여러 개소에서 맑스에 의하여 천명되였다. 그러나 이 밖에 실현의 제 조건은 레닌의 로작 『소위 시장 문제에 관하여』(전집 제一권 五九—一〇八페지)에서도 그 명백하고 확증적인 서술을 볼 수 있는바 여기에서 레닌은 재생산 도식 (『자본론』 제二권의)을 본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충하였다.

잡지 론문을 가지고서는 이 도식을 다 서술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 결론에만 그치기로 하자.

도식에 의하면 단순 재생산 하에서의 사회적 생산물의 실현 조건은 제一 부류의 가변 자본 가치 및 잉여 가치의 총액과 제二 부류의 불변 자본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는 데 있다.

확대 재생산 하에서는 현물 형태의 생산물과 그 가치의 모든 구성 부분에 대한 보상은 다만 제一 부류의 가변 자본의 가치에다 자본가들의 개인 소비에 리용되

는 제一부류의 잉여 가치 부분과 제一부류의 가변 자본 증대에 충당되는 잉여 가치 부분을 합한 것이 제二 부류의 불변 자본의 가치와 불변 자본 증대에 충당되는 제二 부류의 잉여 가치 부분을 합한 것과 동일한 경우에라야만 가능하다.

이 동일성은, 첫째로 제一 부류 (생산 수단 생산)와 제二 부류 (소비 자료 생산)간의 일정한 적응의 현존, 둘째로 사회적 생산의 매개 기본 부류의 범위 내에서의 각이한 종류의 상품 생산간의 일정한 균형의 현존, 세째로 제一 및 제二 부류의 년간 생산물의 개별적 가치 간의 일정한 적응의 현존, 네째로 확대 재생산 하에서 제一 부류에 있어서의 축적과 제二 부류에 있어서의 축적 간의 일정한 호상 관계의 현존, 다섯째로 확대 재생산 하에서 제一 부류의 우선적 장성 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전혀 명백하다.

실현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제 조건, 생산되는 현물 형태의 상품과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의 제 조건은 이상과 같다.

맑스의 재생산 도식은 상품—자본주의적 가치 관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맑스의 재생산론의 일련의 기본 명제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도 포함한 기타의 사회 구성의 경제에도 특징적이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에 타당한 것은 도식에서 표시된 재생산의 제 조건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재생산과 자본주의적 재생산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높은 기술의 기초 우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과 개선에 의한 전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 충족의 보장을 그 기본 경제 법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경제에서는 재생산의 제 조건이 부단히 실현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사회에서 작용하고 있는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경제 법칙에 의하여서와 이 법칙의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당과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 하에서의 기본 경제 법칙은 잉여 가치 법칙이며 자본주의적 리윤의 산생 및 증식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최대한 리윤 보장의 법칙으로서 작용한다. 이 법칙은 일체 사회적 생산에서의 무정부성, 가렬한 경쟁의 현존을 전제로 한다. 실현 (재생산)의 제 조건은 이 때문에 부단히 파괴되고 있다.

재생산을 위한 제 조건의 파괴는 불균형의 발생 및 발전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경제 하에서는 재생산을 위한 제 조건의 항구적 유지가 통칙으로 되여 있고 불균형의 발생은 우연적이며 부분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그것은 미연에 방지되며 또 만약 발생한다 하더

라도 그것은 계획적으로 극복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불균형이 통칙으로 되여 있어 전반적 성격을 띠며 불균형의 균등화(균형의 형성)는 비록 그것이 부단히 진행된다 할지라도 역시 우연적인 것이다.

『…균등화는——하고 맑스는 썼다——역시 **우연적**이다. 그리고 개별적 부면에 투하되는 자본의 균등화 과정은 부단히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의 부단성 자체는 이 과정이 부단히, 흔히는 강행적으로 균등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똑같이 부단한 불균형을 전제로 한다』(『축적론』三四폐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적대적 모순은 재생산 제 조건의 부단한 파괴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로동은 더욱 더 사회화되고 로동의 결과는 더욱 더 극소수의 생산 수단 소유자들이 점유하게 된다.

사회적 로동 생산물에 대한 사자본주의적 점유 형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심히 모순되게 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모순은 더욱 더 첨예화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본 모순은 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첫째로 로동과 자본 간의 모순,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二대 기본 계급——자기 로동에 의하여 사회적 생산물을 창조하는 로동 계급과 생산의 결과를 점유하는 자본가 계급——간의 모순에서.

둘째로 자본주의, 따라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기본 모순은 각개 자본주의적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의 상대적 조직화와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성 간의 모순에서 나타난다.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여 있다는 그 사실은 십지어 사회적 생산 전체의 어떤 상대적 조직화조차도 불가능하게 한다.

구체적 현실은 허다한 부르죠아 경제학자, 수정주의자, 우익 사회주의자 및 레이버당원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직된』, 『계획적』, 『조절할 수 있는』 자본주의라는 반(反)혁명적 리론의 허위성을 루차 폭로하여 주었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허위적 리론들은 실지에 있어서 자본가들의 리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째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본 모순은 생산 기구의 장성하려는 경향과 근로자들의 낮은 생활 수준 간의 모순에서, 생산의 무제한한 장성의 경향과 지불 능력있는 수요의 제한성 간의 모순에서 나타난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의 목적은 리윤 획득이다. 매개 자본가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리윤을 획득하려고 갈망한다. 리윤은 생산의 확대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 리윤 획득의 열망은 무제한하며 따라서 생산을 확대하려는 지향도 무제한하며 경쟁도 또한 이 생산 확대를 자극한다. 경쟁에 있어서는 생산물 단위 당 생산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자가 승리한다. 이 생산비를 결정하는 조건 가운데서는 생산의 규모가 적지 않은 역할을 논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변 자본이 가변 자본보다 급속히 증대되는바 이것은 리윤률 저하의 경향을 조성한다. 이 저하는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리윤 총량을 증대하여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의 증대를 초래하는 동일한 사정은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축소를 가져온다. 리윤을 추구하여 자본가는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임금을 인하하는바 그 결과에 로동자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는 감소된다. 로동자들에게 지불되는 로임 총액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장성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취업 로동자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불 능력있는 수요가 증대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생산의 장성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진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로동 계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화, 소생산자들의 령락이 진행되는데 바로 이 광범한 근로 대중의 령락과 빈궁화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축적, 생산의 장성은 실현된다.

생산의 장성은 그 자체로서도 개인 소비 자료에 대한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확대시키나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적대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장성을 앞서 나간다.

계급적 대립, 개별적인 자본주의적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의 상대적 조직화와 전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의 무정부성 간의 모순, 생산 능력의 장성과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제한성 간의 모순, 즉 생산과 수요 간의 모순——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본 모순의 이 모든 발현은 불가피적으로 재생산을 위한 제 조건의 파괴와 불균형의 강화를 가져온다. 실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커다란 장애물에 부닥치게 되여 곤난과 동요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의 기타의 모든 법칙과 마찬가지로——하고 레닌은 썼다——실현의 법칙도 「다만 불실현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레닌 전집』 제四권 六一폐지). 재생산을 위한 제 조건의 파괴가 축적되여 그것이 대규모에 달하였을 때, 불균형이 비상히 강화되였을 때, 생산 과정의 모든 대립이 극도로 첨예화되였을 때, 그 때에는 전반적 과잉 생산이 나타난다. 재생산 과정의 그 후 경과는 불균형의 균등화를 요구하는바 이것은 맑스의 표현에 의하면 강행적으로, 공황을 통해서, 생산

축소와 이 축소로부터 오는 모든 결과를 통해서 달성된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결과에 대한 점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은 과잉 생산 공황의 기초를 이룬다。이 모순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 공황은 필연적이며 불가피적이다。 오직 자본주의의 전복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만일 자본주의적 재생산을 실현 조건의 부단한 파괴、불균형의 항시적 현존으로써 특징지을 수 있다면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자본주의는 항상 공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나 않겠는가?

이와 같은 결론은 옳지 않다。 비록 실현을 위한 제 조건이 부단히 파괴된다 하더라도 재생산 행정에서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이 조성되며 맑스가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이한 부면에 투하되는 자본의 균등화가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균등화는 재생산 과정의 모순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첨예화하는 원인으로 되며 불균형을 가져오는 전제 조건을 조성한다。

그리하여 재생산 과정의 제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는 때에라야만 비로소 균등화는 강행적으로 「…항상 현존 제 모순의 일시적、강제적 해결에 불과한、파괴된 균형을 순간적으로 회복시키는 강행적 폭발에 불과한」(카·맑스『자본론』제三권 二五九페지) 공황을 통해서 달성된다。

공황은 주기적으로 폭발한다。 공황 전까지 생산은 주로 생산 수단 생산에 의하여 확대된다。 이 확대는 소비 자료 생산의 장성과 지불 능력 있는 총 수요의 증대를 동반한다。 그러나 수요의 증대는 생산의 증대에 뒤떨어지는바 생산의 증대는 공황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결국에 가서는 지불 능력있는 수요의 제한성에 부닥치게 된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낮은 수준은 항상 그리고 직접 생산을 제한한다는 듯이 주장하는 소위 수요 부족 리론은 옳지 않다。

바로 공황 직전에 근로자들의 수요는 소여 경기 순환 내에서 최고 수준에 달한다。 그리고 공황으로부터 불경기 및 활기 증진에로의 이행은 소여 경기 순환 내에서 근로자들의 수요를 가장 낮은 수준에 처하게 한다。 수요 부족 리론으로부터는 마치도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공황에 빠져 있는 듯한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사실과 모순된다。

공황 직전에 생산은 최고 수준에 달하며 생산에 인입되는 로동자의 수효도 또한 증가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재생산 과정의 모든 모순、례컨대 특히 생산과 수요 간의 모순은 최대한으로 첨예화한다。

공황은 폭발한다。 생산의 축소란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용적에 대한 생산의 규모의 순응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로동자들의 대량적 해고、소소유자들의 령락 및 기타로 말미암아 지불 능력 있는 총 수요는 더 한층 축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수요에 순응하는 과정은 아주 날카로운 형태를 취한다。 다만 생산력의 막대한 파괴、현존 생산 능력과 로동력의 불리용의 대가로써만 재생산 과정의 각종 부분의 적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불균형을 일으키는 제 조건의 작용이 계속되는만큼 적응은 다만 『순간적으로』만 이루어진다。

공황시에는 가격이 폭락한다。 이것은 실현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공황 전에 생산된、실현될 수 없었던 재고품의 처분을 촉진한다。 낮은 가격에 순응할 필요성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생산비를 저하하도록 추동한다。 생산비 저하는 한편으로는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현대적인 생산 도구의 적용으로써 이루어진다。

공황에 선행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고정 자본이 물리적으로 크게 마모된다。 공황은 그 도덕적 마모를 촉진한다。 고정 자본의 대량적 갱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공황에 의하여 야기되며 따라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공황은 항상 새로운 대자본 투하의 출발점으로 된다。 투자의 대량적 갱신은 공황의 주기성과 그 규칙적 반복성의 물질적 기초로 된다。

그런데 고정 자본의 갱신은 수요와 그에 적응한 생산 수단 생산을 확대한다。 이것은 취업 로동자 수의 증가를 가져오며 따라서 수요와 그에 적응한 소비 자료 생산의 증대를 가져온다。 이리하여 공황으로부터 빠져 나올 전제 조건이 조성된다。 공황은 많든 적든 간에 다음 경기 순환의 새로운 물질적 토대를 준다。

공황은 불경기와 교체되는바 불경기 시에는 공황에 의하여 조성된 새로운 제 조건에의 순응이 일어나며 고정 자본의 갱신이 시작된다。 생산은 서서히 확대되여 간다。 불경기 뒤에는 활기 증진이 온다。 즉 고정 자본의 갱신이 촉진되여 생산의 장성 템포가 제고된다。 활기 증진은 호경기와 교체된다。 생산을 무제한적으로 확대시키려는 경향은 호경기에다 더욱 더 급격한 성격을 부여한다。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특히 불경기 시에 큰 역할을 노는 것은 신용이다。 기능 자본가들이 호상 제공하는 상업 신용과 자본가들에게 제공되는 은행 신용은 자본 회전을 촉진하며 실현 속도를 촉진하며 자본가들에게 부족한 화폐 자원을 제공한다。 신용은 호경기를 촉진한다。 심지어 공황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때에 있어서조차 호경기는 신용에 의하여 일시 유지된다。 공황에 선행하는 호경기는 보통 신용의 팽창、신

용 설정의 갱신으로써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사정은 그후 공황 기간에 그것을 극도로 첨예화하면서 나타난다.

그러나 공황으로부터 불경기에로, 불경기로부터 활기 증진에로, 활기 증진으로부터 호경기에로의 이행과 함께 재생산의 모순이 첨예화된다. 특히 생산과 수요 간의 모순이 첨예화된다. 실현을 위한 제 조건의 파괴가 축적되며 불균형이 증대되여 결국 다시금 공황이 폭발한다.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경기 순환에 의하여 발전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매개 경기 순환은 몇개 국면, 즉 공황, 불경기, 활기 증진, 호경기로써 이루어진다. 매개 경기 순환은 공황으로 시작되여 공황으로 끝난다.

과잉 생산 경제 공황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부면에서 표현된다.

공황시에는 생산이 축소된다. 공황은 가장 큰 자본가들에 의하여 헐값으로 병합, 매점되는 소수 대기업소들과 중 소 기업소들의 대량적 파산을 동반한다. 공황은 생산의 집적 과정과 자본의 집중 과정을 촉진한다.

류통 부면도 축소된다. 상품 류통은 지연되며 상업의 규모는 축소되며 상업 기업소들의 파산은 증대된다. 상품 가격은 보통 폭락된다. 그러나 심지어 가격 저하로써도 상품은 판로를 발견하지 못한다. 광범한 주민 대중이 굶주리고 있는 반면에 자본가들은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적되여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폐기한다.

대외 무역도 축소된다. 무역 발란스는 지불 발란스와 더불어 악화된다.

공황은 신용 및 화폐 류통 부면에서도 표현된다. 대부 리자가 높아지며 상업 신용이나 은행 신용이나를 막론하고 축소된다. 유가 증권 특히 주식 시세는 파국적으로 폭락한다. 새로운 주식 발행은 거의 정지된다. 주식 시장의 파산은 투기업에 인입되였던 소수의 대소유자들과 중 소 소유자들을 령락케 하는바 이들을 희생으로 하여 금융 과두들이 부유화한다.

신용—화페 공황——신용 및 화페 류통 부면에 있어서의 전반적 경제 공황의 표현——은 이번에는 과잉 생산 공황을 격화시킨다.

공황은 가장 큰 자본가들을 누구보다도 적게 손상하는바 이들은 손실을 중 소 부르죠아지, 특히 로동자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공황은 자본의 집중을 비상히 촉진하며 그 경쟁자들의 령락에 의하여 대자본가들의 지위를 비상히 강화한다.

소부르죠아지는 공황 시기에 령락되며 자기 소유를 상실하며 그렇지 않아도 어지간히 환상적인 자기의 자립성을 박탈 당한다.

특히 공황은 로동 계급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실업자 수의 방대한 증가를 일으키며 취업 로동자들을 반기아 상태에 빠뜨린다. 실업자의 증가는 자본가들이 취업 로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로임을 인하하며 로동 강도를 높이며 로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준다. 결국 취업 로동자 수의 감소와 그들의 로임 지불의 인하로 지불되는 로임 총액이 축소된다. 생활 수준의 저하, 급양 및 주택 조건의 악화 등등은 로동의 강화와 함께 로동자들 사이에서의 리병률과 사망률의 증대를 가져오며 로쇠, 로동 능력 상실, 조로 등을 가져온다.

이와 동시에 공황은 로동자들의 계급 의식을 장성케 한다. 근로자들의 불행과 곤궁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의 부패성과 기생성, 사회의 생산력을 리용함에 있어서의 그 무능력을 폭로하며 자본주의의 병집을 적라라하게 들어 내면서 과잉 생산 경제 공황은 자본주의와 과잉 생산 경제 공황에 종지부를 찍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주 객관적 전제 조건의 성숙을 촉진한다.

경기 순환 및 공황의 제 특수성

과잉 생산 공황의 기초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로동 생산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순이다. 모든 공황의 기초에는 이 모순이 가로 놓여 있다. 그러나 모든 경기 순환과 공황이 전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언제나 작용하는 일반적 합법칙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순환과 공황이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제 조건의 총체가 그것들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우에서는 공황의 여러 표현이 론술되였는데 그것들은 언제나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것들의 순차성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며 개별적 표현들은 언제나 동일한 심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공황의 지속성, 그 강도 및 첨예성은 경기 순환과 공황이 진행되는 구체적, 경제적 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일반적 류사성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경기 순환과 개개의 공황은 약간의 특수성을 갖는다.

재생산 과정의 일반적 제 합법칙성은 항시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로부터 여러 경기 순환 및 공황 간의 류사성이 나오는 것이다.

경기 순환과 공황의 특수성은 소여 나라의 소여 경기 순환에서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순환 및 공황의 진행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一八五七년 공황은 一八四七년 공황과 꼭 같은 원인

에 의하여 야기되였으며 그 일반적 진행도 역시 동일하였다。 그러나 一八五七년 공황에 있어서는 一八四八년 혁명 패배 후에 조성된 일반적 정치、경제 정세가 그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정세에 대해서는 맑스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정치에 있어서는 군도(軍刀)에의 례배、도덕에 있어서는 전반적 타락과 폭로된 미신에로의 위선적 복귀、정치 경제학에 있어서는 생산에 대한 부담없는 치부의 망상——이러한 것이 一八四九——一八五六년 반혁명적 주연(酒宴)의 시기에 이 사회가 나타낸 경향이였다』(『맑스、엥겔스 전집』제一一권 제一부 五八페지)。

공황 전(前) 시기의 이러한 일반적 정세는 미증유의 투기를 야기시켰는데 이것은 특별히 첨예한 공황의 폭발과 화폐 시장의 비상한 대 진동을 미리 규정하였다。

一八六六년 공황의 원인들은 그 이전에 있은 여러 공황의 원인들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 진행이 약간의 특성을 가졌었다。

一八六六년 공황 전(前) 시기에 진행된 미국의 국내 전쟁(一八六一——一八六五년)은 영국에서 『면화 기근』을 조성하여 면방적 시장에 대 진동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이 진동은 바로 공장 지대들에서 앞날의 공황을 일정한 정도로 예정하였던 것이다。 영국의 一八六六년 공황은 신용—화폐 부면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나타났다(『자본론』제一권 六七三페지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의 국내 전쟁(일시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영국의 경기 순환 및 공황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으며 약간의 그 특수성의 원인으로 되였다。

물론 이러한 특수성의 존재는 전체 자본주의 세계를 휩쓴 보통의 주기적 공황으로서의 一八六六년 공황의 발로를 예정한 일반적 합법칙성의 작용을 조금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로써야의 一九〇〇년 공황에 대해서는 흉작과 기근이 커다란 영향을 주어 공황의 진행을 극도로 첨예하게 하였다。 과잉 생산 세계 경제 공황은 그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개별적 나라들에서 특수한 정치적 및 경제적 제 조건에 기인하는 약간의 고유한 특징——그러나 일반적 합법칙성의 작용은 조금도 제거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그 특수성이 극히 현저한 것은 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경기 순환과 공황이다。 경기 순환과 공황의 일반적 진행은 대체로 독점 이전 자본주의의 시대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공황의 정경、그 표현 형태、이 표현들의 순차성은 변화되였다。

아주 첨예한 형태로 진행되였던 一九〇七년 공황은、카르텔과 트레스트의 존재는 공황의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하는 각종 부르죠아적 및 수정주의적 경제 학자들에 의하여 류포된 공황 『리론』의 황당 무계성을 실증하였다。

一九〇八년에 레닌은 론문 『맑스주의와 수정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공황 리론과 파산 리론으로써 수정주의자들의 사태는 더욱 악화되였다。 오직 가장 짧은 기간에만 또 오직 가장 근시안적 인간들만이 몇해 동안의 산업 앙양 및 번영의 영향 하에 맑스 학설의 기초를 개조하려고 생각할 수 있다。 공황은 아직도 제 시대를 다 살지 않았다는 이것을 현실은 매우 빨리 수정주의자들에게 실증하였으니 즉 공황은 번영에 뒤이어 닥쳐왔던 것이다。 개별적 공황의 형태、순차성、정경은 변화되였다。 그러나 공황은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의 불가결한 구성 부분으로 되여 있다』(전집 제一五권 二一페지、방점은 필자의 것)。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의 경기 순환과 공황의 특수성은 뚜렷하며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제二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욱 뚜렷하다。 경기 순환과 공황의 특수성이 거대한 정도로 강화되는 시기는 독점 자본주의가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전화하는 그러한 때이며 대독점체들에 완전히 종속된 국가가 온갖 방법으로 이 독점체들의 최대한의 리윤의 보장을 방조하는 그러한 때이며 국제 무역이 무자비하게 제약받는 그러한 때이며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제한되는 그러한 때이며 통화 제한이 작용하는 그러한 때이다。 이 모든 조건들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일반적 합법칙성의 작용을 제거하지 않으며 또 제거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순환과 공황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들은 一九二九년 공황에 뒤이어 진행된 경기 순환에서 나타났다。 우에서 경기 순환을 론한 때에 이 경기 순환은 보통 다음과 같은 국면들 즉 공황、불경기、활기 증진 및 호경기로써 구성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一九二九년 공황으로 시작되여 一九三七년 공황으로 끝난 경기 순환에 있어서는 호경기의 국면이 탈락하였으며 불경기는 『특수한 종류』의 것이였다。 이 탈락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제一 단계의 일반적 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였다。 이 경기 순환은 약간의 특수성、번영의 국면의 탈락을 뵈여 주었다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一九二九년 공황 그 자체도 어느 정도 특수하게 진행되였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토대 우에서 전개되여 비상한 첨예성、지속성 및 강도를 나타내였다。

개별적 공황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일반적 제 합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일반적 제 합법칙성이 일정한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황의 진행과 그 표현들의 특수성이 나오는 것이다。

본 론문의 범위 내에서는 전체 자본주의 세계의 전후의 경기 순환에는 언급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전문적

인 고찰을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다만 一九五三년 여름에 미국에서 개시된 공황과 그 공황에 선행한 활기 증진을 론술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一九五三년 여름에 미국에서 전개된 공황은 선행한 모든 공황과 동일한 제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였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적대적 제 모순、 그의 기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결과의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순에 의하여 조건지어졌다。 이것은 강조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황이 전개되여온 또 일정한 그의 특수성을 가져온 그 구체적 사회—경제적 제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一九五〇——一九五三년의 활기 증진과 一九五三년에 개시된 공황은 다 같이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제二 단계의 조건 하에서 진행되였다는 데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으니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제二 단계에 있어서는 전 지구상의 인구의 三분의 一 이상을 차지하는 일련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결과 자본주의적 착취권(圈)이 협소하여졌으며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가 일어나며 종래의 전체 포괄적인 세계 시장이 두 세계 시장 즉 자본주의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시장으로 분렬된 결과 자본주의의 시장이 축소되여 그 시장에서의 경쟁이 비상히 격화되였으며 제국주의의 내부 모순이 극도로 첨예하게 된 것이다。

전후 자본주의의——개별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보나——가 가지는 이 모든 특징들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심화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결과의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순과 이 모순의 온갖 표현、 례컨대 특히 생산 능력과 지불 능력 있는 수요 간의 모순을 첨예화하는 본질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전후 자본주의의 일반적 제 조건은 활기 증진기에 있어서의 공황의 전제 조건 성숙의 가속도화 및 강화를 촉진하며 공황의 첨예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우에서 지적한 일반적 제 조건 외에도 재생산 과정에는 일련의 사정들이 영향을 준다。

이 모든 사정 즉 세계 경제의 일반적 정세、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호상 관계、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의 첨예화、 원료 원천과 판매 시장을 위한 가렬한 투쟁、 세계 제패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침략 정책、 제국주의 국가들의 새 세계 전쟁 준비 등등을 여기에서 다 론술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자본주의 나라들 특히 미국에서의 재생산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황 전의 활기 증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황 자체에 대해서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며 또 그 자체만으로서 그것들의 몇가지 특수성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현상들만 론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一九五三년 공황 전의 활기 증진은 고정 자본의 일대 갱신、 즉 기본 건설 투자와 심히 마모되고 장기간 갱신되지 않았던 설비에의 기본 투자를 수반하였으며 또 그것으로 해서 유지되였다。 一九五〇년에 건설 및 설비에의 사적 기본 투자는 二〇六억 딸라에 달하였으며 一九五一년에는 二五六억 딸라、 一九五二년에는 二六五억 딸라、 一九五三년에는 二八三억 딸라였다。

활기 증진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뒤에 진행된 공황에 대해서도 그러했지만 일련의 특수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으니 즉 경제의 군사화 및 그와 관련된 인플레가 그것이다。

미국 경제의 군사화의 정도에 관해서는 미 련방 정부의 직접적 군사비의 규모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二차 세계 대전 전에는 이 지출이 전체 예산 지출 중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세 회계 년도 즉 一九三七——三八년、 一九三八——三九년 및 一九三九——四〇년간에는 전체 예산 지출은 二五一억 딸라였는데 직접적 군사비는 三六억 딸라 즉 一四%에 해당하였었다。

전시에 와서는 미국의 총 국가 예산 뿐만 아니라 군사비도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一九四四——四五 회계 년도에는 전체 지출이 九八七억에 달하였고 그중 직접적 군사비는 八四六억 딸라 즉 거의 八六%를 차지하였다。

전후 첫 몇해 동안에는 전체 지출도、 직접적 군사비도 현저하게 축감되였다。 그러나 一九五〇년 여름부터 조선 침략의 개시와 함께 이 지출들은 다시 증대되였다。 세 회계 년도 즉 一九五〇——五一년、 一九五一——五二년、 一九五二——五三년 간에 미국 정부의 전체 지출은 一、八三七억 딸라에 달하였으며 그중 직접적 군사비는 一、一六四억 딸라 즉 六三%를 차지하였다。

직접적 군사비 이외에도 허다한 간접적 군사비、 그리고 또 예산 지출 부분의 소위 평화 항목에 은폐되여 있는 군사비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축소하여 산정하여도 이러한 지출은 三〇〇억 딸라 이상에 달하였다。 따라서 이 三년 동안에는 미 련방 정부의 전체 지출의 적어도 七五%가 군사화에 지출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제二차 세계 대전의 군사비 조달을 위하여 전쟁 첫날부터 증대된 세금 이외에 국채와 불환 은행권 발행이 리용되였다。 一九三八년부터 一九五三년까지에 미국의 국채는 四四四억 딸라로부터 二、七五二억 딸라에까지 즉 六·二배로 증대하였다。 류통 부면에서 회전하는 화폐 총량은 五八억 딸라로부터 二七八억 딸라에까지 즉 거의 五배로 증대하였다。

무현금 결제(행표 류통)의 기초로 되는 무기 예금 총액은 동 기간에 二六〇억 딸라로부터 一、〇三三억 딸라에까지 즉 四배로 장성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인

플레 과정、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의 축감、광범한 주민 대중의 지불 능력있는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딸라의 구매력은 도매 가격으로 표현하여 거의 五〇% 저락하였다。식료품 가격에 있어서는 딸라의 구매 능력은 한층 더 저락하였다。

군사—인플레적 제 요인 즉 경제의 군사화와 인플레의 영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이러한 요인들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일반적 제 합법칙성의 작용을 조금도 제한할 수 없다。군사—인플레적 제 요인은 거의 영원한 번영을 보장하며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미국에서 류포되고 있는 리론들은 빈 말공부에 불과하다。현실——一九四九년 공황과 一九五三년에 폭발한 공황——은 이들 리론의 황당 무계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인플레적 제 요인의 의의를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이다。이 요인들은 활기 증진을 자극하며 공황의 폭발을 제지하며 공황의 진행을 변형시키며 공황의 형태、순차성 및 정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국가 수요의 증대와 결부되여 있다。이 수요는 결국 광범한 주민 대중의 수요의 축소에 의하여 증대된다。그러나 예산에 의한 화폐 자원 축적의 인플레적 방법은 일시적으로 추가적、지불 능력있는 수요를 조성한다。그 결과、지불 능력있는 총수요가 장성하며 그것은 생산의 장성을 자극한다。

우에서 지적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공황 이전의 활기 증진 및 호경기의 국면들은 은행 대부의 굉장한 확대、산업에 대한 초과 대부로써 특징지어지는 것이 보통이다。이것은 공황의 폭발을 다소 제지한다。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호경기 후에 불가피적으로 뒤따라오는 공황을 비상히 첨예화시킨다。

미국의 은행 신용의 성격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전쟁 첫 날부터 은행 체계는 전쟁 요구에 복종하여 국채 증대에 백방으로 리용되였다。은행 자원의 거대한 부분이 국가 공채권에 투입되였다。그런데 전후에 와서 특히 一九五三년 공황 전의 활기 증진기에는 은행 자원의 거의 반액이 국가 유가 증권에 투입되였다。은행 신용과 국가 신용과의 밀접한 련계가 조성되였다。이 사정은 아래에서 보게 되겠지만 공황의 진행과 신용 부면에서의 그 표현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一九五〇——一九五三년 활기 증진 국면에 있어서는 소비 신용이 커다란 발전을 보았다。이 신용의 장성은 一九四六년에 시작되였으나 그것이 특히 커다란 규모에 달한 것은 공황 전 시기에 있어서이다。一九五三년말에 와서는 소비 신용에 의한 채무가 二二五억 딸라의 거액에 달하였으며 그중 분불(分拂) 판매는 二二三억 딸라에 달하였다。활기 증진의 수년간 (一九五〇——

一九五三년) 에만 하여도 소비 신용에 의한 채무는 一二四억 딸라 증가하였으며 그중 분불 판매는 一〇七억 딸라 증가하였다。

은행 자원의 거의 절반을 국채의 보상에 리용한 이것이 국가의 지불 능력있는 수요의 장성을、따라서 생산의 장성을 촉진하였다는 것은 전혀 명백하다。

소비 신용의 증대、특히 분불 판매는 광범한 대중들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자기의 예상 소득을 희생으로 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게 하였다。

一九五三년 공황 이전의 활기 증진은 경제의 군사화、인플레、국채의 장성、그리고 또 소비 신용의 증대 등의 영향 하에 진행되였다。이로부터 이 국면의 특수성이 나왔으니 즉 이 활기 증진은 현저한 정도로 군사—인플레적이였다。

활기 증진을 자극하고 그 특수성을 조건지은 이상에 지적한 제 요인들은 공황의 전제 조건들의 성숙을 촉진하였다。

경제의 군사화 및 그와 관련된 인플레는 각 경제 부문 간의 새로운 균형의 설정、즉 군수 생산의 증대와 민수 생산의 상대적 축소를 초래한다。이 새로운 균형에 의하여 재생산의 제 조건은 파괴된다。

경제의 군사화는 학살 무기의 생산 증대、물적 자원의 비생산적 리용 등에 의하여 공업 생산의 장성을 자극하면서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고유한 제 모순을 첨예화시킨다。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표현의 하나는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이다。

공업의 생산 능력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대중의 일반적 지불 능력있는 수요는 비록 증대하였다고는 하나 아주 미미한 정도에서 증대하였다。건설 및 설비에의 기본 투자에 관한 상기 자료는 공업 생산 능력이 증대하였음을 립증할 수 있다。

기본 건설의 장성은 대체로 활기 증진 및 호경기의 시기에 특징적이다。이 장성은 공업 생산의 전반적 장성을 환기한다。그러나 여기에서 만일 지불 능력있는 수요가 그만큼 장성하지 않는다면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은 첨예화된다。활기 증진과 호경기의 시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一九五〇——一九五三년의 군사—인플레적 활기 증진의 기간에 생산의 장성을 자극한 그 특수 요인들도 지불 능력있는 수요의 축소를 가져왔다。

경제의 군사화를 위한 융자는 이미 우에서 지적된 국채와 불환 은행권의 발행 이외에 또 세금의 증대에 의하여 실현된다。一九五〇——一九五三년 활기 증진의 시기에는 세금이 국가 수입의 지배적 원천이였다。이 세금의 기본적 중하를 걸머지는 것은 근로 대중이다。우리에게 있는 계산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로동자들의 로임의 三분의 一에 달하는 액이 세금에 의하여 공제

되고 있다。

인플레적 가격 인상 특히 개인 소비 자료 가격의 커다란 인상은 실질 임금 및 주민의 총수입의 축소를 가져온다。 활기 증진의 시기에 있어서도 미국에는 대 실업이 보존되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에 더 첨가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모순、 특히 생산과 광범한 대중의 지불 능력있는 수요 간의 모순은 아주 첨예화하여 맑스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一九五三년에는 공급에 대한 수요의 명백한 불일치가 조성되였다。 공급으로부터의 수요의 격심한 락후를 뚜렷이 뵈여 주는 것은 실현되지 못한 재고의 증대인데 그것은 八二〇억 딸라의 거액에 달하였던 것이다。 그의 일시적 강행적 해결、 즉 공황에 의한 모순의 일시적 해결이 필연적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되게 되였다。

一九五三년 여름에는 미국에서 과잉 생산 경제 공황이 개시되였다。 공업 생산 총지수는 (一九四七—一九四九년을、 계절적 동요를 고려하여 一〇〇으로 함) 一九五三년 七월에 최고점에 도달하여 一三七로 되였다。 八월부터는 지수가 저락하기 시작하여 一九五四년 八월까지 계속되였는 데 이때에 와서는 一二三으로 저하되였다。 이와 같이 공업 총 생산고는 一년 동안에 一〇% 이상이나 축소되였다。 그후 一九五四년 一一월까지의 수개월 동안에는 지수가 一二三과 一二五 사이에서 동요하였으며 一一월에는 一二八로、 그리고 一二월에는 一三〇으로 올라갔다。

공황은 실업의 장성에서 표현되였다。 확실히 축소된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一九五三년 六월에 미국에는 一六〇만명의 완전 실업자가 있었으며 一九五四년 三월에는 三七〇만명의 완전 실업자가 있었다。 이와 같이 완전 실업은 二배 이상으로 증대하였다。 그후 완전 실업자 수는 약간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역시 년말에 이르기까지 약 三백만에 달하였다。

공황 시기에는 파산이 빈번하였다。 一九五二년에는 七천 六백개의 상업—공업 기업소들이 파산하였다。 一九五三년에는 그 채무가 三억 九천 四백 二〇만 딸라에 달하는 八천 九백개의 기업소들이 파산하였다。 一九五四년에는 파산 수가 一만 一천 一〇〇개로 증대하여 총 채무액 四억 六천 二백 七〇만 딸라를 가진 기업소들을 포괄하였다。 이 밖에도 한 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의 합동 및 병합이 허다히 진행되였다。

공황의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가공 공업에서 수행되지 않고 남은 주문의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一九五三년 四월에 이러한 주문의 접수액은 七천 五백만 딸라로、 一九五四년 一一월에는 四천 八백만 딸라로 평가되였다。

一九五三년 공황은 경제의 군사화가 공황을 폐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황이 이미 불가능하게

되였다고 하는、 미국에서 류포된 리론을 다시 한번 론박하였다。 이 모든 리론은 구체적 현실의 면전에서 자기의 파산성을 폭로하였다。 一九五三년 공황은 일련의 특수성을 가지였다。 이 공황은 미국에서만 폭발하였다。 구라파의 자본주의 나라들도 적지 않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그래도 생산이 장성하였다。 보통 공황이 수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다。 례컨대 약간의 상품 가격은 저락되면서도 상품 가격의 일반적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신용 부면에서의 총경제 공황의 표현으로서 보통、 총경제 공황을 첨예화시키며 그것을 가속화하며 그것에 파국적 성격을 부여하는 신용 공황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상품 가격의 일반적 수준의 불변성은 공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와 같은 안정은 첫째로 一九二九—一九三三년 공황 시기에 그러했던 바와 같이 상품 가격의 저락을 억제하는 독점들의 정책에 의하여 설명된다。 둘째로 상품 가격의 일반적 수준의 안정은 인플레에 의하여 설명된다。 공황은 상품 가격의 저락을 초래하며 인플레는 가격 등귀로서 표현된다。 이것은 一九二九—一九三三년 공황 시에도 그러했는바 一九三一년과 一九三二년에는 인플레 과정의 발전이 지페로 표현된 상품 가격의 저락을 제지하였던 것이다。

一九二九—一九三三년 공황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독점들은 오직 일시적으로만 상품 가격의 저락을 억제할 수 있다。 인플레에 의하여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이란 감가된 지페로 표현된 가격을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

공황은 신용 부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공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황마다 신용 공황의 폭발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례컨대 영국의 一八七八년 공황은 화페—신용 공황을 수반하지 않았다。 공황의 바로 시초에 있어서의 신용 공황의 폭발도 또한 의무적이 아니다。 공황의 각이한 제 표현이 나타나는 순차성도 의무적이 아니다。 미국의 一九二九—一九三三년 공황시에는、 일체 미국 은행의 일시적 폐쇄로서 표현된 미증유의 첨예성을 띤 신용 파국은 공황이 끝날 무렵인 一九三三년 二—三월에 와서 폭발되였다。

미국에서의 신용 공황의 결여는 은행 신용의 상기한 바와 같은 변화에 의하여 설명된다。 은행 신용의 국가 신용과의 밀접한 련계는 은행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며 공황의 타격에 대한 은행의 저항성을 증대시킨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 一一월부터 미국의 공업 생산의 저락은 정지되고 그 생산량은 그 지수가 一

三七점(一九四七——一九四九년을 一〇〇으로 하여)에 달하였던 공황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一九五五년 一월의 공업 총 생산량 지수는 一三一로 장성하였으며 二월에는 一三三으로、三월에는 一三五로 장성하였다。

그러나 공업 생산 지수의 이러한 제고가 계속적인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제고를 가져오는 그 원인들이 영원히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례컨대 공업 생산 증대의 중요한 요인은 계속되는 기본 건설이다。 一九五四년에는 건설 및 설비에의 사적 기본 투자가 一九五三년 보다는 축감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거액——二六八억 딸라에 달하였다。 一九五三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의 커다란 규모는 낡은 또는 마모된 공업 시설을 갱신할 필요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최신 군수 기재를 포함한 새로운 종류의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공장들의 건설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러나 이 건설은 생산의 전반적 장성을 오래 동안 규정할 수는 없다。

공업 생산 지수의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의 계속되는 군사화이며 공업 독점들이 받는 거액의 국가 주문이다。 미 련방 정부의 직접적 군사비만 하여도 매년 四백억 딸라를 초과한다。 그러나 공업 생산 자극의 이러한 방식은 공업 생산의 높은 수준을 오래 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 一九五三년 전에는 경제의 상당히 격렬한 군사화가 진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업 생산의 높은 수준을 오래 동안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경제의 군사화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一九五三년 여름에 폭발되고야 말았다。 현재에는 경제의 군사화에 의하여 높은 생산 수준을 오래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졌다。 경제의 군사화가·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생산 장성을 자극하는 그의 영향이 더욱 약화되며 그것에 의하여 초래되는 재생산 과정의 모순、례컨대 특히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된다。

이미 우리 출판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공업 생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노는 것은 자동차 생산의 증대이다。 이 생산의 증대가 환기된 것은 금년 초에 첨예한 경쟁이 一九五五년 형(型) 승용차의 대량 생산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용해량(溶解量)의 장성을 초래하였는바 이것이 또한 공업 생산의 총지수에 반영되였다。 보통 기한보다 일찌기 자동차를 많이 생산한 이것은 일시적 요인이지 공업 생산의 일반적 장성을 다소라도 계속 자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새로운 자동차의 급속한 생산은 불가피적으로 가까운 장래의 그의 과잉 생산을 예정한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은행 신용과 국가 신용과의 밀접한 련계는 은행의 지위와 공황의 타격에 대한 그의 저항 능력을 강화한다。 이리하여 신용·공황의 폭발이 억제된다。 그러나 이 련계는 결국 은행 체계를

약화시킨다。 즉 은행 신용의 긴장은 국가 신용의 긴장에 의하여 강화된다。 이 후자에 관해서는 첫째로 국가 예산의 변경된 구성、국채 총액 중에 있어서의 단기 신용 채권의 비중의 증대가 립증한다。 둘째로 국가 신용의 증대되는 고가화(高價化)가 립증하는바 一九四五——四六년에는 국채 관리에 四七억 딸라가 지출되였으며 一九五四년에는 六五억 딸라가 지출되였다。 이와 같이 은행 신용과 국가 신용과의 련계는 신용 공황의 폭발을 억제하는 일시적 요인인바 그것은 이 폭발을 예정하는 요인으로 되며 따라서 경제적 위기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부터 그것을 첨예화하는 요인으로 전화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근년에 생산의 일반적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특히 영국에서는 경제적 난관들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할 수는 없다。 一九五四년 영국 경제 형편에 관한 개관이 주어져 있는、一九五五년 三월에 영국에서 발행된 백서(白書)를 인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필자는 그의 온갖 락관주의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대한 불안을 은페할 수 없었다。

전후 미국 경제의 발전은、공황의 형태、순차성 정경이 변화되였다 할지라도 공황은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의 불가피적 한 구성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정치 경제학에 의하여 확증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일반적 제 합법칙성은 여전히 확고 부동하다。

(꼼무니쓰트 一九五五년 제 九호에서)

근로자 제八호 (루계 제一一七호)

一九五五년 八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五년 八월 二五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로동 신문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四五원)

ㄱ—30155호

도 서 안 내

에프•엥겔스 저

반 듀 링 론

국판 양장, 519페지
정 가 210원
1955년 8월 발행

이 로작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맑스와 협의해서 저술한 것으로, 서론과 철학편, 정치 경제학편, 사회주의편의 세 편으로 구성되여 있다. 엥겔스는 이 저서에서 듀링의 비과학적 견해를 비판함과 동시에 맑스주의의 기본 명제들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였으며 자연 과학이 달성한 성과들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총화하였고 사회주의 학설의 발전사를 개관하였다. 《반듀링론》은 《공산당 선언》과 아울러 《매개 의식적 로동자의 필독의 저서》라고 브•이•레닌은 말하였다. 우리 나라 독자들이 오래 동안 고대하던 《반듀링론》 조선문판의 발간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게•에프•알렉싼드로브 총 편집
김 일성 종합 대학 철학 강좌 역

변 증 법 적 유 물 론

국판 양장, 493페지
정 가 167원
1955년 7월 발행

이 책은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가 사계의 최고 권위자들의 집체적 노력을 동원하여 이룩한 가장 새롭고 가장 훌륭한 《변증법적 유물론》 교과서이다. 이 책에는 자연 과학의 최신 성과,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제국에서의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건설, 국제 로동 운동 및 민족 해방 운동의 경험이 개괄되여 있다. 이 책에서는 종래의 《변증법적 유물론》 교과서에 있던 많은 결함이 시정되고 일련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여 해명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민주 일'군으로서의 자기의 리론 수준을 높여 우리 혁명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 상기 도서들은
현재 각지 국영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음